

강진청자박물관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南宋前期의 官窯에 대한 새로운 理解

2009  
08  
10  
MON

14:00  
-  
17:00

강진청자박물관  
시청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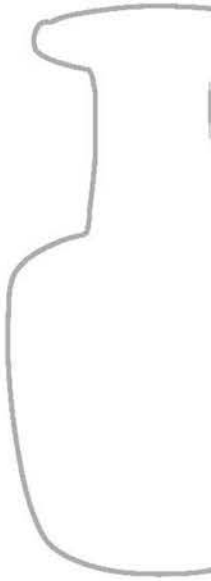
강진청자박물관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南宋前期의 官窯에 대한 새로운 理解

2009  
08  
10  
MON

14:00  
-  
17:00

강진청자박물관  
시청각실



강진청자박물관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南宋前期의 官窯에 대한 새로운 理解

**발표자** 이회관 \_ 서강대학교

**토론자** 장남원 \_ 이화여자대학교  
김윤정 \_ 용인대학교 박물관

목차

Contents

---

발표문

南宋前期의 官窠에 대한 새로운 理解   李喜寬	06
南宋前期官窠新探   李喜寬	36

---

토론회취록	60
-------	----

---

부록

南宋後期の 官窠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李喜寬	84
----------------------------	----



## 南宋前期의 官窯에 대한 새로운 理解

李喜寬 | 西江大 講師

1

問題의 提起

2

老虎洞窯는 과연 최초의 南宋官窯인가?

-老虎洞窯와 郊壇下官窯 出土品의 造型的 比較-

3

최초의 修內司官窯는 어디에 있었는가?

4

老虎洞修內司官窯의 成立과 그 背景

5

餘言



## 1

問題의  
提起

1998년 5월~12월과 1999년 10월~200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老虎洞窯址가 전면발굴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남송대 이후의 많은 문헌에 언급된 修內司官窯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을 이 발굴의 가장 큰 수확으로 꼽는다.<sup>1)</sup> 즉 그들은 이窯址의 宋代層이 南宋修內司官窯址라고 믿고 있다.

남송관요에 대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헌으로 평가되는 『坦齋筆衡』에는, 남송정권이 성립된 초기에 먼저 修內司에 “內窯”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郊壇下에 “新窯”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sup>2)</sup> 老虎洞窯址가 발굴된 이후 이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우리는 통상 전자를 修內司官窯로, 후자를 郊壇下官窯로 부른다. 이 문헌기록에 따르면, 修內司官窯가 처음 설립된 남송관요이므로, 老虎洞窯址가 修內司官窯址라고 믿는 연구자들은 이窯址를 최초의 南宋官窯址로 이해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남송관요는 老虎洞에 있었던 것일까? 본 논고는 이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사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남송시기에 修內司官窯와 郊壇下官窯가 각각 서로 다른 두 곳에서 窯業을 계속하였다는 전제 위에서 있다. 郊壇下官窯가 烏龜山麓에 있었다는 것은 문헌기록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이미 확인되었다.<sup>3)</sup> 그러므로 새로 발견된 南宋官窯址인 老虎洞窯址를 修內司官窯址로 이해하고 그것을 최초의 南宋官窯址로 파악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1) 秦大樹, 『杭州老虎洞窯址考古發現專家論證會紀要』, 『文物』 2001年 第8期, 文物出版社, pp.94-95.

2) 『坦齋筆衡』의 내용과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別稱을 마련하여 자세히 검토할 생각이다.

3) [元陶宗儀撰, 『南村輟耕錄』 卷29 窯器條, 元明史料筆記叢刊本, 中華書局, 1959, pp.362-363.

4) 이후 宋代層과 元代層을 구별하지 않고 단지 “老虎洞窯址”라고 한 것은 모두 老虎洞窯址 宋代層을 가리킨다. “老虎洞窯”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5) [元陶宗儀撰, 『南村輟耕錄』 卷29 窯器條, 元明史料筆記叢刊本, 中華書局, 1959, pp.362-363, [宋潘耒撰, 『臞菴雜記』 卷10 青器條, 清道光十年錢坫汪氏樹綸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3441, 浙江省博物館, 『三十年來浙江文物考古工作』, 『文物考古工作三十年』, 文物出版社, 1979, p.223, 中國社會科學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市園林文物局編, 『南宋官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6) 米內山庸夫, 『南宋官窯の研究(中間報告) 11 南宋官窯の窯跡』, 『日本美術工藝』 174, 日本美術工藝社, 1953, pp.22-23.

그러나 이미 50여 년 전에 多數의 修內司官窯址가 있다는 견해가 제출된 바 있다.<sup>7)</sup> 그리고 문헌기록에 의하면, 오늘날의 望江門附近에도 남송후기에 운영된 관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8)</sup> 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 杭州에서는 여러 곳에서 많은 南宋官窯型瓷器片들이 출토되어서 이러한 곳들에도 남송관요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中河路高架橋(南星橋段)과 杭州卷煙廠 및 梅花碑가 그 대표적인 곳들이다.<sup>9)</sup> 이러한 점들은 이제까지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인 남송관요와 관련된 전제, 즉 남송시기에 修內司官窯와 郊壇下官窯가 각각 서로 다른 두 곳에서 窯業을 계속 하였다는 전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결국 최초의 남송관요가 老虎洞에 있었는가 여부의 문제는 老虎洞窯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남송관요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에서는 남송전기의 관요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을 검토하려 한다. 첫째, 최초의 남송관요는 老虎洞에 있었을까, 아니면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을까? 둘째, 만약 실제에 있어서 후자의 경우였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셋째, 老虎洞窯는 언제 설립되고 그 설립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들이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내용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남송관요의 면모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2

### 老虎洞窯는 과연 최초의南宋官窯인가?

—老虎洞窯와 郊壇下官窯出土品の 造型的 比較—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老虎洞窯址가 발굴된 이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窯址의 宋代層을 최초로 설립한 南宋官窯의 遺址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에 잘못이 없다면, 이 窯의 초기 생산품은 의당 器種·器型·燒成工藝 등 전반적인 면에서 郊壇下官窯의 초기 생산품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만약 실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老虎洞窯가 최초의 남송관요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7) 武佩聖, 「對南宋官窯的懷舊與瞻望」,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大學出版社, 2004, pp.30-31, 李喜寬, 「有關南宋後期官窯的幾個問題」, 『故宮博物院院刊』, 2009年 3期, 紫禁城出版社, pp.11-16.

8) 劉誠, 「“鳳凰山窯”的發現及相關問題研究」, 『南方文物』, 江蘇省文物考古研究所·江蘇省博物館, 1999年 第2期, p.69, 吳戰墨, 『圖說中國陶瓷史』, 浙江教育出版社, 2001, p.112, 張玉蘭, 「關於老虎洞窯的幾個問題」, 『東方博物』, 第14輯, 浙江大學出版社, 2005, p.99.

老虎洞窯와 郊壇下官窯는 설립시기는 서로 다르지만, 양자 모두 남송 황실 所用의 瓷器를 제작하는 관요로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아울러 상당한 기간 동안 並列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생산품 역시 造型과 燒成工藝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또한 두 窯址 출토품들의 시간적 선후에 따른 변화과정도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두 官窯址의 出토품을 단순하게 비교 하여서는 어느 관요가 앞선 시기에 설립되었는지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는 남송관요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북송말기의 汝窯와 北宋官窯 그리고 남송초기의 이른바 低嶺頭類型 등에까지 비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北宋官窯는 아직 窯址가 발견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생산품의 面貌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의 대상에 올릴 수가 없다. 결국 汝窯와 低嶺頭類型 등만이 실제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汝窯와 低嶺頭類型이 남송관요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sup>10)</sup> 그렇다면 老虎洞窯와 郊壇下官窯의 생산품 가운데 어느 쪽이 汝窯 및 低嶺頭類型과 造型的·燒成工藝의 측면 등에서 親緣性이 더 강한가 하는 점이 양자 가운데 어느 쪽이 앞선 시기에 설립되었는가 하는 점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親緣性이 강한 쪽이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서는 각별히 造型의인 측면에 주목하고자 한다.<sup>11)</sup>

老虎洞窯의 생산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碗·盤·碟·洗·盒·杯·鉢·盆·花盆·爐·尊·觚·巵·瓶·壺·罐·器座·器蓋·筆山 등을 주요 器種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각 器種에는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다. 예컨대, 瓶에는 梅瓶·盤口瓶·弦紋瓶·琮式瓶·鵝頸瓶·玉壺春瓶·套瓶·花口瓶 등이 있으며, 크기와 조형도 한결같지 않다. 郊壇下官窯 생산품의 경우도 器種과 器型의 측면에서 老虎洞窯와 큰

9) 杜正賢, 「杭州老虎洞窯址의 考古學研究」, 『故宮博物院院刊』 2002年 第5期, 紫雲閣出版社, 2002;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大學出版社, 2004, pp.84-85, 王光明, 「杭州老虎洞窯遺址對研究官哥窯的啓示」, 『故宮博物院院刊』 2002年 第5期, 紫雲閣出版社; 「中國古代官窯制度」, 紫雲閣出版社, 2004, pp.92-94, 唐俊杰, 「南宋郊壇下官窯與老虎洞官窯的比較研究」,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p.188-196, 陳元甫, 「對杭州老虎洞南宋官窯的幾點思考」,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大學出版社, 2004, pp.34-37.

10) 劉毅, 「從汝官窯到郊壇下官窯的傳遞」,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孫新民, 「汝窯與老虎洞的比較研究」,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大學出版社, 2004, 沈岳明, 「低嶺頭類型再認識」,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11) 燒成工藝 측면에서의 老虎洞窯와 郊壇下官窯 生産品의 비교는 唐俊杰, 「南宋郊壇下官窯與老虎洞官窯的比較研究」,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p.181-188, 張玉蘭, 「老虎洞窯瓷片堆積坑出土瓷器製燒工藝初探」,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p.200-207을 참조하라.

차이가 없다. 하지만 老虎洞窯址와 郊壇下官窯址 출토품을 자세히 관찰하면, 양자 사이에 기종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三足盤·細頸瓶·唾具·蓮瓣汝香爐·花口瓶 등은 郊壇下官窯址에서는 출토되었지만, 老虎洞窯址에서는 전혀 출토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夾層碗·盞托·套瓶·樽式套爐·筆山 등은 老虎洞窯址에서는 출토되었으나, 郊壇下官窯址에서는 출토되지 않았다. 먼저 郊壇下官窯址에서는 출토되고, 老虎洞窯址에서는 출토되지 않은 器種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三足盤은 높이가 낮고 밑면이 평평하고 넓은 小盤에 세 개의 獸蹄形 다리를 부착한 모양인데, 郊壇下官窯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三足盤이 출토되었다<sup>12</sup>. 小盤의 형태에 따라 여러 형식으로 분류된다. 흥미로운 것은 郊壇下官窯의 경우, 三足盤이 초기단계의 器物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이다.<sup>13</sup> 三足盤은 淸涼寺汝窯址에서도 상당량이 출토되었으며<sup>14</sup>, 低嶺頭類型에서도 발견되었다.<sup>15</sup> 淸涼寺汝窯址에서 출토된 三足盤은 모두 낮은 원통형 몸체에 獸蹄形 다리가 부착된 것이다. 즉 小盤의 형태가 극히 단순하다. 이렇게 단순한 유형의 三足盤이 低嶺頭類型을 거쳐 郊壇下官窯의 초기단계에 이르러 조형이 매우 다양화되다가 초기단계가 끝나기 전에 소멸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면, 老虎洞窯址에서 三足盤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老虎洞窯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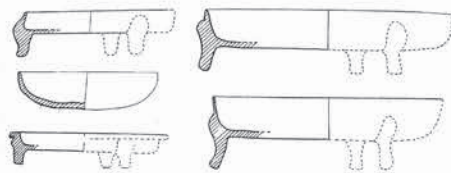


圖1 郊壇下官窯址 出土 三足盤



圖2 淸涼寺汝窯址 出土 三足盤

12) 中國社會科學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市園林文物局 編, 『南宋官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pp.22-23.

13) 唐俊杰, 『南宋郊壇下官窯與老虎洞官窯的比較研究』,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p.189-191.

14)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淸涼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pp.84-85.

15) 沈岳明, 『修內司窯的考古學觀察—從低嶺頭談起』, 『中國古陶瓷研究』 4, 紫禁城出版社, 1997, p.85.



圖3 郊壇下官窯址 出土 細頸瓶

圖4 清涼寺汝窯址 出土 細頸瓶

細頸瓶은 몸체가 球形이고, 목이 비교적 가늘고 긴 병이다.<sup>18</sup> 이른바 鵝頸瓶과 아울러 玉壺春瓶으로 불리기도 한다.<sup>17</sup> 그러나 細頸瓶은 頸部와 몸체의 형태에서 鵝頸瓶과는 일정한 조형적 차이가 있어 쉽게 구분된다. 郊壇下官窯의 경우 초기단계부터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sup>圖3</sup>.<sup>18</sup> 清涼寺汝窯址와 低嶺頭類型窯址에서도 유사한 器型의 細頸瓶이 출토되었다<sup>圖4</sup>.<sup>19</sup>

唾具는 郊壇下官窯 초기단계 제품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老虎洞窯址 뿐만 아니라 清涼寺汝窯址에서도 출토된 예가 없다. 低嶺頭類型窯址에서 비슷한 유형의 天靑釉唾具가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sup>20</sup> 郊壇下官窯의唾具는 低嶺頭類型의 영향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蓮瓣紋香爐는 郊壇下官窯址에서 爐身과 底部가 분리된 채로 출토되어 각각 鐵과 器蓋로 따로 분류되었던 器種으로,<sup>21</sup> 金銀器를 모방한 것이다. 이 蓮瓣紋香爐 역시

18 | 細頸瓶 가운데 郊壇下官窯 초기 생산품의 중요한 특징인 厚胎薄釉 제품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中國社會科學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市園林文物局 編, 『南宋官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p.32), 이 유형의 瓶은 郊壇下官窯 초기단계부터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19 |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p.87, 沈岳明, 『低嶺頭類型再認識』,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81.

20 |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p.286.

21 | 中國社會科學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市園林文物局 編, 『南宋官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p.28 및 p.40, 劉毅, 『從汝官窯到郊壇下官窯的傳遞』,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p.124-126.



圖5 清涼寺汝窯址 出土 蓮瓣紋香爐



圖6 郊壇下官窯址 出土 花口瓶

郊壇下官窯 초기단계의 器物로 분류된다. 清涼寺汝窯址에서도 여러 점이 출토되었는데,<sup>22</sup> 일부 유형은 郊壇下官窯址에서 출토된 것과 조형적으로 매우 흡사하다<sup>圖5, 23</sup> 低嶺頭類型에서는 아직 보고된 출토 예가 없다. 清涼寺汝窯의 영향으로 郊壇下官窯 초기단계에 제작되다가 곧 소멸된 器種으로 파악된다.

花口瓶은 口部가 花瓣形이고 목이 짧고 굵은 편이며, 郊壇下官窯 후기단계의 특징을 지닌 器種이다<sup>圖6, 24</sup> 老虎洞窯址 뿐만 아니라 清涼寺汝窯址나 低嶺頭類型窯址 등에서도 출토된 예가 없어 그 영향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다음으로 老虎洞窯址에서는 출토되고 郊壇下官窯址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器種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夾層碗은 높낮이가 다르고 口徑이 같은 두 개의 碗을 포개어 연결한 형태로, 上層碗과 下層碗의 중간부분은 비어 있으며, 諸葛碗 또는 供碗으로 불리기도 하는 독특한 조형의 器種이다. 북송대부터 越窯와 龍泉窯 등에서 제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郊壇下官窯址 뿐만 아니라 清涼寺汝窯址에서는 출토된 바가 없다.

22 |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p.104.

23 | 清涼寺汝窯 Aa型薰爐는 郊壇下官窯의 蓮瓣紋香爐와 조형적으로 거의 흡사하다(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p.105의 圖69 및 中國社會科學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市園林文物局 編, 『南宋官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p.28과 p.40 참조).

24 | 郊壇下官窯址에서 출토된 花口瓶은 유형이 두꺼운 厚釉製品인데(中國社會科學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市園林文物局 編, 『南宋官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p.35), 이는 郊壇下官窯 후기 단계 제품의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되고 있다(陳元甫, 『杭州老虎洞南宋官窯發現的啓示』,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p.41-45).



圖7 老虎洞窯址 出土 夾層碗



圖8 日本福岡市博多遺址 出土 夾層碗

老虎洞窯址에서는 대형과 소형 두 부류의 夾層碗이 출토되었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夾層碗은 모두 瓷片堆積坑H3에서 출토된 것들이다<sup>25)</sup>.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H3를 H2와 더불어 대표적인 老虎洞窯 초기단계의 瓷片堆積坑으로 파악하고 있다.<sup>25)</sup> 이 견해에 따르면, 老虎洞窯의 夾層碗은 이窯 초기단계 제품인 셈이다. 그리고 老虎洞窯의 夾層碗은 조형적인 측면에서 越窯보다는 龍泉窯의 夾層碗과 훨씬 흡사하다<sup>26)</sup>. 이 점으로 미루어 老虎洞窯의 夾層碗은 汝窯 및 低嶺頭類型의 영향과 관계없이 老虎洞窯의 초기단계에 이르러 龍泉窯의 영향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盞托은 老虎洞窯址에서 여러 유형의 것들이 출토되었는데, 잔을 올려놓는 부분이 작은 종지를 얹어놓은 듯한 형태의 것(I型)은 없고, 모두 杯의 형태를 하고 있다(II型)는 특징이 있다<sup>26)</sup>. 대부분의 盞托은 대표적인 老虎洞窯 초기단계의 瓷片堆積坑으로 알려진 H3과 H2에서 출토되었다. 低嶺頭類型窯址에서는 托盞이 출토된 바가

25) 단, 張玉蘭은 H3과 H2를 老虎洞窯 후기단계의 瓷片堆積坑으로 파악하고 있다(張玉蘭, 「老虎洞窯瓷片堆積坑出土瓷器製燒工藝初探」,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202 및 張玉蘭, 「關於老虎洞窯的幾個問題」, 『東方博物』 第14輯, 浙江大學出版社, 2005, pp.94-95).

26) 寺龍口越窯址에서도 여러 유형의 夾層碗이 출토되었지만, 모두 老虎洞窯의 夾層碗과는 조형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pp.76-80). 한편, 日本 福岡市 博多遺蹟에서 龍泉窯 夾層碗이 출토되었는데, 조형적인 측면에서 老虎洞窯의 夾層碗과 매우 흡사하다. 다만 전자의 경우 碗의 內面에 蓮花刻花紋이 시문되어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문양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이 유물은 福岡市埋藏文化財センター에 소장되어 있는데, 田中克子 調査員의 말에 따르면, 南宋前期에 해당하는 地層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圖9 老虎洞窯址 出土 盞托(Ⅱ型)



圖10 清涼寺汝窯址 出土 盞托(Ⅰ型)

없으며,<sup>27</sup> 寺龍口越窯址의 南宋初期層位에서 출토된 盞托은 老虎洞窯의 盞托과 조형적으로 전혀 다르다.<sup>28</sup> 그러므로 이들이 老虎洞窯의 盞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清涼寺汝窯址에서는 적지 않은 수량의 盞托이 출토되었으며,<sup>29</sup> 조형적으로 老虎洞窯의 盞托과 어느 정도 유사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기형과 기형별 出土量 등에서 老虎洞窯址와는 크게 다르다. 清涼寺汝窯址에서 출토된 盞托의 대부분은 I型이다.<sup>30</sup> 老虎洞窯址에서는 이 유형의 盞托(I型)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sup>31</sup> 그리고 II型 盞托도, 清涼寺汝窯의 경우는 모두 杯 부분과 底部가 떨어져 있지만,<sup>32</sup> 老虎洞窯의 경우는 떨어져 있는 것과 막혀 있는 것의 두 유형이 있다.<sup>33</sup> 이러한 점들은 汝窯와 老虎洞窯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7 | 이 점은 低嶺頭類型을 최초로 학계에 소개한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沈岳明 研究員의 敎示에 따른 것이다. 이후 低嶺頭類型과 관련하여 특별한 典據를 밝히지 않은 것은 대부분 沈岳明 研究員의 敎示에 따른 것임을 밝혀둔다.

28 |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pp.161-169.

29 |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p.99.

30 |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p.99.

31 | 杭州市文物考古所(杜正賢 執筆), 『杭州老虎洞南宋官窯址』, 『文物』2002年 第10期, 文物出版社, pp.10-18, 杜正賢 主編, 『杭州老虎洞窯址瓷器精選』, 文物出版社, 2002, pp.130-134.

32 |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p.99.

33 | 杜正賢 主編, 『杭州老虎洞窯址瓷器精選』, 文物出版社, pp.130-134.





圖11 老虎洞窯址 出土 套瓶



圖12 老虎洞窯址 出土 樽式套爐

套瓶은 전체적인 外樣이 鵝頸瓶과 흡사하다.<sup>34</sup> 몸통에는 透刻技法의 唐草紋을 施紋하였다. 이러한 套瓶은 H5와 H22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圖11, H5와 H22는 老虎洞窯의 중기이후단계에 해당하는 瓷片堆積坑으로 파악되고 있다.<sup>35</sup> 淸涼寺汝窯址에서는 套瓶이 출토되지 않았다. 低嶺頭類型窯址 가운데 하나인 寺龍口越窯址의 南宋初期層位에서 출토된 예가 있어,<sup>36</sup> 老虎洞窯의 套瓶은 이窯의 영향으로 老虎洞窯 중기 이후단계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단 寺龍口越窯址 출토 套瓶의 경우, 老虎洞窯址 출토의 套瓶과 달리, 透刻技法의 문양과 아울러 肩部와 굽 주위에 각각 刻劃花技法의 牡丹紋과 蓮瓣紋을 시문한 예도 있고, 透刻紋樣에서도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양자의 시간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樽式套爐는 몸통에 透刻技法의 唐草紋을 두른 점을 제외하면, 老虎洞窯址에서 출토된 동일한 시기의 일반 樽式爐와 外觀上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sup>37</sup> 이제까지 보고된 樽式套爐는 모두 H5에서 출토되었다 圖12. 樽式套爐는 淸涼寺汝窯址를 비롯하여 郊壇下官窯址 및

34) 杭州市文物考古所(杜正賢 執筆), 「杭州老虎洞南宋官窯址」, 『文物』2002年 第10期, 文物出版社, p.16, 杜正賢 主編, 『杭州老虎洞窯址瓷器精選』, 文物出版社, 2002, pp.49-50.

35) 杭州市文物考古所(杜正賢 執筆), 「杭州老虎洞南宋官窯址」, 『文物』2002年 第10期, 文物出版社, pp.28-29, 賀世偉, 「南宋官窯分期淺析」,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大學出版社, 2004, pp.145-146, 范夢園, 「杭州老虎洞窯址南宋遺存分期研究」, 北京大學碩士研究生學位論文, 2004, pp.38-46.

36)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p.195.

37) 杜正賢 主編, 『杭州老虎洞窯址瓷器精選』, 文物出版社, 2002, pp.104-112.

寺龍口越窯址 등에서 출토된 바가 없어 영향관계를 밝히기가 힘들다. 다만, 透刻技法이 老虎洞窯 중기이후단계에 유행한 점으로 미루어, 이 시기에 套瓶 등에서 透刻技法을 차용한 것이 아닐까 짐작될 뿐이다.

筆山은 箸架로 분류되기도 하는 器種이다.<sup>38)</sup> 淸涼寺汝窯址에서는 출토된 바가 없으며, 低嶺頭類型의 窯址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sup>39)</sup> 이 점으로 미루어 老虎洞窯의 筆山은 低嶺頭類型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양자는 조형적 차이가 현저하여, 양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筆山 자체가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器種은 아니다.

이제까지 郊壇下官窯址와 老虎洞窯址 가운데 어느 한 쪽의 窯址에서만 출토된 器種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첫째, 郊壇下官窯址에서만 출토된 器種들 가운데 초기단계의 제품의 경우, 그 器種들의 대부분이 淸涼寺汝窯址나 低嶺頭類型窯址에서도 출토되었으며, 조형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 둘째, 老虎洞窯址에서만 출토되는 器種들 가운데 초기단계 제품의 경우, 淸涼寺汝窯址와 低嶺頭類型窯址에서는 출토되지 않은 器種이 郊壇下官窯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편이며, 淸涼寺汝窯址에서도 출토된 器種이라 하더라도(註4), 양자 사이에는 세부적인 器型이나 器型別 出土量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적어도 조형적인 측면에서 郊壇下官窯의 생산품과 汝窯 및 低嶺頭類型 제품의 친연성이, 老虎洞窯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淸涼寺汝窯址에서 적지 않게 출토된 三足盤과 細頸瓶 그리고 蓮瓣紋香爐 등이 郊壇下官窯址에서는 출토된 반면, 老虎洞窯址에서는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우리의 논의에 따르면, 이는 郊壇下官窯의 설립시기가 老虎洞窯의 설립시기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郊壇下官窯와 老虎洞窯 생산품의 기형적 변천과정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다.

汝窯에서 남송관요에 이르는 시기의 기형적 변천과정을 잘 보여주는 器種 가운데 하나는 盤口瓶이다. 이 유형의 병은 흔히 다듬이병(砑形瓶)으로도 불리는데, 淸涼寺汝窯址·低嶺頭類型窯址·郊壇下官窯址·老虎洞窯址에서 모두 출토되었다. 이 盤口瓶의

38) 范夢園, 「杭州老虎洞窯址南末遺存分期研究」北京大學碩士研究生學位論文, 2004, p.35.

39) 沈岳明, 「修內司窯의 考古學觀察—從低嶺頭談起」, 『中國古陶瓷研究』4, 紫雲城出版社, 1997, p.85.



圖13 清涼寺汝窯址 出土 盤口瓶

기형적 변천과정은 口部·肩部·굽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데, 口部는 盤口型(I型)→平口型(II型)으로, 肩部는 측면선이 완만한 곡선인 형태(I型)→각이 진 형태(II型)로, 굽은 平底(I型)→圈足(II型)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清涼寺汝窯址에서는 다량의 盤口瓶이 출토되었는데, 口部는 기본적으로 盤口型(I型)이고, 肩部는 측면선이 완만한 곡선의 형태(I型)이며, 굽은 모두 平底(I型)이다. 圖13. 40 低嶺頭類型窯址에서도 盤口瓶이 출토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口部는 I型和 II型이 혼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I형의 경우 汝窯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편인데, 이는 汝窯의 전형적인 盤口型이 平口型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유감스럽게도 출토된 자료들이 모두 口部片들 뿐이기 때문에 肩部와 굽의 형태는 알 수가 없다. 郊壇下官窯址의 경우도 출토된 盤口瓶 자료들 역시 모두 口部片들로, 口部의 형태는 I형도 있고, II형도 있다.<sup>41</sup> 출토 상황과 출토 자료의 器型이 低嶺頭類型의 경우와 흡사하다. 老虎洞窯址 출토 盤口瓶은 기본적으로 모두 平口型이다.<sup>42</sup> 이는 老虎洞窯 단계에 이르러 盤口型의 口部가 平口型의 口部로 완전히 이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肩部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것들은 I형이고, 늦은 시기의 것들은 II형으로, 시기에 따른 조형적 차이가 분명하다.<sup>43</sup> 굽의 형태는 모두 II형이다.<sup>44</sup> 이는 平底의 굽이 이 시기에 이미 圈足으로 이행되었음을 의미한다.表1

40)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p.87.

41) 中國社會科學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市園林文物局 編, 『南宋官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에 添附되어 있는 圖版24 참조. 圖版24의 2와 3은 I型(盤口型)이고 1은 II型(平口型)이다.

42) 杜正賢 主編, 『杭州老虎洞窯址瓷器精選』, 文物出版社, 2002, pp.53-63. 단, 杜正賢은 H3:143의 盤口瓶의 口部를 盤口型으로 분류하였다(杜正賢 主編, 『杭州老虎洞窯址瓷器精選』, 文物出版社, 2002, p.53). 그러나 이 盤口瓶의 경우, 平口型의 口緣部가 완만하게 약간 위로 올라간 것으로서, 盤口型과는 거리가 멀다.

表1 各窯址 出土 盤口瓶의 造型 分析

窯址	盤口瓶의 部位		
	口部	肩部	底部
清涼寺汝窯址	I 型	I 型	I 型
低嶺頭類型窯址(寺龍口窯址 南宋層 포함)	I · II 型	?	?
郊壇下官窯址	I · II 型	?	?
老虎洞窯址	II 型	I · II 型	II 型

※ 盤口瓶 各部位의 變化과정: I 型→II 型

출토된 자료에 依據하여 보면, 口部·肩部·굽 가운데 盤口瓶의 造型적 變化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口部이다. 우리가 각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清涼寺汝窯址·低嶺頭類型窯址·郊壇下官窯址에서는 모두 盤口型(I 型)의 盤口瓶이 출토된 반면<sup>44</sup>, 老虎洞窯址에서는 平口型(II 型)의 盤口瓶만 출토되었다는 점이다<sup>43</sup>. 盤口瓶의 口部가 盤口型(I 型)→平口型(II 型)으로 이행하였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汝窯 및 低嶺頭類型과의 造型적 친연성에 있어서, 郊壇下官窯가 老虎洞窯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강하다는 점, 다시 말하면, 전자의 설립시기가 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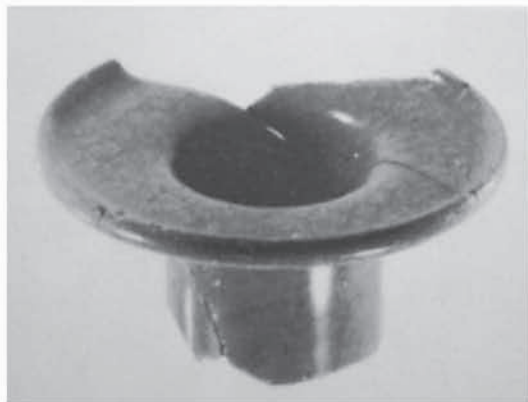


圖14 郊壇下官窯址 出土 盤口瓶의 口部(I 型)



圖15 老虎洞窯址 出土 盤口瓶 (II 型 口部)

43 | 張玉蘭, 「老虎洞窯瓷片堆積坑出土瓷器製燒工藝初探」,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 203.

44 | 杜正賢 主編, 『杭州老虎洞窯址瓷器精選』, 文物出版社, 2002, pp. 53-63. 百科全書出版社, 1996, p. 37.



圖16 清涼寺汝窯址 出土 梅瓶(I型) 圖17 清涼寺汝窯址 出土 梅瓶(II型) 圖18 老虎洞窯址 出土 梅瓶(I型)

이러한 점은 梅瓶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매병의 조형적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도 口部이다. 清涼寺汝窯址에서는 두 종류의 매병이 출토되었는데, 하나는 몸체에 비하여 口部가 매우 작은 小口型(I型)이고圖16, 또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口部가 훨씬 크고 목도 굵은 大口型(II型)이다圖17.<sup>45</sup> 低嶺頭類型과 관계 있는 寺龍口越窯址 南宋初期層位와 郊壇下官窯址에서도 I·II型的 매병이 모두 출토되었다.<sup>46</sup> 郊壇下官窯에서 출토된 II型的 매병은 초기단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老虎洞窯에서는 오직 I型 매병만 출토되었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것들은 모두 초기단계의 瓷片堆積坑으로 알려진 H3과 H2에서 출토되었다圖18.<sup>47</sup> 이러한 현상은 汝窯에서 郊壇下官窯로 이어지는 시기에 I型和 더불어 지속적으로 생산되던 II型 매병이 郊壇下官窯 초기단계 이후에서 老虎洞窯 초기단계에 이르는 시기의 어느 때에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表2 이러한 점 역시 郊壇下官窯의 설립시기가 老虎洞窯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웅변한다.

이상의 논의에 큰 무리가 없다면, 老虎洞窯가 처음 설립된 남송관요라는 주장은, 적어도 조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립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郊壇下官窯가 최초의 남송관요라는 주장도, 『坦齋筆衡』에 보이는 남송관요 관련 기록의 사료적

45 |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寶豐清涼寺汝窯』, 大象出版社, 2008, p.87.

46 |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 文物出版社, 2002, pp.191-192, 中國社會科學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市園林文物局 編, 『南宋官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p.37.

47 | 杜正賢 主編, 『杭州老虎洞窯址瓷器精選』, 文物出版社, 2002, pp.41-48.

表2 各窯址 梅瓶의 출토현황

窯址 類型	清凉寺汝窯址	低嶺頭類型窯址 (寺龍口窯址 南宋層 포함)	郊壇下官窯址	老虎洞窯址
I 型	○	○	○	○
II 型	○	○	○	×

○ : 出土, × : 未出土. II 型이 I 型에 비해 일찍 소멸됨.

가치를 부정할 수 없는 한, 성립될 수 없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우리는 老虎洞窯와 郊壇下官窯에 앞서 또 다른 남송관요가 있었다고 보아야만 한다. 그것이 최초의 남송관요가 되는 셈이다.

『坦齋筆衡』에 따르면, 남송시기의 관요는 修內司官窯와 郊壇下官窯의 二元的 官窯體制로 운영되었다. 이 가운데 郊壇下官窯가 설립된 이후 줄곧 烏龜山麓에서 窯業을 계속하였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나 문헌기록상을 이미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郊壇下官窯址 이외에 확인되는 南宋官窯址는 모두 修內司官窯址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老虎洞窯址도 그러한 여러 修內司官窯址 가운데 하나였던 셈이다.<sup>48)</sup>

그러면 老虎洞修內司官窯에 앞서는 최초의 修內司官窯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이 의문을 푸는 것이 우리의 다음 과제이다. 이를 통하여, 남송전기 관요의 면모가

48) 複数の 修內司官窯址 문제와 관련하여, 과연 몇 곳의 修內司官窯址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米內山庸夫가 주목할 만한 견해를 제출한 바가 있다. 즉 그는 2-3년 간의 조사를 거쳐 南宋皇城址와 鳳凰山麓, 그리고 靑平山附近에서 총 5곳의 修內司官窯址를 찾았다고 보고하였다(米內山庸夫, 『南宋官窯の研究(中間報告)』 11 南宋官窯の窯址, 『日本美術工藝』 174, 日本美術工藝社, 1953, pp. 22-24). 그의 보고에 따르면, 第1窯址는 南宋皇城址에, 第2窯址는 鳳凰山の 동쪽 산록에, 第3窯址와 第4窯址는 九華山 동쪽 산록에 있는 地藏殿 주위에, 第5窯址는 靑平山麓에 있는데, 모두 窯廢棄物과 窯具들이 출토되어 窯址임이 거의 분명하다. 그가 指目한 5곳의 窯址 가운데 第3窯址·第4窯址·第5窯址가 있던 곳은 이미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窯址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第1窯址와 第2窯址의 경우도, 필자가 몇 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 5곳의 窯址가 과연 修內司官窯址였는지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第1窯址와 第2窯址가 위치한 곳은 南宋皇城內에 해당한다. 당시 皇城內에 窯를 설치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아마도 그것들은 남송이 멸망한 이후, 즉 元代 이후의 窯址였을 것이다. 그리고 第3窯址와 第4窯址가 있던 곳에는, 米內山庸夫도 인정한 바와 같이, 修內司官窯址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修內司官窯址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것들도 元代 이후의 窯址였을 공산이 크다. 南宋修內司官窯址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지 第5窯址뿐이라고 판단된다. 이 주위에는 남송시기의 提舉修內司와 修內司批役等指揮廳이 있었다. 그러나 이 窯址도 元代 이후의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南宋修內司官窯址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급한 일이다. 필자는 米內山庸夫가 발견한 窯址는 南宋修內司官窯址보다는 오히려 元代 이후의 哥窯와 관련하여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 別篇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더욱 생생하게 드러나고, 아울러 老虎洞窯에 앞서 최초의 修內司官窯가 있었다는 점도 더욱 분명해지리라 믿는다.

## 3

최초의 修內司官窯는 어디에 있었는가?

南宋前期의 관요에 관한 한,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아울러 가장 사료적 신빙성이 높은 문헌으로 평가 되는 『坦齋筆衡』은 남송관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宋이 南遷한 후, 邵成章이 提舉後苑이 되어, 邵局으로 칭하였는데, 故京의 遺制를 답습하여, 修內司에 窯를 설치하고, 靑器를 제작하여, 內窯라고 名하였다. 잘 수 비한 흙으로 成形하여 극히 精緻하고, 釉色이 瑩徹하여,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다. 후에 郊壇下에 별도로 新窯를 세웠는데, 舊窯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다. 그 밖에 烏泥窯·餘杭窯·續窯 같은 것들은 모두 官窯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혹 옛 越窯를 일컫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sup>48)</sup>

위 기록은 “內窯”의 설립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이 “內窯”가 바로 최초의 修內司官窯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각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修內司에 窯를 설치하고(置窯于修內司)”라는 대목이다. 이 대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

48) [元]陶宗儀撰, 『南村輟耕錄』, 卷29 窯器條, 元明史料筆記叢刊本, 中華書局, 1959, p363.

50) “修內司에 窯를 설치하고(置窯于修內司)”라는 句節의 구체적 내용에는 많은 견해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修內司의 轄下에 內窯를 設置하였다는 의미라는 견해. 이 경우 內窯는 특정한 窯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窯와 陶工 등까지를 포함한, 修內司가 管轄하는 轄下機構를 의미한다. 둘째, 地理的 개념으로서의 修內司(提舉修內司) 管內에 內窯를 建立하였다는 의미라는 견해. 셋째, 地理的 개념으로서의 修內司 附近에 內窯를 建立하였다는 의미라는 견해. 넷째, 地理的 개념으로서의 修內司管內에 內窯를 建立하였다는 의미라는 견해. 이 가운데 첫째 견해는 지금까지도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 가운데 하나이다. 아마도 修內司官窯와 修內司를 쉽게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러나 이 견해는 『坦齋筆衡』의 내용에 배치된다고 판단된다. 『坦齋筆衡』에 따르면, 內窯를 건립한 주체는 後苑(邵局)이었다. 後苑은 高廷生活需要와 皇族의 결혼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관장하고 있던 관부였다. 반면 修內司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皇城의 건축과 관련된 일들을 관장하고 있던 관부였다. 그러므로 內窯를 관할한 官府는 의당 修內司가 아니라 後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張東·施遠과 鄭建華가 자세히 검토한 바가 있다(施遠·張東, 『宋代汝·官窯若干問題的研究』, 『上海博物館集刊』, 第8期, 上海書畫出版社, 2000, pp.354—355, 鄭建華, 『關於修內司官窯問題的思考』,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p.57-59). 한편, 內窯(修內司官窯)를 설립할 당시 修內司(提舉修內司)는 皇城內에

인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修內司營內에 寮를 설치하고”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된다.<sup>51)</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修內司官寮를 처음 설치할 당시 문제의 修內司營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곧 최초의 修內司官寮의 위치를 밝히는 지름길이 되는 셈이다.

乾道 5년(1169)에 편찬된 『乾道臨安志』에는 남송초기의 修內司營과 그것의 直屬上級官府인 修內司의 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 | 修內司壯役等指揮營은 萬松嶺下에 있다.<sup>51)</sup>

▲B | 入內侍省……修內司……御酒庫는 모두 禁中에 있다.<sup>52)</sup>

위 기록에 따르면, 『乾道臨安志』가 편찬된 乾道 5년(1169) 당시 修內司는 皇城 내에 있었으며(B), 그 隸下에는 한 개의 軍營이 있었는데, 그것이 “萬松嶺下”에 있던 修內司壯役等指揮營이었다(A). 이 修內司壯役等指揮營이 곧 문제의 修內司營이다. 결국 최초의 修內司官寮는 “萬松嶺下”에 있던 修內司壯役等指揮營의 營內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있었다. 둘째 견해에 따르면, 皇城內에 寮場을 설치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인데, 이는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 점에서 둘째 견해도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견해 역시 둘째 견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이유로 성립되기 어렵다. 단, 문제의 대목을 “修內司營 주변에 內寮를 설치하고”로 해석할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內寮가 설치된 남송건기에 修內司營(修內司壯役等指揮營)은 황성 밖의 “萬松嶺下”에 있었기 때문이다(宋周濂 撰, 『乾道臨安志』 卷1 軍營條, 清光緒七年 『武林掌故叢編』 第一集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3220). 그러나, 필자가 濶闊한 뜻인지는 모르지만, 특정한 건축물이 그 부근을 가리키는 지리적 개념으로 쓰인 경우는 많지만(예컨대 望江門이 望江門 일대를 가리키는 지리적 개념으로 쓰이는 것처럼), 특정한 官府나 機構가 그 부근을 포함한 장소를 표시한 개념으로 쓰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修內司營”은 修內司營內을 가리키는 개념일 뿐, 그 주위까지를 포함한 지리적 개념으로 쓰인 경우가 없다는 뜻이다. 앞의 세 견해와 달리, 넷째 견해는 별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修內司營은 修內司의 隸下機構이므로 그곳에 內寮를 설치한 것을 두고 修內司에 內寮를 설치하였다고 말하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修內司에 寮를 설치하고(置寮于修內司)”라는 句節의 구체적인 내용은 地理的 개념으로서의 修內司營內에 內寮를 建立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1) [宋]周濂 撰, 『乾道臨安志』 卷1 軍營條, 清光緒七年 『武林掌故叢編』 第一集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3220. 단, 이 版本에는 “營”자가 缺落되어 있는데, 이는 작오임이 분명하므로 바로 잡았다.

52) [宋]周濂 撰, 『乾道臨安志』 卷1 內諸司條, 清光緒七年 『武林掌故叢編』 第一集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3218.



그렇지만 “萬松嶺下”라는 말 자체가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고, 아울러 비교적 넓은 지리적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의 『乾道臨安志』의 기록만 가지고, 修內司壯役等指揮營의 營內에 있던 최초의 修內司官廳의 위치를 더 이상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萬松嶺一帶와 修內司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萬松嶺과 그 주위는 남송시기 전 기간에 걸쳐 修內司와 깊은 관련이 있던 지역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송초기 修內司의 유일한 軍營인 修內司壯役等指揮營이 이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송후기의 提舉修內司와 두 修內司營이 이곳에 駐扎하였다.

〔A〕 提舉修內司는 孝仁坊內의 靑平山入口에 있다.<sup>53</sup>

〔B〕 修內司營은 孝仁坊內의 石橋頭, 萬松嶺, 鐵冶嶺, 權貨務의 동쪽에 있다.<sup>54</sup>

즉, 咸淳 4년(1268)에 편찬된 『咸淳臨安志』의 기록에 의하면, 남송후기에 提舉修內司는 萬松嶺에 인접한 孝仁坊內의 靑平山入口에 있었으며(A), 네 곳의 修內司營 가운데 두 곳이 각각 萬松嶺과 그에 인접한 孝仁坊內의 石橋頭에 駐扎하고 있었다(B). 즉 남송초기에 황성 내에 있던 提舉修內司—『乾道臨安志』에 보이는 “修內司”—가 그 후 언제인가 萬松嶺 부근으로 이전하였으며, 增置된 修內司營 가운데 일부가 이곳에 駐扎하고 있었던 것이다. 萬松嶺과 그 주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修內司와

53) [宋]潛說友撰, 『咸淳臨安志』卷10 提舉修內司條, 清道光十年錢塘王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第4冊, 中華書局, 1990, p.3441.

54) [宋]潛說友撰, 『咸淳臨安志』卷14 修內司營條, 清道光十年錢塘王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第4冊, 中華書局, 1990, p.3492.

55) 『咸淳臨安志』에는 당시 都城과 관련된 비교적 상세한 두 개의 地圖가 첨부되어 있다. 『皇城圖』와 『京城圖』가 그것이다. 두 지도 모두에 萬松嶺 부근에 있던 두 修內司營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두 修內司營의 위치가 지도에 따라 약간 다르게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皇城圖』에는 두 修內司營이 각각 萬松嶺의 남쪽과 동쪽의 인접한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데 반해서, 『京城圖』에는 모두 萬松嶺의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京城圖』 상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都城의 남쪽에 치우쳐 있던 황성 지역이 삼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황성을 남북 방향으로 크게 縮約하여 그려놓은 것이다. 별도의 『皇城圖』가 있으므로, 굳이 『京城圖』에서 황성을 자세히 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황성의 동쪽과 서쪽 지역과 그 주위에도 영향을 미쳐, 황성의 서북쪽에 인접한 萬松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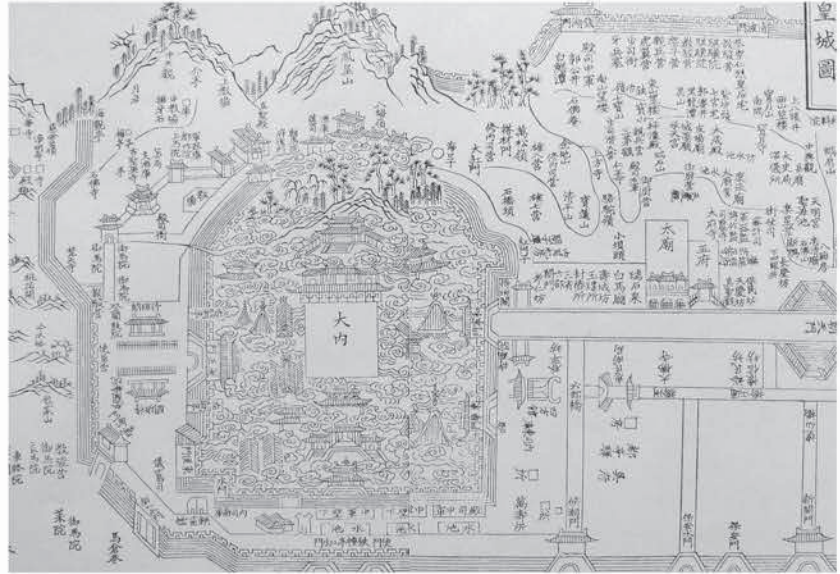


圖19 「咸淳臨安志」 소재 「皇城圖」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은 이 세 곳뿐이다. 그러므로 남송초기 修內司壯役等指揮營의 구체적인 위치는 이 세 곳, 즉 남송후기의 提學修內司와 두 修內司營이 각각 駐扎하고 있던 세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 최초의 修內司官窯도 이 세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咸淳臨安志』에 첨부되어 있는 「皇城圖」에 따르면<sup>56)</sup>, 문제의 두 修內司營은

부근도 「京城圖」 상에서 남북방향으로 크게 縮約되어 있다. 그 결과 이곳에 있던 地名이나 官府名·軍營名 등을 표시할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皇城圖」에는 기재되어 있던 雄七營·雄八營·石橋頭·搭材門·大紅門 등은 아예 표시조차 못하였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萬松嶺 부근에 있던 修內司營의 위치에 관한 한, 「京城圖」보다 「皇城圖」가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본래 萬松嶺의 남쪽에 위치한 한 修內司營을, 표시할 공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方便으로 萬松嶺의 동쪽 인접한 위치에 표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된다.

56) 『咸淳臨安志』의 「皇城圖」를 보면, 萬松嶺 주변의 두 修內司營은 각각 萬松嶺의 남쪽과 동쪽 인접한 곳에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孝仁坊內의 石橋頭는 두 修內司營의 동쪽 중간 지점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皇城圖」만 보아서는 『咸淳臨安志』 卷14 修內司營條에 “萬松嶺”과 “孝仁坊內의 石橋頭”에 있다고 한 두 修內司營이 각각 「皇城圖」상의 어느 修內司營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萬松嶺 남쪽의 修內司營이 위치한 곳은 오늘날의 九華山에서 鳳凰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그 주위의 좁은 계곡에 해당한다. 이곳에 남송시기 대표적인 인구밀집 지역 가운데 하나인 孝仁坊이 있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萬松嶺”에 있다고 한 修內司營이 이 修內司營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 자연이 “孝仁坊內의 石橋頭”에 있다고 한 修內司營은 萬松嶺으로 오르는 初入에 있던 萬松嶺 동편의 修內司營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각각 萬松嶺의 남쪽과 동쪽 인접한 곳에 위치하였다.<sup>57</sup> 『咸淳臨安志』卷14 修內司營條에서 “萬松嶺”에 있다고 한 修內司營은 前者를, “孝仁坊內의 石橋頭”에 있다고 한 修內司營은 後者를 가리킨다고 판단된다.<sup>58</sup> 그리고 비록 「皇城圖」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提舉修內司도, 靑平山入口에 있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萬松嶺의 동쪽 인접한 곳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萬松嶺 남쪽의 修內司營이 위치한 곳은 오늘날의 九華山에서 鳳凰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그 주위에 해당 하는데, 이곳은 萬松嶺보다도 高度가 높은 지역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을 “萬松嶺下”라고 일컬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시 “萬松嶺下”는 萬松嶺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萬松嶺으로 오르는 동쪽과 서쪽의 비교적 高度가 낮은 初入과 그 주위를 일컫는 지리적 위치개념이었다.<sup>59</sup> 그러므로 萬松嶺에 비해 高度가 상대적으로 높은 萬松嶺의 남쪽과 북쪽 지역은 애초부터 “萬松嶺下”로 불릴 수 없는 곳이었다. 이에 반해, 또 하나의 修內司營이 위치한 “孝仁坊內의 石橋頭”와 提舉修內司가 위치한 “孝仁坊內의 靑平山入口”는 萬松嶺으로 올라가는 동쪽 初入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모두 “萬松嶺下”로 불려도 무방한 곳이었다. 그렇다면 남송초기 修內司壯役等指揮營과 그 營內에 있던 최초의 修內司官窯의 구체적인 위치는 孝仁坊內의 石橋頭와 같은 坊의 靑平山入口로 압축되는 셈이다.

여기에서 남송초기에 황성 내에 있던 修內司가 그 후 황성 밖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송초기 이후 한정된 면적의 황성 내에 많은 殿闕과 內司들이 增置되면서 修內司는 황성 밖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sup>60</sup>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修內司가 새로 자리 잡은 곳이 “萬松嶺下”의 지리적 범위 안에 있는 “孝仁坊內의 靑平山入口”이라는 점이다(A). 공교롭게도 “萬松嶺下”에는 修內司 隸下의 유일한 軍營인 修內司壯役等指揮營이 이미 駐扎하고 있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하여 생각하면, 황성으로부터 나온 修內司는 修內司壯役等指揮營에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바꾸어 말하면, 修內司壯役等指揮營이 駐扎한 “萬松嶺下”의 구체적인 지점은 후에 提舉修內司가 자리 잡은

57) 『咸淳臨安志』에서 萬松嶺의 서쪽 初入에 인접해 있던 郭公井을 “萬松嶺下”에 있다고 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宋)周說友撰, 『咸淳臨安志』卷37 郭公井條,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第4冊, 中華書局, 1990, p.3687).

58) 『乾道臨安志』가 편찬된 乾道 5년(1169) 이후에, 御驛院?御馬院 등이 修內司와 마찬가지로 황성 밖으로 이전하고, 御膳所·御服所·祗候庫·道場庫 등이 황성 내에 설립되었다(宋)周說友撰, 『乾道臨安志』卷1 內諸司條, 清光緒七年「武林掌故叢編」第一集本, 『宋元方志叢刊』第4冊, 中華書局, 1990, p.3218, (宋)周說友撰, 『咸淳臨安志』卷10 內諸司條,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第4冊, 中華書局, 1990, p.3440-3442).



圖20 靑平山 주위에서 채집한 南宋時期 瓷器片들

“孝仁坊内の靑平山入口”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한편, 남송관요는 浙江 지역의 전통적인 窯爐構造인 龍窯를 택하였는데, 龍窯는 15° 정도의 경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기슭이나 낮은 구릉에 설치되었다. 남송 시기의 문헌기록에 따르면, 靑平山은 孝仁坊에 있던 유일한 산이었다. “靑平山入口”는 말 그대로 靑平山으로 오르는 初入, 즉 靑平山 기슭을 가리킨다. 한편, 孝仁坊의 石橋頭에 龍窯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구릉이나 산기슭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만약, 그러한 산기슭이나 구릉이 없었다면 이곳에 龍窯가 있었을 리가 없고, 그 반대로, 있었다면, 이는 곧 石橋頭 역시 靑平山 기슭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아도 최초의 修內司官窯가 孝仁坊의 靑平山 기슭에 있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오늘날의 杭州卷煙廠의 서편에는 능선이 남북 방향으로 이어진 야트막한 산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산줄기는 吳山 줄기의 남쪽 끝에 해당하는데, 이 산줄기의 북쪽 부분이 寶蓮山이고, 남쪽 부분이 바로 靑平山으로 추정된다. 이 산의 주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밭으로 開墾되거나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산의 능선부에서도 남송시기의 龍泉窯를 비롯한 많은 窯口의 瓷器片들이 발견된다<sup>20</sup>. 이 점으로 미루어, 이미 남송시기에 靑平山의 기슭뿐만 아니라 능선부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이 주위에 성벽이 축조되고 근래에는 杭州卷煙廠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 남송시기의 관요는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다. 아마도 최초의 修內司官窯址는 남송시기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최초 修內司官窯의 구체적인 고고학적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런데 1997년 杭州卷煙廠 敷地에서 대량의 南宋官窯型瓷器片들과 窯具들이 출토되었다. 이곳은 1930년대에 米內山庸夫가 많은 窯跡遺品들을 수습하고 修內司官窯址의 하나로 지목한 곳이다.<sup>59</sup> 이 유물들의 대부분이 유물시장을 통하여 밖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특성과 성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杭州文物考古所에 소장되어 있는 그 일부를 필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釉色은 전반적으로 粉青色 계열이고, 米黃色을 띤 것도 섞여 있으며, 釉層의 두께는 비교적 두꺼운 것과 얇은 것의 두 종류가 있다. 胎土는 비교적 치밀하고, 灰黑色을 띤 것과 灰白色을 띤 것 등이 있다. 어느 연구자는 이 유물들이 老虎洞窯址에서 溪流에 의해 쓸려 내려왔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지만,<sup>60</sup> 그 溪流는 유물이 출토된 곳으로부터 남쪽으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으로 흘렀을 뿐만 아니라,<sup>61</sup> 문제의 유물이 출토된 지점과 老虎洞窯址는 약 1km 가량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어서 그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老虎洞窯址에서 杭州卷煙廠에 이르는 사이의 溪谷에서 南宋官窯瓷器片은 물론이고 匣鉢片이나 窯具들마저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더욱 뒷받침해준다. 이 유물들 역시, 출토된 지점이 靑平山 기슭에 인접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초의 修內司官窯址에서 流出된 것들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이 후대에 南宋官窯瓷器를 倣製한 것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출토품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후 이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59) 米內山庸夫, 「南宋官窯の研究(中間報告) 11 南宋官窯의窯跡」, 『日本美術工藝』 174, 日本美術工藝社, 1953, p. 23.

60) 鄭建華, 「關於修內司官窯問題的思考」,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 60.

61) 米內山庸夫, 「南宋官窯址의發見」, 『世界陶磁全集』 10, 河出書房, 1956, p. 278의 Fig. 227. 南宋官窯古窯址圖(米內山庸夫 作圖) 참조.

## 4

老虎洞修內司官窯의  
成立과  
그 背景

老虎洞窯址의 전면발굴이 이루어지고 난 후, 『坦齋筆衡』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남송시기에 修內司官窯와 郊壇下官窯의 두 계열의 관요가 있었으며, 老虎洞窯가 修內司官窯라는 점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바가 되었다. 그렇지만 앞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老虎洞窯가 修內司官窯라는 점은 의심할 바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남송시기의 유일한 修內司官窯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修內司官窯도 아니었다. 老虎洞窯, 즉 老虎洞修內司官窯는 郊壇下官窯보다도 오히려 늦은 시기에 설립되었다. 그러면 老虎洞修內司官窯는 최초의 修內司官窯, 즉 靑平山 기슭의 修內司官窯(이후 靑平山修內司官窯로 略稱한다)와 어떠한 관계였을까? 그리고 老虎洞修內司官窯는 언제 설립되었으며, 설립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들이 이 장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老虎洞修內司官窯는 鳳凰山과 九華山 사이의 좁고 비교적 가파른 계곡 서쪽 끝 부분의 외지고 좁은 盆地에 자리 잡고 있다<sup>21</sup>. 이곳은 萬松嶺의 남쪽 인접 지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咸淳臨安志』에 첨부되어 있는 「皇城圖」를 보면, 萬松嶺의 남쪽 인접 지역에 한 “修內司營”이 표시되어 있다. 修內司官窯가 修內司營內에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老虎洞修內司官窯는, 이 窯址의 지리적 위치와 「皇城圖」의 내용을 비교·검토해 보면, 萬松嶺 남쪽의 修內司營內에 설치되었음이 분명하다.



圖21 老虎洞窯址 全景

앞서의 논의를 통하여 볼 때, 老虎洞修內司官窯은 郊壇下官窯보다 늦은 시기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郊壇下官窯보다 앞선 시기에 최초의 남송관요, 즉 靑平山修內司官窯가 설립되었다. 靑平山修內司官窯, 郊壇下官窯, 老虎洞修內司官窯의 순서로 설립된 것이다. 老虎洞修內司官窯가 설치된 이후에도 郊壇下官窯가 修內司官窯와 並列적으로 운영되었음은 문헌기록이나 고고학적으로 이미 확인되었다. 문제는 靑平山修內司官窯의 方向이다. 老虎洞修內司官窯의 설립과 함께 소멸되었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했거나 했을 터인데, 이 시기의 靑平山修內司官窯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기록이나 고고학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향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前者의 경우였다면, 결국 靑平山의 修內司官窯가 老虎洞으로 移轉하였음을 의미하며, 후자의 경우였다면, 이 시기에는 靑平山修內司官窯에 더하여 老虎洞修內司官窯를 增置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坦齋筆衡』은 남송전기에서 단지 郊壇下官窯의 增置만을 전할 따름이다. 남송관요와 관련된 『坦齋筆衡』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老虎洞修內司官窯의 設立이 修內司官窯의 增置를 의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요컨대 이 시기에 靑平山에 있던 修內司官窯가 老虎洞으로 移轉하였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왜 靑平山修內司官窯를 버리고 새롭게 老虎洞修內司官窯를 설립하게 된 것일까?

老虎洞修內司官窯의 설립에 앞서서, 靑平山修內司官窯와 별도로 郊壇下官窯를 설립한 것은 皇室 所用 官窯窯器의 생산을 늘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각을 老虎洞修內司官窯의 설립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무엇보다도 老虎洞修內司官窯가 자리 잡은 곳은 窯를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高度가 높을 뿐만 아니라 敷地가 대단히 협소하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생산량의 증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면, 이러한 장소에 窯를 설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는 靑平山修內司官窯의 소멸과 결부지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窯業은 窯石을 채취하고 땀고 수비하는 일로부터 가마에 불을 지피는 일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工程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工程을 수행할 비교적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먼지와 연기가 나고, 아울러 화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외진 곳에 자리 잡게 마련이었다. 최초의 修內司官窯를 靑平山 기슭에 설립할 때도 이러한 면들을 고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紹興末年 경부터 이 주위에 많은 官府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乾道 5년(1169) 이후에는 靑平山修內司官窯가 설치된 修內司官窯의 直屬上級官府인 修內司도 이곳으로 옮겨 자리 잡았다. 修內司官窯의 이전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圖22 老虎洞窯 原料 採取坑

한편, 2000년 6월 老虎洞窯址 남측 산기슭(T31)의 南宋地層에서 方形的 石製 境界碑가 발견되었는데, 碑面에는 楷書로 “邵衙界”라고 음각되어 있다.<sup>62</sup> “邵”는 姓을 가리키고, “衙”는 官衙를 의미하며, “界”는 말 그대로 境界를 뜻한다. 그러므로 “邵衙界”는 “邵衙”라고 불리는 官衙의 境界라는 뜻이 될 것이고, 이 境界碑는 이 구역이 “邵衙”의 영역임을 밝히기 위하여 세운 것이 된다. 南宋시기에 “邵”라는 姓을 따서 칭한 官衙는, 高宗代(1127~1162)에 활약한 邵諤의 姓을 딴 “邵局” 밖에는 없다. 邵局은 “後苑”의 別稱이었으며,<sup>63</sup> 邵諤은 後苑의 最高 책임자를 歷任하였다.<sup>64</sup> 말하자면 老虎洞修內司官窯가 자리 잡은 곳은 본래 後苑의 영역이었던 셈이다. 後苑의 最高 관부인 提舉後苑은 南宋시기 내내 皇城 내에 있었으므로, 이곳은 後苑 隸下의 한 作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 後苑이 修內司官窯를 設立하고 운영한 實체적인 주체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비교적 외진 이곳은 南宋官窯瓷器의 생산에

62) 唐俊杰, 「關於杭州老虎洞南宋窯址性質的探討」,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大學出版社, 2004, p.22.

63) 邵局과 後苑의 關係에 對해서는, 鄭建華, 「關於修內司官窯問題的思考」,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51 참조.

64) [元陶宗儀撰, 『南村輟耕錄』 卷29 窯器條, 元明史料筆記叢刊本, 中華書局, 1959, pp.362-363, 李民舉, 『宋官窯論稿』, 『文物』 1994年 第8期, 文物出版社, p.49.



소용된 瓷土와 紫金土가 풍부한 곳이었다.<sup>65</sup> 지금도 老虎洞窯址의 남서쪽 귀퉁이에는 당시 瓷土와 紫金土가 혼합된 원료를 채취한 구덩이가 남아 있다.<sup>66</sup> 靑平山을 떠난 修內司官窯가 老虎洞에 자리 잡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점들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修內司官窯가 老虎洞으로 이전함에 따라 靑平山修內司官窯에서 官窯瓷器를 제작하던 後苑 소속의 陶工들과, 雜役을 제공했을 修內司의 兵士들도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을 것이다. 修內司 소속 兵士들의 軍營인 修內司營도 당연히 老虎洞에 새로운 駐扎地를 마련하였을 것이다. 萬松嶺 남쪽에 인접한 修內司營이 그것이다. 결국 靑平山修內司官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老虎洞修內司官窯도 修內司營內에 자리 잡은 셈이다. 이렇게 하여 老虎洞修內司官窯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老虎洞修內司官窯의 설립시기와 관련해서는 일단 萬松嶺 남쪽에 修內司營을 설치한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앞서의 논의에 따르면 老虎洞修內司官窯의 설립과 새로운 修內司營의 설치는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老虎洞修內司官窯의 설립은 『乾道臨安志』가 편찬된 乾道 5년(1169) 이후의 일이 된다. 이때까지도 修內司營은 靑平山 기슭에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老虎洞修內司官窯가 대체로 121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막을 내렸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別稿에서 언급하였다.<sup>67</sup> 이러한 점들과 아울러 老虎洞修內司官窯가 일정 기간 窯業을 지속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老虎洞修內司官窯의 설립시기는 일단 12세기 4/4분기를 전후한 시기의 범위 안에 있었을 공산이 크다. 여기에서 이 시기의窯들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외진 곳에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淳熙) 7년 守臣 吳淵이 말하기를, “萬松嶺 양쪽의 古渠를 權勢家와 百司의 公吏들이 집을 지어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하였다.<sup>67</sup>

65) 周少華 等, 「杭州老虎洞窯青瓷原料的研究」,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大學出版社, 2004, pp.197-198.

66) 李喜寬, 「有關南宋後期官窯的幾個問題」, 『故宮博物院院刊』2009年 3期, 紫雲閣出版社, pp.20-21.

67) 元脫脫 等 撰, 『宋史』卷97 河渠志 河渠7 東南諸水(下) 臨安運河, 中華書局標點本, 中華書局, 1977, p.2400.

紹興末年 경부터 靑平山修內司官窯의 주위에 많은 官府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淳熙 7년(1180)경에는 權勢家와 官吏들이 萬松嶺 양쪽의 古渠마저 침범하여 집을 짓는 형편이 된 것이다. 이는 이 시기에 이미 靑平山 기슭을 포함한 萬松嶺 일대가 有力者들의 居住地로 각광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가 남송말기까지 이어져 『咸淳臨安志』는 당시 萬松嶺의 모습을 “第宅과 民居들이 높고 낮게 물고기 비늘과 빗살처럼 뻐뻐하게 들어차 있다(第宅民居, 高高下下, 鱗次櫛比)”고 표현하였다.<sup>68)</sup> 淳熙 7년(1180)경에 靑平山修內司官窯가 있던 靑平山 기슭은 주위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한적한 곳이 아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靑平山修內司官窯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老虎洞修內司官窯의 시대가 새롭게 막을 올린 것은 대체로 淳熙 연간(1174~1189)의 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餘言

최초의 남송관요는 靑平山 기슭에 설립된 靑平山修內司官窯이고, 이것이 淳熙 연간(1174~1189)에 老虎洞으로 移轉하여 老虎洞修內司官窯가 되었다는 것이 본고의 대체적인 줄거리이다. 여기에 남송후기인 121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老虎洞修內司官窯가 다시 望江門內的 金釵袋巷으로 移轉하였다는 前考의 주장을 덧붙이면,<sup>69)</sup> 결국 남송 修內司官窯는 靑平山修內司官窯→老虎洞修內司官窯→金釵袋巷修內司官窯의 변천과정을 밝힌 셈이 된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생각해온 것처럼 남송관요가 修內司官窯와 郊壇下官窯로 구성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한 축을 구성한 修內司官窯가 그다지 간단치 않은 전개과정을 밟았음을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이다.

몇 년 전에 필자는 杭州에 가서 남송관요지를 조사하면서 몇몇 연구자들과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의 주요 화제는 남송관요였는데, 특히 1990년대 이래 杭州의 여러 곳에서 출토된 南宋官窯型瓷器片들과 窯具들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老虎洞窯를 修內司官窯로 인식하고 있던 다수의 연구자들은 그것들이 老虎洞窯址나 郊壇下窯址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소수의 연구자가 거기에

68) (宋)潘說友撰, 『咸淳臨安志』卷28 萬松嶺條, 清道光十年魏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第4冊, 中華書局, 1990, p.3625.

69) 李喜寬, 「有關南宋後期官窯的幾個問題」, 『故宮博物院院刊』2009年 3期, 紫雲閣出版社, pp.20-21.

반대하여 修內司官窯가 老虎洞이 아닌 다른 곳, 예컨대 근래 南宋官窯型瓷器片들과 窯具들이 출토된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남송관요를 둘러싼 이러한 의견의 대립은 紙面上에서의 논쟁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당시 필자에게 매우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달랐지만, 한결같이 修內司官窯는 어느 한 곳에 있었음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한국도자사를 연구한 바 있는 필자에게는 커다란 의문이었다. 高麗·朝鮮時代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窯場을 옮긴 사례를 흔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朝鮮時代 中期의 官窯(分院)는 약 10년을 주기로 窯場을 옮기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sup>70)</sup> 이때부터 南宋官窯 窯場의 移轉 문제는 남송관요의 연구와 관련하여 필자의 최대의 話頭로 자리 잡았다.

본고는 그 話頭에 대한 조그만 성과물인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예컨대, 修內司官窯의 설립시기문제, 설립과정문제, 운영체제문제 등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훗날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70) 尹龍二, 「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研究」, 『韓國陶瓷史研究』, 文藝出版社, 1993, pp. 437-440.

---

강지침자 박을환 숭실대학교 디자인자료집

---

南宋前期의 官窯에 대한 새로운 理解

---



한글서체

「中文」

# 南宋前期官窑新探

李喜宽 | 西江大学讲师

## 1

## 提出问题

1998年5月至12月和1999年10月至2001年3月,杭州文物考古所进行了对老虎洞窑址的大规模全面发掘。学者大多认为,老虎洞窑址的宋代地层是南宋修内司官窑址,老虎洞窑址的发掘给南宋时期文献中提到的修内司官窑提供了考古学的依据。他们认为这就是这两次发掘的巨大意义所在。<sup>1</sup>

据《坦斋笔衡》的记载,<sup>2</sup>南宋时期在修内司建立了“内窑”之后,在郊坛下又建立了“新窑”。<sup>3</sup>老虎洞窑址发掘以后,大家对此几乎未有异议。我们通常把前者称为修内司官窑,而把后者称为郊坛下官窑,根据这一文献记载可知,修内司官窑是最初设立的南宋官窑。因此,认为老虎洞窑址<sup>4</sup>是修内司官窑址的研究者主张,老虎洞窑址就是最初南宋官窑址。那么,最初南宋官窑确实建立在老虎洞吗?本文将以此一疑问为起点进行研究。

目前,对于南宋时期修内司官窑与郊坛下官窑一直在两个不同的地点经营窑业这一观点,大部分研究者没有提出过质疑。由于文献以及考古学都已经证实郊坛下官窑位于乌龟山脚,<sup>5</sup>研究者一般认为老虎洞窑址就是修内司官窑址,这也是极其自然的现象。

但是,早在20世纪50年代,有人曾经提出修内司官窑址可能不是在一个地点,而是在几个地点。<sup>6</sup>其实,近期在杭州几个地方,如中河路高架桥(南星桥段)、杭州卷烟厂以及梅花碑等地,出土了不少南宋官窑型瓷器片,因此不能排除这些地方也曾经有过南宋官窑的可能性。<sup>7</sup>此外,从文献记载看,望江门内金钗袋巷一带也很可能有过南宋后期的官窑。<sup>8</sup>基于这些情况,我认为,对于南宋官窑以往研究的前提,即南宋时期修内司官窑与郊坛下官窑一直在两个不同的地点经营窑业的观点,有必要重新审议。最初南宋官窑是否建立在老虎洞,这一问题不仅关系到老虎洞窑,还关系到南宋官窑

1 | 秦大树:《杭州老虎洞窑址考古发现专家论证会纪要》,《文物》2001年第8期,文物出版社,第94—95页。

2 | 笔者计划接下来深入研究有关《坦斋笔衡》的内容与史料价值等问题。

3 | 陶宗仪撰:《南村辍耕录》卷29《窑器》,元明史料笔记丛刊本,中华书局,1959年,第362—363页。

4 | 下文中没有“宋代层”或者“元代层”的区分,只说老虎洞窑或者老虎洞窑址。这都是指老虎洞窑或者老虎洞窑址的宋代层。

5 | 陶宗仪撰:《南村辍耕录》卷29《窑器》,元明史料笔记丛刊本,中华书局,1959年,第362—363页; [宋]潜说友撰:《咸淳临安志》卷10《窑器考》,清道光十年钱塘汪氏振翰堂刊本,《宋元方志丛刊》第4册,中华书局,1990年,第3441页;浙江省博物馆:《三十年来浙江文物考古工作》,《文物考古工作三十年》,文物出版社,1979年,第223页;中国社会科学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园林文物局编:《南宋官窑》,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96年。

6 | 米内山庸夫:《南宋官窑の研究(中间报告)11,南宋官窑の窑迹》,《日本美术工艺》总第174号,日本美术工艺社,1953年,第22—24页。

7 | 刘毅:《“凤凰山窑”的发现及相关问题研究》,《南方文物》1999年第2期,南方文物杂志社,第69页;吴焜奎:《图说中国陶瓷史》,浙江教育出版社,2001年,第112页;张玉兰:《关于老虎洞窑的几个问题》,《东方博物》第14辑,浙江大学出版社,2005年,第99页。

8 | 武佩圣:《对南宋官窑的怀旧与瞻望》,《南宋官窑与哥窑——杭州南宋官窑老虎洞窑址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浙江大学出版社,2004年,第30—31页;李肖霓:《有关南宋后期官窑的几个问题》,《故宫博物院院刊》2009年3期,紫禁城出版社,第11-16页。

整体结构的关键性问题。

在此观点上，本文将对南宋前期官窑的几个疑点进行重新考察。首先，最初的南宋官窑是否建立在老虎洞？会不会建立在其它地点？其次，假如它不是建立在老虎洞，那么，又会是哪里呢？最后，老虎洞窑建立在何时？建立背景如何？

希望通过此次研究，更清晰地了解南宋官窑的面貌。

## 2

### 老虎洞窑 是南宋最初建 立的官窑吗？

——老虎洞窑址与郊坛  
下官窑址出土器物的造  
型比较

如上所述，老虎洞窑址发掘以后，研究者大多认为老虎洞窑址宋代地层就是最初的南宋官窑遗址。从老虎洞窑所生产的早期器物与郊坛下官窑的早期瓷器在器类、器型、制烧工艺等方面比较来看，如果老虎洞窑的器物具有更早一点的瓷器特征，这一观点应是正确。如果事实并非如此，老虎洞窑就是最初南宋官窑的主张则无法成立。

老虎洞窑与郊坛下官窑的建立时期并不相同，但是两座官窑都是作为烧制御用瓷器的官窑，两者有密切的联系，而且两座官窑的经营时期也是在一段时间内重叠的，<sup>9)</sup>生产器物的造型和制烧工艺也近似。此外，两座窑址出土器物的演变过程并不清晰，所以单纯比较这两座窑址出土的器物，是无法判断哪座官窑的建立年代更早的。在此情况下，我们需要对这两座官窑的器物与北宋末年的清凉寺汝窑、北宋官窑以及南宋早期的低岭头类型器物的比较分析。但是，说到北宋官窑，目前连其窑址也还没有发现，对其生产瓷器的面貌也几乎没有了解，确实无法进行比较。因此，本文只能用清凉寺汝窑和低岭头类型器物与之进行比较。

无可否认，清凉寺汝窑与低岭头类型对南宋官窑的影响极其深远。<sup>10)</sup>老虎洞窑与郊坛下官窑生产的器物中，在造型以及制烧工艺方面，哪一座官窑生产的器物更类似于清凉寺汝窑及低岭头类型器物，这一点应当作为判断哪座官窑的建立年代更早的重要标准。也就是说，在造型以及制烧工艺上，更类似于清凉寺汝窑及低岭头类型的那座官窑的建立年代就应更

9) 杜正贤：《杭州老虎洞窑窑址的考古学研究》，《故宫博物院院刊》2002年第5期，紫禁城出版社；《南宋官窑与哥窑——杭州南宋官窑老虎洞窑址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浙江大学出版社，2004年，第84—85页；王兆亮：《杭州老虎洞窑窑址对研究官、哥窑启示》，《故宫博物院院刊》2002年第5期，紫禁城出版社；《中国古代官窑制度》，紫禁城出版社，2004年，第92—94页；唐俊杰：《南宋郊坛下官窑与老虎洞官窑的比较研究》，《南宋官窑文集》，文物出版社，2004年，第188—196页；陈元甫：《对杭州老虎洞南宋官窑的几点思考》，《南宋官窑与哥窑——杭州南宋官窑老虎洞窑址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浙江大学出版社，2004年，第34—37页。

10) 刘毅：《从汝官窑到郊坛下官窑的传递》，《南宋官窑文集》，文物出版社，2004年；孙新民：《汝窑与老虎洞窑的比较研究》，《南宋官窑与哥窑——杭州南宋官窑老虎洞窑址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浙江大学出版社，2004年；沈岳明：《低岭头类型再认识》，《南宋官窑文集》，文物出版社，2004年。



在造型以及制烧工艺上，更类似于清凉寺汝窑及低岭头类型的那座官窑的建立年代就应更早，这一点无可置疑。在造型和制烧工艺中，本文将对瓷器的造型进行集中考察。<sup>11</sup>

老虎洞窑生产的器物多种多样，有碗、盘、碟、洗、盒、杯、钵、盆、花盆、炉、尊、觚、坛、瓶、壶、罐、器座、器盖、笔山等。每种器物的造型也很丰富，如瓶有梅瓶、纸槌瓶、弦纹瓶、琮式瓶、鹅颈瓶、玉壶春瓶、套瓶、花口瓶，大小也各异。郊坛下官窑生产的瓷器种类与造型大体与老虎洞窑的瓷器相似，但是，仔细观察老虎洞窑址与郊坛下官窑址的出土器物，我们可以发现两者之间也有不少差异。例如，在郊坛下官窑址出土的三足盘、细颈瓶、唾具、莲瓣纹熏炉、花口瓶，这些器物是在老虎洞窑址无法找到的。与此相反，在老虎洞窑址发掘的夹层碗、盏托、套瓶、樽式套炉、笔山等器物，在郊坛下官窑址并未发现。

首先，我们仔细观察一下仅在郊坛下官窑址出土而在老虎洞窑址没出土的器物。

**三足盘：**郊坛下官窑址出土过各种各样的三足盘，较矮，底部平整，圆形小盘下端有三个兽蹄形足(图1)，<sup>12</sup> 根据小盘的形状，分为多种类型。有趣的是，郊坛下官窑出土的三足盘都是郊坛下官窑早期生产的。<sup>13</sup> 清凉寺汝窑址、<sup>14</sup> 低岭头类型窑址都出土过三足盘(图2)，<sup>15</sup> 而清凉寺汝窑址出土的三足盘款式单一。我认为，这种盘经过低岭头类型，在郊坛下官窑初期已经发展成了多种多样的三足盘，到了郊坛下官窑早期之后就已经消失了。老虎洞窑址并没有出土过三足盘，我们在推断出老虎洞窑的建立时期时，应当重视这一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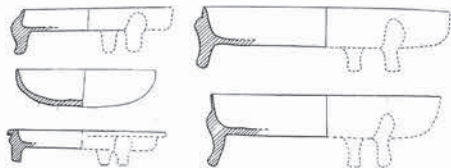


图1 郊坛下官窑址出土的三足盘



图2 清凉寺汝窑址出土的三足盘

11 关于老虎洞窑与郊坛下官窑之间制烧工艺上的比较，参见唐俊杰：《南宋郊坛下官窑与老虎洞官窑的比较研究》，《南宋官窑文集》，文物出版社，2004年，第181—188页；张玉兰：《老虎洞窑瓷片堆积坑出土瓷器制烧工艺初探》，《南宋官窑文集》，文物出版社，2004年，第200—207页。

12 中国社会科学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园林文物局编：《南宋官窑》，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96年，第22—23页。

13 唐俊杰：《南宋郊坛下官窑与老虎洞官窑的比较研究》，《南宋官窑文集》，文物出版社，2004年，第189—191页。

14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宝丰清凉寺汝窑》，大象出版社，2008年，第84—85页。

15 沈岳明：《修内司窑的考古观察——从低岭头谈起》，《中国古陶瓷研究》第4辑，紫禁城出版社，1997年，第85页。



图3 郊坛下官窑址出土的细颈瓶 图4 清凉寺汝窑址出土的细颈瓶

**细颈瓶**：腹部呈球形，颈部细而长。<sup>16</sup>细颈瓶也与鹅颈瓶一起被称为玉壶春瓶。<sup>17</sup>但是，细颈瓶与鹅颈瓶的颈部及腹部形态还是有所区别，因此也很容易辨别。根据推测，郊坛下官窑早期已经开始制作细颈瓶了(图3)。<sup>18</sup>清凉寺汝窑址与低岭头类型窑址也出土过细颈瓶(图4)，其造型与郊坛下官窑出土的比较相似。<sup>19</sup>

**唾具**：有郊坛下官窑早期阶段器物的特点。而这种器物不仅没有出土于老虎洞窑址，也没有出土于清凉寺汝窑址。低岭头类型窑址曾经出土过造型相似的天青釉唾具，<sup>20</sup>由此可以推断，郊坛下官窑唾具的生产受到了低岭头类型的影响。

**莲瓣纹熏炉**：这种熏炉模仿了金银器，郊坛下官窑址出土的莲瓣纹熏炉被发掘时炉身与底部已经分离，发掘报告定名为坛与器盖，这种器物应该是熏炉。<sup>21</sup>莲瓣纹熏炉也是郊坛下窑的早期产品。清凉寺汝窑址也出土了几具莲瓣纹熏炉(图5)，<sup>22</sup>而且其中部

16) 这就指郊坛下官窑的 I 型 I 式瓶(中国社会科学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园林文物局编：《南宋官窑》，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96年，第32页)。

17) 刘毅：《从汝官窑到郊坛下官窑的传递》，《南宋官窑文集》，文物出版社，2004年，第126—127页。

18) 细颈瓶中，有的是厚胎薄釉产品(中国社会科学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园林文物局编：《南宋官窑》，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96年，第32页)，“厚胎薄釉”就是郊坛下官窑早期产品的重要特征之一(陈元甫：《对杭州老虎洞南宋官窑的几点思考》，《南宋官窑与哥窑——杭州南宋官窑老虎洞窑址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浙江大学出版社，2004年，第35—37页)。

19)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宝丰清凉寺汝窑》，大象出版社，2008年，第87页；沈岳明：《低岭头类型再认识》，《南宋官窑文集》，文物出版社，2004年，第81页。

20)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慈溪市文物管理委员会：《寺龙口越窑址》，文物出版社，2002年，第286页。

21) 中国社会科学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园林文物局编：《南宋官窑》，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96年，第28、40页；刘毅：《从汝官窑到郊坛下官窑的传递》，《南宋官窑文集》，文物出版社，2004年，第124—126页。

22)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宝丰清凉寺汝窑》，大象出版社，2008年，第104页。



图5 清凉寺汝窑址出土的莲瓣纹熏炉



图6 郊坛下官窑址出土的花口瓶

分器物与郊坛下官窑址出土莲瓣纹熏炉的造型非常相似。<sup>23</sup>低岭头类型窑址还没有发掘出莲瓣纹熏炉。由此，我们可以推断郊坛下官窑的莲瓣纹熏炉受到了清凉寺汝窑的影响而在该窑早期阶段生产，但是在短时间内就消失了。

**花口瓶：**这种瓶的口部是花瓣形，颈部短而粗，有郊坛下官窑后期瓷器的特点(图6)。<sup>24</sup>老虎洞窑址、清凉寺汝窑址以及低岭头类型窑址都没有出土花口瓶。因此，郊坛下官窑花口瓶到底是在哪个窑口的影响下生产的，这一点还不清楚。

接下来，我们关注一下在老虎洞窑址出土，但在郊坛下官窑址没有出土的器物。

**夹层碗：**这种碗是将两个高低不平、口径相同的碗连接在一起的器物，上层碗与下层碗的中间是空的。此种夹层碗开始烧造于北宋时期的越窑与龙泉窑，郊坛下官窑址与清凉寺汝窑址都没有出土这种器物。老虎洞窑址曾经出土大型、小型夹层碗(图7)，而根据发掘报告，所有夹层碗都出自瓷片堆积坑H3。多数研究者认为，H3与H2都是老虎洞窑早期阶段的瓷片堆积坑。<sup>25</sup>根据这一观点，老虎洞窑的夹层碗是老虎洞窑早期

23) 清凉寺汝窑Aa型熏炉的造型与郊坛下官窑的莲瓣纹熏炉很相似(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宝丰清凉寺汝窑》，大象出版社，2008年，第105页的图69；中国社会科学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园林文物局编:《南宋官窑》，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96年，第28—40页)。

24) 郊坛下官窑出土的花口瓶是厚釉制品(中国社会科学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园林文物局编:《南宋官窑》，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96年，第35页)，“厚釉”就是郊坛下官窑后期产品的重要特征之一(陈元甫:《杭州老虎洞南宋官窑发现的启示》，《南宋官窑与哥窑——杭州南宋官窑老虎洞窑址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浙江大学出版社，2004年，第41—45页)。

25) 但是，张玉兰认为，H3和H2是老虎洞窑后期阶段的瓷片堆积坑(张玉兰:《老虎洞窑瓷片堆积坑出土瓷器制烧工艺初探》，《南宋官窑文集》，文物出版社，2004年，第202页；《关于老虎洞窑的几个问题》，《东方博物》第14辑，浙江大学出版社，2005年，第94—95页)。



图7 老虎洞窑址出土的夹层碗



图8 日本福冈市博多遗址出土的龙泉窑夹层碗

阶段的产品。另外，老虎洞窑的夹层碗的形态比较接近龙泉窑的夹层碗(图8)。<sup>26</sup> 由此可见，老虎洞窑的夹层碗并没有受到清凉寺汝窑及低岭头类型的影响，而是在老虎洞窑的早期阶段，在龙泉窑的影响下生产的。

**盏托**：老虎洞窑址出土过多种类型的盏托，不过没有托台呈倒立小碗的形态（I型），所有盏托的托台都是杯子形态（II型）(图9)。多数盏托出土于被认为是老虎洞窑早期阶段的瓷片堆积坑H3与H2。低岭头类型窑址还没有出土过盏托，<sup>27</sup>寺龙口越址的南宋初期层位出土的盏托的造型与老虎洞窑盏托的造型完全不一样。<sup>28</sup>因此，这些窑口影响过老虎洞窑盏托的可能性极小。清凉寺汝窑址出土过相当数量的盏托，<sup>29</sup>其造型与老虎洞窑的盏托也有些相像。但是，清凉寺汝窑的盏托，从局部形态以及各同种类型的出土量看，与老虎洞窑盏托的差距较大。清凉寺汝窑的盏托大部分是I型（图10），<sup>30</sup>然而，老虎洞窑址没有出土过I型盏托。<sup>31</sup>另外，清凉寺汝窑II型盏托的托杯与底部是相

26) 寺龙口越窑址也出土了各种各样的夹层碗，与老虎洞窑夹层碗比较，都有一定的形制上差异（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慈溪市文物管理委员会：《寺龙口越窑址》，文物出版社，2002年，第76—80页）。另外，日本福冈市博多遗址也出土过龙泉窑夹层碗，在造型上与老虎洞窑夹层碗很相似，但前者在内面有莲花刻花纹，而后者没有任何纹饰。前者收管于福冈市埋藏文化财中心，该中心的田中克子调查员说，该遗物出土于约12世纪后期（南宋前期）阶段的土层。

27) 这是根据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沈岳明研究员对笔者说的关于低岭头类型的详细情况。他第一次将“低岭头类型”介绍于学界。下文中，有关低岭头类型的说明之中，如没有特别地说明出处，大部分是根据沈岳明研究员的指点。在此，衷心感谢沈岳明研究员对我的指点和帮助。

28)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慈溪市文物管理委员会：《寺龙口越窑址》，文物出版社，2002年，第161—169页。

29)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宝丰清凉寺汝窑》，大象出版社，2008年，第99页。

30)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宝丰清凉寺汝窑》，大象出版社，2008年，第99页。

31) 杭州文物考古所（杜正贤执笔）：《杭州老虎洞南宋官窑址》，《文物》2002年第10期，文物出版社，第10—18页；杜正贤主编：《杭州老虎洞窑址瓷器精选》，文物出版社，2002年，第130—134页。



图9 老虎洞窑址出土的托盘(Ⅱ型)



图10 清凉寺汝窑址出土的托盘

通的,<sup>32</sup>而老虎洞窑址出土的Ⅱ型盏托则有相通与不相通两种。<sup>33</sup>这些都能说明清凉寺汝窑与老虎洞窑之间存在着比较长的时间距离。

**套瓶:**这种瓶的整体外观与鹅颈瓶相似,<sup>34</sup>外腹部饰有镂孔唐草纹。此类套瓶出土于H5与H22(图11)。H5与H22是老虎洞窑中期以后阶段的瓷片堆积坑。<sup>35</sup>清凉寺汝窑址并没有出土套瓶。低岭头类型窑址之一的寺龙口越窑址南宋早期层位出土过套瓶,<sup>36</sup>由此可以推断,老虎洞窑的套瓶受到了这个窑口的影响,老虎洞窑中期以后的阶段开始了套瓶的生产。然而,寺龙口越窑址出土的套瓶与老虎洞窑的套瓶有所区别,除了它的外腹部饰镂孔唐草纹之外,肩部与底部周围还饰有刻划花牡丹纹、莲瓣纹。另外两个窑址出土的套瓶的镂孔唐草纹的形态也有些差异。可以说,两者之间存在着时间上的差异。

**樽式套炉:**除了腹部饰有镂孔唐草纹,樽式套炉与老虎洞窑址出土的相同时期的普通樽式炉在外观上并没有什么区别。<sup>37</sup>目前发现的樽式套炉都出土于H5(图12)。清凉寺汝窑址、郊坛下官窑址以及寺龙口越窑址都没有出土过樽式套炉,因此老虎洞窑的樽式套炉无法判定相互影响关系。但是,镂孔技法盛行于老虎洞窑的中期以后阶段。因此,樽式套炉有可能是借用了套瓶的镂孔技法。

32)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宝丰清凉寺汝窑》,大象出版社,2008年,第99页。

33) 杜正贤主编:《杭州老虎洞窑址瓷器精选》,文物出版社,2002年,第130—134页。

34) 杭州文物考古所(杜正贤执笔):《杭州老虎洞南宋官窑址》,《文物》2002年第10期,文物出版社,第16页;杜正贤主编:《杭州老虎洞窑址瓷器精选》,文物出版社,2002年,第130—134页。

35) 杭州文物考古所(杜正贤执笔):《杭州老虎洞南宋官窑址》,《文物》2002年第10期,文物出版社,第28—29页;贺世伟:《南宋官窑分期浅析》,《南宋官窑与哥窑——杭州南宋官窑老虎洞窑址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浙江大学出版社,2004年,第145—146页;范梦园:《杭州老虎洞窑址南宋遗存分期研究》,北京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2004年,第38—46页。

36)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慈溪市文物管理委员会:《寺龙口越窑址》,文物出版社,2002年,第195页。

37) 杜正贤主编:《杭州老虎洞窑址瓷器精选》,文物出版社,2002年,第104—112页。



图11 老虎洞窑址出土的套瓶



图12 老虎洞窑址出土的樽式套炉

笔山：有人分类这种器物为箸架。<sup>38</sup>清凉寺汝窑址并没有出土过笔山，而低岭头类型窑址曾经出土过笔山。<sup>39</sup>可以说，老虎洞窑的笔山受到了低岭头类型的影响。但是，两座窑的笔山在造型上有区别，在制作时间上应当有较大的距离。然而，笔山在我们研究的这一课题里并不是那么重要的器物。

我们比较、观察了只出土于郊坛下官窑址或老虎洞窑址中某一座窑址的器物。根据以上分析，我们可以总结出一些重要的线索。第一，仅在郊坛下官窑址出土的早期阶段的器物，其大部分同样也在清凉寺汝窑址与低岭头类型窑址出土过，而且其造型也很相似。第二，仅在老虎洞窑址出土的早期阶段的器物当中，在清凉寺汝窑址与低岭头类型窑址没出土的，要比郊坛下官窑址多一些。虽然某种器物（例如盏托）在老虎洞窑址与清凉寺窑址都出土过，但是双方在局部形态以及各同种类型出土量上有较大的差异。

综上所述，我们可以得知，郊坛下官窑与老虎洞窑生产的器物之中，前者比后者在种类、造型方面与清凉寺汝窑以及低岭头类型器物更接近。

例如清凉寺汝窑址普遍出土的三足盘、细颈瓶以及莲瓣纹熏炉，同样也出土于郊坛下官窑址，而且造型也很相似。但是，老虎洞窑址并没有出现过此类器物。根据我们的论证，这意味着郊坛下官窑的建立时间要比老虎洞窑早一些。这一点还可以通过郊坛下官窑与老虎洞窑生产器物的演变过程进行证明。

38 | 范梦园：《杭州老虎洞窑址南宋遗存分期研究》，北京大学硕士研究生学位论文，2004年，第35页。

39 | 沈岳明：《修内司窑的考古观察——从低岭头谈起》，《中国古陶瓷研究》第4辑，紫禁城出版社，1997年，第85页。



图13 清凉寺汝窑址出土的纸槌瓶

纸槌瓶能让我们比较清楚地了解从清凉寺汝窑到南宋官窑的器物的演变过程。该瓶又称砧形瓶，清凉寺汝窑址、低岭头类型窑址、<sup>39</sup>郊坛下官窑址、老虎洞窑址都出土过这种瓶。纸槌瓶的演变过程体现在口部、肩部以及底部。口部经历了盘口型(I型)到平口型(II型)的演变过程，肩部侧面的曲线则从原来的圆滑曲线(I型)演变成了曲折的形态(II型)，底部则从平底型(I型)演变成了圈足型(II型)。

清凉寺汝窑址出土了大量纸槌瓶，口部基本上为盘口型(I型)，肩部是圆滑曲线(I型)，底部都是平底(I型)(图13)。<sup>40</sup>低岭头类型窑址也出土过纸槌瓶，口部有I型与II型，但是与清凉寺汝窑的I型相比较矮，这说明了清凉寺汝窑

的盘口型纸槌瓶向平口型纸槌瓶的转变过程。遗憾的是，低岭头类型窑址出土的纸槌瓶只有口部片，因此无法对肩部与底部形态进行比较。郊坛下官窑址出土的纸槌瓶也只有口部片，有I型与II型两种(图14)，<sup>41</sup>其造型与低岭头类型很相似。老虎洞窑址出土的纸槌瓶基本上都是平口型(II型)(图15)。<sup>42</sup>可以说，盘口型的口部在老虎洞窑时期已经发展成了平口型。老虎洞窑纸槌瓶的肩部有I型与II型两种，制作时期相对较早的是I型，相对较晚的是II型。<sup>43</sup>底部形态都是II型。<sup>44</sup>由此可见，平底型底部在老虎洞窑时期已经演变成了圈足型。(表1)

40 |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宝丰清凉寺汝窑》，大象出版社，2008年，第87页。

41 | 参见中国社会科学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园林文物局编：《南宋官窑》，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96年所附图版24。图版24的2与3是I型（盘口型）口部，图版24的1是II型（平口型）口部。

42 | 杜正贤主编：《杭州老虎洞窑址瓷器精选》，文物出版社，2002年，第53—63页。值得注意的是，杜正贤认为H3: 143纸槌瓶的口部是I型（盘口型）。但是，经过仔细观察，我们可以判断该纸槌瓶的口部虽然平折沿微上翘起，但是应该是II型（平口型）。

43 | 张玉兰：《老虎洞窑瓷片堆积坑出土瓷器制烧工艺初探》，《南宋官窑文集》，文物出版社，2004年，第203页。

44 | 杜正贤主编：《杭州老虎洞窑址瓷器精选》，文物出版社，2002年，第53—63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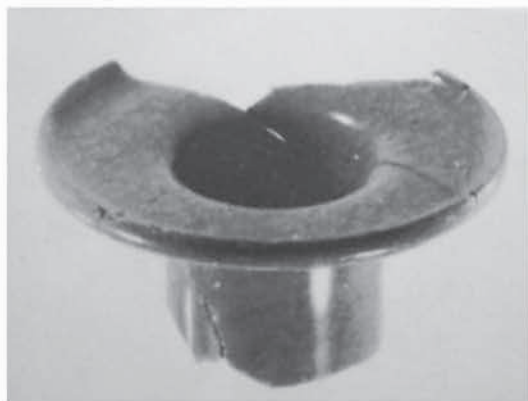


图14 郊坛下官窑址出土的纸槌瓶口部 (I型)



图15 老虎洞窑址出土的纸槌瓶 (II型口部)

〈表1〉各窑址出土纸槌瓶的造型分析

窑址	纸槌瓶部位		
	口部	肩部	底部
清凉寺汝窑址	I型	I型	I型
低岭头类型窑址 (包括寺龙口越窑址南宋层)	I·II型	?	?
郊坛下官窑址	I·II型	?	?
老虎洞窑址	II型	I·II型	II型

\*纸槌瓶各部位的演变过程: I型→II型

根据出土的纸槌瓶资料,这种瓶的口部最能体现造型的演变过程。我们必须注意的是,清凉寺汝窑址、低岭头类型窑址、郊坛下官窑址都出土过盘口型(I型)口部的纸槌瓶,但是老虎洞窑址没出土过I型口部的纸槌瓶,出土的纸槌瓶口部都是平口型(II型)。我们已经阐释过,纸槌瓶口部经历了盘口型(I型)到平口型(II型)的演变过程。因此,我们可以确定,相对于老虎洞窑,郊坛下官窑与清凉寺汝窑以及低岭头类型有更强的亲缘性。这就意味着郊坛下官窑的建立时间要比老虎洞窑早一些。





图16 清凉寺汝窑址出土的梅瓶  
(I型)

图17 清凉寺汝窑址出土的梅瓶  
(II型)

图18 老虎洞窑址出土的梅瓶  
(I型)

我们还可以通过梅瓶证明这一点。最能反映梅瓶的造型差异的也是口部。清凉寺汝窑址出土过两种梅瓶，一种是口部较窄的小口型(I型)(图16)，另一种是口部较宽、颈部较粗的大口型(II型)(图17)。<sup>45</sup>与低岭头类型窑址相关的寺龙口越窑址南宋早期层位以及郊坛下官窑址都出土过I、II型梅瓶。<sup>46</sup>郊坛下官窑出土的II型梅瓶应该是早期阶段生产的。但是，老虎洞窑址只出土过I型梅瓶(图18)。而老虎洞窑梅瓶都是出土于该窑早期阶段的瓷片堆积坑H3与H2。<sup>47</sup>由此，我们可以判断，从清凉寺汝窑到郊坛下官窑的早期阶段，I型梅瓶与II型梅瓶同时都进行了生产，但是郊坛下官窑早期阶段以后到老虎洞窑的早期阶段期间，II型梅瓶就消失了。(表2)这一点，也可以说明郊坛下官窑的建立年代比老虎洞窑早。

〈表2〉各窑址梅瓶的出土现况

窑址 类型	清凉寺汝窑址	低岭头类型窑址 (包括寺龙口越窑址南宋层)	郊坛下官窑址	老虎洞窑址
I型	○	○	○	○
II型	○	○	○	×

\* ○：出土，×：未出土。II型比I型更早消失。

45)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宝丰清凉寺汝窑》，大象出版社，2008年，第87页。

46)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学考古文博学院、慈溪市文物管理委员会：《寺龙口越窑址》，文物出版社，2002年，第191—192页；中国社会科学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园林文物局编：《南宋官窑》，中国大百科全书出版社，1996年，第37页。

47) 杜正贤主编：《杭州老虎洞窑址瓷器精选》，文物出版社，2002年，第41—48页。

如果以上论证过程没有错误，老虎洞窑是最初南宋官窑的主张是无法成立的。但是，也不能说明郊坛下官窑是最初的南宋官窑。因为《坦斋笔衡》记载，最初的南宋官窑就是修内司官窑，而不是郊坛下官窑，我们无法否定该文献记载的可靠性。那么，我们应当推测老虎洞窑与郊坛下官窑之前还有一座官窑存在。那座官窑才是南宋最初的官窑。

根据《坦斋笔衡》，南宋时期一直保持着二元的官窑体制——修内司官窑与郊坛下官窑。考古学以及文献记录已经证实，郊坛下官窑建立以来，一直都在乌龟山脚经营窑业。那么，除了郊坛下官窑址，其它南宋官窑址应该都是修内司官窑址。因此，老虎洞窑址应当只是几处修内司官窑址中的一处。<sup>481</sup>

那么，建立时间比老虎洞修内司官窑更早的修内司官窑会在哪里呢？我们的第二课题就是解决这一问题。通过解决这一问题，我们将认清南宋前期官窑的面貌，老虎洞窑之前还存在最初的修内司官窑的观点也将进一步被证实。

### 3

#### 最初的 修内司官窑建 立在哪里？

有关南宋前期官窑，《坦斋笔衡》记载的内容最为丰富，其可靠性也最高。《坦斋笔衡》有如下记载：

中兴渡江，有邵成章提举后苑，号邵局，袭故京遗制，置窑于修内司，造青器，名内窑，澄泥为范，极其精致，油色莹彻，为世所珍。后郊坛下别立新窑，比旧窑大不侔矣。余如乌泥窑、余杭窑、续窑，皆非官窑比。若谓旧越窑，不复见矣。<sup>482</sup>

481 修内司官窑址存在两处以上，而到底修内司官窑址有几处，这是非常重要的问题。对此，米内山庸夫已经提出较为有价值的观点。他在20世纪30年代，通过2—3年的调查，认为自己在南宋皇城址、凤凰山脚以及青平山附近共找到了5个修内司官窑址（米内山庸夫：《南宋官窑の研究（中间报告）11，南宋官窑の窑迹》，《日本美术工艺》总第174号，日本美术工艺社，1953年，第22—24页）。根据他的报告，第一窑址在南宋皇城址，第二窑址在凤凰山东边山脚，第三窑址和第四窑址在九华山东边山脚的地藏殿周围，第五窑址在青平山脚，而这5座窑址都出土过窑废弃物与窑具，因此可以确信这里确实有过窑址。米内山庸夫所说的5座窑址中，第三窑址、第四窑址、第五窑址已经找不到痕迹，因为那里立满了建筑物。另外，笔者对第一窑址与第二窑址进行了调查，但是没能找到有关线索。因此，很难对这五座窑址进行考古学鉴证。但是，第一窑址与第二窑址所说的是南宋皇城之内，在皇城内设窑的可能性几乎为零。笔者认为，这里应该是南宋灭亡之后建立的窑遗址，即元代以后的窑址。另外，米内山庸夫自己也承认，第三窑址与第四窑址地区没有过修内司或者修内司官窑。因此，这些窑址是修内司官窑址的可能性也极小。这些窑址也可能是元代以后建立的窑址。目前，只有第五窑址有可能是南宋修内司官窑址。第五窑址的周围有南宋时期的提举修内司以及修内司社役等指挥营。但是，这座窑址也无法排除是元代以后窑址的可能性，因此不能抛之过急地判断它就是一处南宋修内司官窑址。笔者认为，米内山庸夫发现的窑址与元代哥窑的关系较为密切。对此，笔者将在其它论文中进行阐述。

482 [元]陶宗仪撰：《南村辍耕录》卷29《窑器》，元明史料笔记丛刊本，中华书局，1959年，第362—363页。

以上内容较为详细地阐述了“内窠”的建立过程，而这里所说的“内窠”就是修内司官窠。我们应当注意的是“置窠于修内司”这一句。人们对于这一句的理解多种多样，而本人认为“置窠于修内司营内”的解释最为合理。<sup>50</sup>根据这一观点，找出该“修内司营”的位置就是找出最初修内司官窠位置的关键所在。

乾道5年(1169)成书的《乾道临安志》有关于南宋早期的修内司营以及其直属上级官府——修内司的记载如下：

(A) 修内司壮役等指挥营，在万松岭下。<sup>51</sup>

(B) 入内内侍省……修内司……御酒库，右并在禁中。<sup>52</sup>

根据以上记载，《乾道临安志》成书的乾道5年(1169)，当时修内司在皇城内(B)，而且有一座军营隶属于修内司，这就是曾经在“万松岭下”的修内司壮役等指挥营(A)。而这座修内司壮役等指挥营就是修内司营。也就是说，最初的修内司官窠就建立在“万松岭下”的修内司壮役等指挥营之内。

50) 对于“置窠于修内司”，研究者们持有多种观点，具体有四种。第一，修内司之下设置了内窠。在这里，内窠不是指特定的窠口，而是包括窠以及陶工在内的，修内司管辖的隶属机构。第二，是一个地理概念，是指在修内司(提举修内司)的领域内建立了内窠。第三，也是一个地理概念，是指在修内司附近建立了一座内窠。第四，也是一个地理概念，是指在修内司营的领域内建立了内窠。其中，最为普遍的观点是第一个观点。其原因应该是第一个观点在联系修内司官窠与修内司方面较为自然一些。但是，这一观点却与《坦斋笔衡》的内容对立。根据《坦斋笔衡》所述，内窠是由后苑(邵周)主管的。后苑是主管宫廷生活需求以及皇族结婚用品的官府。而修内司则是掌管皇城与太庙建筑的官府。因此，管理内窠的不应该是修内司，而是后苑。张东、施远以及郑建华也已经证明过这一点(施远、张东：《宋代汝、官窑若干问题的研究》，《上海博物馆集刊》第8期，上海书画出版社，2000年，第354—365页；郑建华：《关于修内司官窠问题的思考》，《南宋官窑文集》，文物出版社，2004年，第57—58页)。另外，建立内窠(修内司官窠)时，修内司(提举修内司)在皇城内。根据第二个观点，皇城内应当设有官场，但是实际上这种可能性几乎为零。因此，我认为，第二个观点也是无法成立的。第三个观点与第二个观点一样，也很难成立，因为修内司附近与修内司一样也是皇城之内。但是，如果将“置窠于修内司”解释为“在修内司营周围建设内窠”，就不会产生冲突了。因为，南宋早期建立内窠时，修内司营(修内司壮役等指挥营)在皇城外的“万松岭下”(宋周焘撰：《乾道临安志》卷1《军营》，清光绪七年《武林掌故丛编》第一集本，《宋元方志丛刊》第4册，中华书局，1990年，第3220页)。用特定建筑物的名称指示某一地带的情况虽然很普遍(例如榷江门，所指的是榷江门一带)，但是，不知是否是笔者调查得不够充分，并没有调查到用官府或者机构称呼某一地带的情况。也就是说，“修内司营”只是一个地理概念，指的是修内司营内，并没有包含其周围地区。与上述三种观点不同，第四个观点不存在问题。建立修内司官窠的地点是修内司营的领域内，而《坦斋笔衡》记载，建立了内窠在修内司，这是很自然的，因为修内司营是修内司的隶属机构。由此可见，“置窠于修内司”指的是一个地理概念，是说在修内司营的领域内建立了一座内窠。

51) 宋周焘撰：《乾道临安志》卷1《军营》，清光绪七年《武林掌故丛编》第一集本，《宋元方志丛刊》第4册，中华书局，1990年，第3220页。但这版本却落了“营”字。这是该版本的错误，因此，这里填补这一字。

52) 宋周焘撰：《乾道临安志》卷1《内诸司》，清光绪七年《武林掌故丛编》第一集本，《宋元方志丛刊》第4册，中华书局，1990年，第3218页。

但是,“万松岭下”的表述并不是很具体,其所指的是一个较大的范围。因此,单凭《乾道临安志》的记载,很难确定修内司壮役等指挥营内的修内司官窑的具体位置。为了解决这一问题,我们应当深入研究万松岭一带与修内司的关系。

南宋时期,万松岭及其周围与修内司都有密切的关联。我们已经指出,南宋早期修内司的唯一军营——修内司壮役等指挥营就驻扎在这里。另外,南宋后期的提举修内司与两座修内司营也曾经驻扎在这里。

(A) 提举修内司,〈在孝仁坊内青平山口〉(〈〉里的内容表示原文细注,下同)<sup>53</sup>

(B) 修内司营,在孝仁坊内石桥头、万松岭、铁冶岭、榨货务东。<sup>54</sup>

根据咸淳4年(1268)成书的《咸淳临安志》记载,南宋后期的提举修内司座落于孝仁坊内的青平山入口(A)。这里是万松岭东。四座修内司营中,有两座座落于万松岭和孝仁坊内的石桥头(B)。也就是说,南宋初期建立在皇城内的提举修内司(在《乾道临安志》中为“修内司”)搬迁到了万松岭一带,增设的修内司营的一部分军营也驻扎到了这里。我们在万松岭及其周围可以找到的与修内司有直接联系的地方只有三处。所以这三个地方,即南宋后期的提举修内司与两座修内司营地中的某一个很可能是南宋早期修内司壮役等指挥营的具体驻扎地。那么,最初修内司官窑的位置也应该是在这三个地点中的某一处。

根据《咸淳临安志》的《皇城图》(图19),两座修内司营分别座落于万松岭的南边与东边邻近的地点。<sup>55</sup>我认为,在“万松岭”的修内司营应该是前者,在“孝仁坊内石桥头”

53) [宋]潜说友撰:《咸淳临安志》卷10《提举修内司》,清道光十年钱澐汪氏撰纬堂刊本,《宋元方志丛刊》第4册,中华书局,1990年,第3441页。

54) [宋]潜说友撰:《咸淳临安志》卷14《修内司营》,清道光十年钱澐汪氏撰纬堂刊本,《宋元方志丛刊》第4册,中华书局,1990年,第3492页。

55) 《咸淳临安志》有两张有关都城的较为详细的地图——《皇城图》与《京城图》。这两张地图上都标有万松岭附近的两座修内司营。仔细观察,我们可以看出两张地图上,标注修内司营的位置,有一些细微的差异。《皇城图》所标注的两座修内司营分别在万松岭的南边与东边。而《京城图》所标注的两座修内司营都在万松岭的东边。另外,我们可以从《京城图》中发现一个特别的现象:都城南边的皇城地区画得非常怪异,这幅图将皇城在南北方向上缩小了。因为当时还有《皇城图》,《京城图》似乎没有仔细地描绘皇城。所以,这幅图在标注皇城的东部与西部地区时,可能也发生了误差。而《京城图》在标注位于皇城西北部的万松岭地区时也进行了缩略。因此,这幅图没有足够的空间标注地名、官府名以及军营名。《皇城图》中记载的雄七营、雄八营、石桥头、搭材门、大红门等都没有在《京城图》中反映出来。由此可见,在考证万松岭附近的修内司营方面,《皇城图》要比《京城图》更可靠一些。笔者认为,在《京城图》中,应当把修内司营标注在万松岭的南边,但是由于受到地图空间的限制,将修内司营标注到了万松岭的东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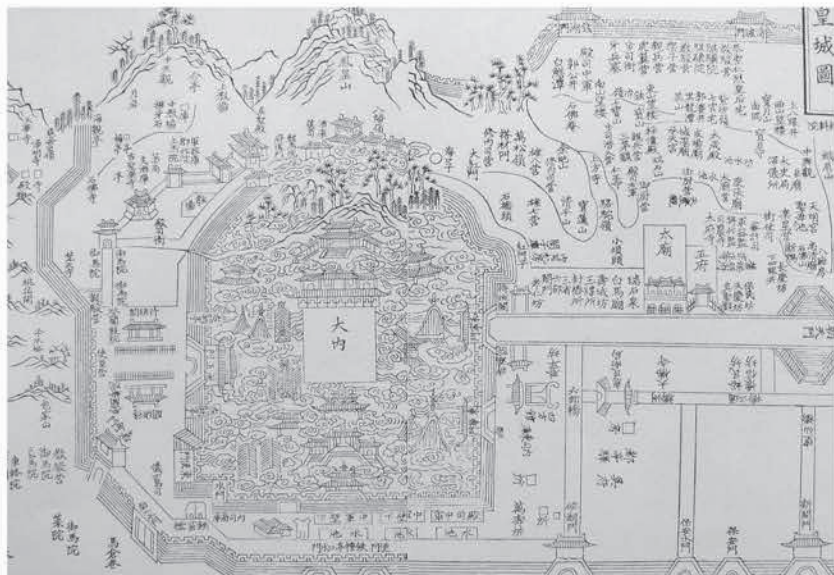


图19 《咸淳临安志·皇城图》

的修内司营应该是后者。<sup>56</sup>另外，提举修内司虽然在《皇城图》上并没有被标注，但是《咸淳临安志》记载它座落在青平山入口，那么我们可以推测提举修内司也应当座落在万松岭东边邻近的地点。其中，万松岭南边的修内司营指的是现今的九华山至凤凰山的地带，这里的海拔比万松岭还高。因此，这里不可能被人们称为是“万松岭下”。当时所说的“万松岭下”所指的并不是万松岭，而是万松岭的东边以及西边较为低矮的入口周围。<sup>57</sup>也就是说，海拔较高的万松岭南部与北部根本不可能被人们称为“万松岭下”。而另一座修内司营所处的“孝仁坊内石桥头”与提举修内司所在的“孝仁坊内青平山口”则位于万松岭东边的入口，因此可以被称为“万松岭下”。那么，南宋早期的修内司壮役等指挥营与最初的修内司官窑的具体位置应当在孝仁坊内石桥头或者孝仁坊内青平山入口。

<sup>56</sup> 根据《咸淳临安志》的《皇城图》，万松岭周围的修内司营在万松岭的南边与东边。另外，孝仁坊内的石桥头位于两座修内司营的中间地带。因此，单凭《皇城图》很难判断《咸淳临安志》卷14《修内司营》所说的在“万松岭”与“孝仁坊内石桥头”的修内司营所指的是具体哪座修内司营。但是，万松岭南边的修内司营在现今的九华山至凤凰山的山脉及狭小的溪谷。这里不可能是南宋时期人口密集的孝仁坊的遗址。因此，该修内司营应该是在“万松岭”的修内司营。那么，在“孝仁坊内石桥头”的修内司营应该是万松岭东边入口的修内司营。

<sup>57</sup> 例如，郭公井在万松岭西边入口，当时一般说它在“万松岭下”（宋潜说友撰：《咸淳临安志》卷37《郭公井》，清道光十年钱塘汪氏振绮堂刊本，《宋元方志丛刊》第4册，中华书局，1990年，第3687页）。



图20 采集在青平山周围的南宋时期瓷片

在这里，我们应当回顾一下南宋早期曾经将皇城内的修内司搬迁到皇城外的事实。南宋早期，皇城内增设了许多殿阙与内司，随后，修内司被安排到了皇城外。<sup>58</sup>我们应当关注的是，修内司的新地址是“万松岭下”的“孝仁坊内青平山口”(A)。而“万松岭下”恰好有一座隶属修内司的军营——修内司壮役等指挥营。把这两件事连在一起，我们可以推测，从皇城搬出来的修内司在修内司壮役等指挥营驻扎了下来。也就是说，修内司壮役等指挥营驻扎的“万松岭下”所指的具体地点很可能就是提举修内司驻扎的“孝仁坊内青平山口”。

另外，南宋官窑的窑炉结构是浙江地区传统的龙窑。而龙窑需要建立在 $15^{\circ}$ 度左右的斜坡上，一般建立在山脚或者丘陵。根据南宋时期的文献记载，清平山是孝仁坊唯一的一座山。“青平山口”指的就是青平山的入口，即青平山脚。而孝仁坊石桥头是否有适合建立龙窑的山脚或者丘陵，现在无法考证。如果孝仁坊石桥头并没有适宜的山脚或者丘陵，这里肯定没有建立过龙窑，这意味着最初的修内司官窑在“孝仁坊内青平山口”；如果情况相反，石桥头也应当位于青平山脚。由此可见，最初的修内司官窑必定在孝仁坊内青平山脚。

58) 《乾道临安志》成书于乾道5年(1169)，此后御膳所、御服所、祇候库、道场库等新建立于皇城内，御辇院、御马院等与修内司一样，从皇城内搬迁到皇城之外([宋]周宗撰：《乾道临安志》卷1《诸内司》，清光绪七年《武林掌故丛编》第一集本，《宋元方志丛刊》第4册，中华书局，1990年，第3218页；[宋]潜说友撰：《咸淳临安志》卷10《诸内司》，清道光十年钱塘汪氏振绮堂刊本，《宋元方志丛刊》第4册，中华书局，1990年，第3440—3442页)。

现今杭州卷烟厂的西部有几座较矮的山，座落于吴山山脉的南端。而这几座山中在北边的是宝莲山，在南边的有可能是青平山。青平山的周围很早就被人们开垦了，或建了许多建筑物。现在除了这座山的山脚以外，山顶也出土过南宋时期龙泉窑等诸多窑口的瓷器片(图20)。由此可见，南宋时期不仅仅是青平山脚，山顶附近也居住过许多居民。另外，后代人在其周围修建了城墙，现今则有杭州卷烟厂等建筑物。因此，现在已经找不到南宋时期官窑遗址了。根据推论，自从人们开始在此处聚居之后，最初的修内司官窑遗址就开始消失了。

这样，寻找最初修内司官窑的考古学痕迹绝非易事。但是，1997年，位于青平山东边的杭州卷烟厂工地出土了许多南宋官窑型瓷器片与窑具。其实，20世纪30年代，米内山庸夫已经在这里搜集了许多窑迹遗品，也将这里指定为修内司官窑址之一。<sup>59</sup>遗憾的是，1997年出土的遗物中，多数遗物都通过文物市场被买走，因此很难掌握其具体的面貌。根据笔者观察杭州文物考古所收管瓷片的结果，釉色多数是粉青色系，也有米黄色。釉曾有二种，一种较厚，另一种较薄。胎土较密，有灰黑色与灰白色。有研究者推测，这些杭州卷烟厂工地出土的遗物有可能是被沿着老虎洞窑址的溪流冲刷而来的。<sup>60</sup>但是，老虎洞窑的溪流延伸到了更靠南的地区，<sup>61</sup>而遗物出土的地点与老虎洞窑有约1公里之远。因此，上述观点很难被认同。另外，现在从老虎洞窑址到杭州卷烟厂的溪谷地区根本没有出土南宋官窑瓷器片，甚至连匣钵片或者其它窑具都没有发现，这一点也能证明上述观点是错误的。依据遗物出土的地点位于青平山脚的观点，这些遗物有可能是跟最初修内司官窑有关的。但是，我们也无法排除这些瓷片是后代仿南宋官窑的产品的可能性。另外，目前还没有对这些出土遗物进行全面的考察，因此还无法进行判断。今后需要对这一点进行更深入的研究。

59) 米内山庸夫：《南宋官窑の研究(中间报告)11, 南宋官窑の窑迹》，《日本美术工艺》总第174号，日本美术工艺社，1953年，第23页。

60) 郑建华：《关于修内司官窑问题的思考》，《南宋官窑文集》，文物出版社，2004年，第60页。

61) 参见米内山庸夫：《南宋官窑の发见》，《世界陶磁全集》10，河出书房，1956年，第278页的Fig.227. 南宋官窑古窑之图(米内山庸夫作图)。

## 4

## 老虎洞修内司官窑的成立及其背景

老虎洞窑址的全面发掘工作之后，多数研究者相信，南宋时期确实存在修内司官窑与郊坛下官窑两个系统的官窑，而老虎洞窑就是修内司官窑。但是，根据先前的论述，虽然老虎洞窑的确属于修内司官窑，但它不是南宋时期唯一的修内司官窑。不仅如此，老虎洞窑既不是最初的修内司官窑，也不是最初

的南宋官窑。老虎洞窑，即老虎洞修内司官窑的建立时期要比郊坛下官窑更晚一些。那么，老虎洞修内司官窑与最初的修内司官窑，即青平山脚的修内司官窑（以下略称“青平山修内司官窑”）又有什么关联呢？老虎洞修内司官窑又建立于何时，其建立背景是什么？在以下的论述中，我们将解决这几个问题。

老虎洞修内司官窑位于凤凰山与九华山之间较陡峭的山谷西端的狭窄的盆地(图)，这里属于万松岭的南部地区。但是，根据《咸淳临安志》的《皇城图》，万松岭的南边标有一个“修内司营”。我们已经说过修内司官窑建立在修内司营内。比较老虎洞修内司窑址的位置与《皇城图》中修内司营相关内容，我们可以断定，老虎洞修内司官窑位于万松岭南边的修内司营内。

综上所述，老虎洞修内司官窑的建立时间要比郊坛下官窑的建立时间晚一些。此外，郊坛下官窑之前，还有过南宋最初的官窑，即青平山修内司官窑。根据南宋官窑的建立年代，依次为青平山修内司官窑、郊坛下官窑、老虎洞修内司官窑。另外，考古学与文献记载已经证实，老虎洞官窑建立之后，之前一样也有过郊坛下官窑与修内司官窑同时运营的局面。问题是，目前无法找出老虎洞官窑建立之后的青平山修内司官窑的踪迹。青平山修内司官窑有可能是在老虎洞修内司官窑建立之后消失的，也有可能与老虎洞修内司官窑一同运营了一段时间。由于文献以及考古学都没有相关的记录，很难确定青平山修内司官窑的去向。如果是第一种情况，应该说是在青平山的修内司官窑将窑场转移到了老虎洞。如果是第二种情况，应该说是在建立青平山修内司官窑的基础上增设了老虎洞修内司官窑。但是根据《坦斋笔衡》，南宋前期只增设了郊坛下官窑。考虑到《坦斋笔衡》的文献价值，在建立青平山修内司官窑的基础上增设了老虎洞修内司官窑的观点很难成立。因此，在青平山的修内司官窑将窑场转移到了老虎洞的观点更具说服力。那么，为什么要废弃青平山修内司官窑而新设老虎洞修内司官窑呢？

建立郊坛下官窑之前，南宋已经有青平山修内司官窑了。研究者一般认为，之所以增设郊坛下官窑，是为了扩大皇室专用的官窑瓷器生产，以满足需求。我也同意这种观点。但这并不能成为新设老虎洞修内司官窑的原因。建立老虎洞修内司官窑，并不是增设另一座新窑，而只是修内司官窑场的转移。而且老虎洞修内司官窑的窑址海拔较高，可使用的面积也非常狭小。如果是为了扩大官窑瓷器的生产，应该不会在这样的场所建立窑场。这一问题需要与青平山修内司官窑的消亡联系起来进行研究。





图21 老虎洞窑址全景

制作瓷器的过程比较复杂，包括采集瓷石、杵瓷石、成型、烧炉等较多程序，因此，要完成这些复杂的工程，需要较宽敞的场地。另外，在生产过程中一定会产生许多灰和烟气，而且有引起火灾的隐患。所以，窑场一般会建立在人烟稀少的偏僻地方。在青平山建立修内司官窑时，应该也考虑到了这一点。但是，约从绍兴末年开，不少的官府建立于青平山东脚，很多高官、内侍、老百姓也住在这里。乾道5年（1169）之后的某时，青平山修内司官窑的直属上级官府——修内司（提举修内司）也搬迁到了这里。笔者推测，修内司官窑是在这样的背景下转移窑场的。

2000年6月，在老虎洞窑址南边山脚(T31)的南宋地层发现了方形的石制地界碑，碑面有用楷体刻下的“邵衙界”三个字。<sup>82</sup>“邵”是姓氏，“衙”是指官衙，“界”是指地界。“邵衙界”应该是指被称为“邵衙”的官衙的地界，而建立此碑是为了划分地界限。南宋时期，以“邵”开头的官衙只有高宗时期（1127~1162）的“邵局”。当时邵局是“后苑”的别称，<sup>83</sup>而后苑的最高负责人由邵谔来任命。<sup>84</sup>老虎洞修内司官窑所在的地点本来是后苑的管辖范围。后苑是建立、管辖修内司官窑的主体。南宋时期，后

82| 唐俊杰：《关于杭州老虎洞南宋窑址性质的探讨》，《南宋官窑与哥窑——杭州南宋官窑老虎洞窑址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浙江大学出版社，2004年，第22页。

83| 关于邵局与后苑的关系，参见郑建华：《关于修内司官窑问题的思考》，《南宋官窑文集》，文物出版社，2004年，第51页。

84| 元陶宗仪撰：《南村辍耕录》卷29《窑器》，元明史料笔记从刊本，中华书局，1959年，第362—363页；李民举：《宋官窑论稿》，《文物》1994年第8期，文物出版社，第49页。



图22 老虎洞窑采取原料的土坑

苑的最高官府——提举后苑一直都在皇城内，我认为，建立老虎洞修内司官窑之前，这里有过一个后苑的作坊。这个地方比较偏僻，而且这里有生产瓷器所需的瓷土与紫金土。<sup>65</sup>现在我们也可以老虎洞窑址的西南部找到当时采取瓷土矿与紫金土矿带共生原料的土坑(图21)。之所以把在青平山的修内司官窑转移到老虎洞，应该是考虑到了这些因素。

修内司官窑将窑场转移到老虎洞之后，青平山修内司官窑的陶工以及提供杂役的修内司兵士也应该转移到了老虎洞。那么，修内司的兵士所在的军营——修内司营也应当自然而然地转移了驻扎地。万松岭南边的修内司营应该就是这座军营。与青平山修内司官窑一样，老虎洞修内司官窑也建立在了修内司营内。就这样，青平山修内司官窑的时代结束，老虎洞修内司官窑的时代开始了。

判断老虎洞修内司官窑的建立时间，我们要首先考虑万松岭南边的修内司营的建立时间。这是因为老虎洞修内司官窑的建立时间与修内司营的建立时间近似，这一点已经论述了。那么，老虎洞修内司官窑应该是在《乾道临安志》的成书之后，即乾道5年(1169)之后建立的。因为此时，修内司营只有一处，不在老虎洞，而在青平山脚。笔者

<sup>65</sup> 周少华：《杭州老虎洞窑青瓷原料的研究》，《南宋官窑与哥窑——杭州南宋官窑老虎洞窑址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浙江大学出版社，2004年，第197—198页。

已经在其它论文中说明老虎洞修内司官窑应该是在13世纪10年代左右消失的。<sup>66</sup>另外，老虎洞修内司官窑的经营期间较长，因此，老虎洞修内司官窑建立时间有可能是12世纪的晚期。为了更深入研究老虎洞修内司官窑建立时间的问题，我们需要回顾之前论述的这一点：这一时期的窑场一般建立于人烟稀少的地带。

（淳熙）七年，守臣吴渊言，“万松岭两旁古渠，多被权势及百司公吏之家，造屋侵占……。”<sup>67</sup>

我们已经解释过，约从绍兴末年开，青平山修内司官窑的周围增设了较多官府。淳熙 7年（1180）左右，权势者与官吏几乎霸占了万松岭周围的所有地区，甚至包括古渠。随后，又在那里盖起了房子。可以看出，青平山脚以及万松岭一带已经成为权势者及官吏们的居住地。这种局面维持到了南宋后期，《咸淳临安志》在描述万松岭当时的局面时写到：“第宅民居，高高下下，鳞次栉比”。<sup>68</sup>到淳熙7年（1180）左右，青平山修内司官窑的周围已经不是人烟稀少的地带，而是比较热闹的地方。由此我们可以推测，青平山修内司官窑的消亡以及老虎洞修内司官窑的建立时间应该在淳熙年间（1174~1189）。

66 | 李喜宽：《有关南宋后期官窑的几个问题》，《故宫博物院院刊》，2009年3期，燕京城出版社，第20-21页。

67 | [元]脱脱等撰：《宋史》卷97《河渠志·临安运河》，中华书局标点本，中华书局，1977年，第2400页。

68 | [宋]潜说友撰：《咸淳临安志》卷28《万松岭》，清道光十年钱塘汪氏振绮堂刊本，《宋元方志丛刊》第4册，中华书局，1990年，第3625页。

## 5

## 余言

本文的主要观点是：最初的南宋官窑是青平山脚的青平山修内司官窑，这座官窑于淳熙年间（1174~1189）转移到了老虎洞，这就是老虎洞修内司官窑。根据以往的考证，南宋后期13世纪10年代左右，老虎洞修内司官窑又转移到了望江门内金钗袋巷。<sup>69</sup>综上所述，南宋修内司官窑经历了青平山修内司官窑→老虎洞修内司官窑→金钗袋巷修内司官窑这一演变过程。与多数研究者的观点相同，本人也认为南宋官窑由修内司官窑与郊坛下官窑组成。但是，修内司官窑的演变过程并非像人们想象的那么简单。

几年前，笔者走访杭州进行了南宋官窑址的调查。当时，有幸与几位研究者共进晚餐。餐桌上，人们主要谈论了有关南宋官窑的话题。20世纪90年代以来，杭州有多处出土了南宋官窑型瓷器片与窑具，对此，人们展开了激烈的争论。认为老虎洞窑就是修内司官窑的多数研究者主张这些瓷器与窑具是老虎洞窑址或者郊坛下官窑址生产的。而少数研究者则认为修内司官窑在老虎洞以外其它地区，例如近期出土南宋官窑型瓷器片与窑具的地方。这些研究者进行的争论与纸面上的争论内容近似。但是，笔者注意到，这些学者在进行争论时也持有有一个相同的观点。那就是，他们认为修内司官窑只有一个窑场。笔者根据以往研究韩国陶瓷史的经验，对上述学者的观点产生了怀疑。因为，高丽、朝鲜时代，由于多种原因，搬迁窑场的事例繁多。例如朝鲜时代中期的官窑(分院)几乎以10年为周期更换窑场。<sup>70</sup>从那时起，笔者就开始对南宋官窑窑场的转移产生了兴趣。

本文可以说是对上述话题的小小成果。但是，还有许多问题有待解决。例如，最初修内司官窑的建立时期、建立过程、运营机制等，本文没能涉及到这些领域。笔者将会对这些内容进行后续研究。

| 崔海莲译 |

69 李喜堂：《有关南宋后期官窑的几个问题》，《故宫博物院院刊》，2009年3期，董景城出版社，第20-21页。

70 尹龙二：《朝鲜时代分院의 成立과 变迁研究》，《韩国陶瓷史研究》，文艺出版社，1993年，第437—440页。



---

# 모래그늘서재

---

## 김윤정

용인대학교 박물관 김윤정입니다. 먼저 선생님 논고를 읽으면서 한 번 읽어서는 힘들고 몇 번 읽었습니다. 중국에 계신 2년여 동안 여러 번에 걸친 현장답사와 날카로운 사료 분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인식했던 남송 관요의 가마터 위치, 운영시기, 체제 등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과 시각으로 남송관요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논고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중국 도자사를 공부한다고 하지만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의 논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선생님의 논고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이희관 선생님과 이 자리를 마련한 강진청자 박물관에 감사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선생님께서 발표 중에 계속 말씀하셨지만 섬치(葉底)의 『탄재필형』(坦齋筆衡)의 내용에서 시작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이 남송의 수내사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내요를 노호동요로 보고, 오귀산(烏龜山) 비탈에서 발견된 가마를 교단하요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논고에서는 노호동요 하나만이 수내사관요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수내사관요 중에 하나이며, 기존에 노호동요가 선행, 교단하요가 후행한다는 시각과 달리 교단하요가 선행하고 노호동요가 후에 설립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최초의 남송 수내사요는 노호동요가 아니라 청평산 입구에 최초의 수내사요가 설치되었고, 그 이후에 교단하요, 노호동수내사요가 운영되었다는 시기적인 선후관계를 마지막에 도표로 정리 해주셨습니다. 또 한가지 관심을 끄는 설명이 수내사요와 교단하요의 병렬적 운영 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표에서는 두 가마의 상대적인 선후관계를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원적 또는 병렬적 운영이라는 개념도 처음으로 제기하셨기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품의 기형 비교를 통해 교단하요의 생산품이 노호동요보다 여요와 공통점이 많고, 적어도 시기적인 선후관계에서 북송 여요와 더 가깝다는 것을 조형적인 측면에서 밝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노호동요에서 교단하요로 이행한다는 기존 중국학자들의 견해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어서 한국에서 발표하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도 굉장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자료에서도 노호동요보다 교단하요의 출토품의 기종이 청량사 여요 출토품과 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 자료에는 없었지만 <오리형 향로 뚜껑>도 교단하요와 청량사여요에서는 발견되었으나 노호동요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선생님의 견해처럼 교단하요가 노호동요보다 북송대 여요와 친연성이 강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문에서는 출토품의 기종만 비교대상으로 삼으셨는데 저는 가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호동요와 교단하요는 중국 남방식의 용요(龍窯) 구조이면서 초별구이용으로 말굽형(馬蹄形) 가마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기존 중국 남방에서 없었던 초별구이를 한다는 점과 마제형 가마를 사용한 점이 북송대 여요를 계승하였다는 것은 중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호동요를 한 곳은 장소도 비좁고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학자들은 가마의 크기와 퇴적층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송 황실이 안정되면서 자기의 수요량이 증가하여 가마의 입지조건이 비좁은 노호동요에서 교단하관요로 이동하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선생님의 견해처럼 교단하요가 먼저이고 노호동요가 나중이라는 었다는 것이 적용된다면 기존의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또 한가지는 가마 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남방식 용요는 길이가 40미터 정도 되지만 노호동요는 반도 안 되는 15미터 정도입니다. 교단하요에서 노호동요로 간다고 봤을 때는 시기가 지나면서 가마의 길이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교단하요는 현재 Y1가마(길이 23.5m/1950년대 발굴)와 Y2가마(길이 38m/1980년대 발굴)가 있습니다. 가마의 길이가 긴 것에서 짧은 것으로 변화해 갔다고 했을 때, 교단하요라고 불리고 있는 두 가마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Y2가 앞서고 Y1이 시기적으로 떨어지는데, 특히 Y1가마의 경우는 퇴적층에서 원대의 조질 자기편까지 출토된 것을 보면 남송 후기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Y2가마가 길이 40m정도에 북송대 여요와 비슷한 자기편이 출토되는 것을 보면 남송 초로 비정될 수 있는데 이 두 가마를 동일 시기로 보고 노호동가마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일부 학자중에는 교단하요의 Y1과 Y2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소흥(紹興)19년(1149)에 남송 황실에서 여러 곳에 도자제기를 공납하도록 명했는데, 임안부(臨安府)에서도 도자 제기를 공납했기 때문에 Y2가마가 교단하관요와 관계없이 공요로서 기능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가마에 대한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결국은 남송 초기에 40m 정도의 긴 용요를 사용하다 어느 시점에서 가마 길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마 길이가 언제 짧아지는가에 대한 시기문제는 학자마다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가마 길이가 짧아지면서 환원번조에 유리해지고 불조질이 좀 더 용이해졌고, 자기의 품질이 향상되어서 태는 얇고 유는 두꺼워지는



전형적인 남송 관요 청자가 생산되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송대 가마의 규모가 변화하는 예는 고려 중서부지역의 청자 가마의 길이가 40m 정도에서 강진에서 청자의 질이 향상되기 시작하는 용운리 10-1~4호의 가마 길이가 10m로 줄어드는 것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유색을 내기 위해서 가마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중국이나 고려나 모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즉, 강진 지역에 축조되는 한국식 토축요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가마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남송 관요의 예를 본다면, 좋은 유색과 품질의 청자를 만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가능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점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은 질문이 기도 합니다.

둘째는 관요 운영 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관요의 운영방식을 파악해야 실제 일어난 여러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고 마지막에 있는 설립취지나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하셨지만 논고 곳곳에 운영 체제에 대해 언급하셨으니 질문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병렬 혹은 이원적 운영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동시에 운영되었다는 의미인데, 이 부분은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관요 운영의 실제적인 관리자의 성격과 신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탄재필형』의 내용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소성장, 즉 소악을 대표하는 내시집단인 소국이 수내사가마를 설치하고 후에 교단하에 신요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저는 두 집단이 모두 내시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 남송 관요의 운영이 모두 내시(소국)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왜 수내사에도 설치하고 교단하에도 설치해서 병렬적 또는 이원적으로 관요를 운영했을까?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논고에서 남송 『함순임안지』(咸淳臨安志) 청기요조(靑器窯條)를 근거로 하여, 남송 후기에 청기요가 “용무영산상과 원단좌우(雄武營山上 園壇左右)” 두 곳에 위치했고, 용무영산상에 설치되는 가마는 수내사와 관련 있다고 보셨는데 운영 시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이원적 운영의 시점에 대해서도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설치의 『탄재필형』과 『탄재필형』을 베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천(顧文薦)의 『부회잡록』(負暄雜錄)을 보면, 북송 수도에 설치된 요는 관요, 남송의 수내사는 내요, 교단하에 별도로 설치된 신요는 다시 관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논고에서는 수내사요와 교단하하요를 모두 관요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럼 문헌에 보이는 내요와 관요를 동일한 의미로 보셨는지가 궁금하고, 왜 문헌에서

내요와 관요를 구분해서 썼는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남송 관요를 북송 관요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최근 발굴 조사된 장공항요의 실제 운영시기(여요와의 선후관계)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남송관요를 말할 때 북송대 마지막 관요가 언제까지 운영되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공항요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희관**

김윤정 선생님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단 하관요의 Y2와 Y1의 선후관계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남송관요의 운영체제와 관련된 문제로서, 과연 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가 병렬적으로 운영되었을까, 어째서 후원(後苑)의 동일한 관리체제 아래서 두 군데의 관요를 설치하였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세 번째는 근래 발굴된 여주 장공항요와 북송관요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남송관요의 본질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답은 김윤정 선생님의 설명 안에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보충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Y1(1956년 발굴)과 Y2(1985-6년 발굴)에 대한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발굴자들이 Y1이 시기적으로 앞서고, Y2가 뒤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단하관요지가 전면 발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또 다른 요로(窯爐)가 발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단하관요지의 작업장의 하층부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층의 유물과 유적의 상황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Y2가 교단하관요의 가장 이른 시기의 요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다만 이미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이어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Y1과 Y2의 운영시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Y1과 Y2는, 김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기에 운영된 요로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선후로 연결된 요로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 격차가 당연히 나는 것입니다. Y2가 대략적으로 이해하면 1160-70년대쯤 교단하관요가 설립될 때부터 시작하여 대략 13세기 초반쯤까지 운영되고, Y1은 이때에 설립되어 남송이 멸망할 때까지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출토되는 유물들의 기형과 제작방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Y2가 운영되던 시기에는 주로 후태박유(厚胎薄釉), 즉 태토가 두껍고 유층이 얇은 청자들이 주로 제작되었고, 굵은 대체로 외반된 권족(圈足)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법에 있어서도 내화토를 받쳐서 소성한 것, 즉 점소(點燒)한 것보다는 지징(支釘)을 받쳐서 소성한 것, 즉 지소(支燒)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교단하관요의 초기에 여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유약의 색깔도 전형적인 남송관요청자에서 보이는 분청색(粉青色)보다는 청록색이나 청회색 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Y1이 운영되던 시기에 제작된 제품들은 박태후유, 즉 태도가 얇고 유층이 두꺼운 것들이 많고 굵은 끈바로 선 권족(直圈)이 주를 이루며, 점소(點燒), 즉 굽다리바닥에 내화토를 받치고 소성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색은 분청색의 비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기종적인 측면에서의 큰 차이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요에서 흔히 발견되는 연판문향로, 삼족반이라던가 세경병 등이 교단하관요의 전기(Y2가 운영되던 시기의 층위에서는 출토되지만, 후기(Y1이 운영되던 시기)에는 전혀 출토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Y2와 Y1이 선후로 연결된다는 판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Y2가 교단하관요의 전기, Y1이 교단하관요의 후기에 해당하게 되겠지요.

다음은 요로의 길이 문제입니다. 남송 초기에는 월요의 영향으로 대형 가마를 축조하였습니다. 교단하관요의 Y2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37.5미터입니다. 교단하관요의 후기에 축조된 Y1은 23미터 정도로 길이가 크게 축소됩니다. 노호동요에는 15미터 정도의 가마가 축조됩니다. 그렇지만 노호동요는 지형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예외적인 곳입니다. 노호동요지를 답사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요는 매우 협소한 계곡의 끝머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도저히 요장이 위치할 곳이 못됩니다. 그러므로 노호동요의 요로의 길이가 길지 않은 것은 그러한 특수한 지리적 조건에도 기인하는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송시기의 요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짧아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갑자기 알 수 없지만, 김 선생님이 언급한 것처럼, 보다 높은 품질의 청자를 생산하려는 목적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로가 짧으면 아무래도 불의 조절 등이 용이했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남송관요가 처음 건립되었을 때는 수내사관요한 곳이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또 하나의 신요, 즉 교단하관요가 설립된 것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산량이 분담되면서 각 요장의 생산 규모도 작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원인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남송관요의 생산규모와 형태가 일반적인 요들과는 사뭇 달랐다는 점입니다. 노호동관요의 경우를 보자면, 자편퇴적갱(瓷片堆積坑) H3과 H2에서 출토되는 기종과 H7, H8, H20 등에서 나오는 기종이 크게 다릅니다. 즉 어느 시기에는 어떤 기종을 집중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병을 예로 들면, 이 기종은 H3에서만 출토됩니다. 그리고 생산량 또한 많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량 자체가 소규모였던 관계로, 요로를 크게 축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불 조절이 편한 짧은 가마를 후반기로 갈수록 많이

만드는 경향이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요의 운영체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수내사관요나 교단하관요를 운영하는 것은 후원(後苑)이었습니다. 후원은 정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후원제작소(後苑製作所)를 줄여서 부른 것입니다. 주로 황실의 결혼 때 입는 옷이나 장식들을 주로 만드는 곳이죠. 여기에서 김 선생님이 제기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원이라는 한 기관에서 관요를 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의 두 곳의 관요를 병렬적으로 운영했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혹 수내사관요가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이 요가 폐기되고 이어서 교단하관요를 설립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남송관요가,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원적인 체제가 아니고 일원적인 체제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견해인데, 이러한 이해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문헌기록에 따르면, 그러한 이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탄재필형(坦齋筆衡)』의 기록을 보면, 후원에서 먼저 내요, 즉 수내사관요를 설립하고, 후에 교단하관요를 설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각별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교단하관요를 설립한 것을 두고 『탄재필형』에서 “별립신요(別立新寮)”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별립(別立)”은 말 그대로 “별도로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존의 요가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요를 설립한 것이지요. 기존의 요가 수내사관요이고 새로 설립한 요가 교단하관요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렬해 있었는가 하는 점은 남송관요의 전개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로서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일정한 기간 동안 병렬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남송관요와 관련된 가장 사료적 가치가 높은 『탄재필형』의 기록에 따르면 말입니다.

남송관요와 관련된 또 다른 문헌이 있는데, 『부원잡록(負原雜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남송관요와 관련하여 수내사관요를 “내요(內寮)”, 교단하관요를 “신요(新寮)”라고 하고 이 신요를 역시 “관요(官寮)”라고 하였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기록의 내용에 따르면 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이야기가 되므로, 혹 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가 성격에 있어서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까지의 이해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내사관요를 내요라고 부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교단하관요입니다. 기록에서는 수내사관요, 즉 내요를 설립한 후에 교단하에 “신요”를 설립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교단하관요의 정식 명칭이 “신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요”는

교단하관요의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요”, 즉 새로 설립된 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뒤이어 나오는 “비구요대불모의(比舊黨大不作矣)”, 즉 “구요에 비해 크게 다르다(구요에 비해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의 의미)”고 한 대목에 나오는 “구요(舊黨)”와 대비된 개념입니다. 물론 이 구요는 수내사관요를 의미합니다. 즉 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 모두 “내요”이며, 『부원잡록』에서 설립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먼저 설립된 수내사관요는 “구요”로, 나중에 설립된 교단하관요는 “신요”로 언급하였을 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원잡록』에 대하여 약간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남송말기에 고문천(顧文薦)이란 사람이 편찬한 책입니다. 문제의 남송관요와 관련된 대목의 내용은 섭치(葉齊)가 쓴 『탄재필형』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정지엔화(鄭建華) 선생의 견해에 따르면 『탄재필형』은 1212년을 전후한 시기에 쓴 것이기 때문에 고문천은 탄재필형을 베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게다가 베끼면서 몇 대목에서 자기가 개작을 했습니다. 한 예로 교단하에 별도로 신요를 설립하고 “역알관요(亦曰官黨)”, 즉 “역시 관요라 불렀다”는 구절은 『탄재필형』에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적어도 남송관요와 관련하여 『부원잡록』은 사료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그에 앞서서 『탄재필형』인 것입니다.

동일한 후원에서 왜 두 개의 관요-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를 운영하였을까 하는 점은 저 역시 의문이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 각 요에서 만든 기종이 달랐든지, 관리장부가 달랐든지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관요 운영의 인력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한 부분인 잡역(雜役)을 담당하는 병사들의 소속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수내사관요에서의 잡역은 수내사 소속의 병사들이 담당하였지만, 교단하관요의 경우는 팔작사(八作司)의 병사가 담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내사관요나 교단하관요나 모두 후원의 관할 하에 있었지만, 잡역의 측면에서 수내사관요는 수내사가, 교단하관요는 팔작사가 관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왜 그 두 관요를 운영하였는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알려주시면 다음에 논문 쓸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장공항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공항요가 2004년에 발굴되고 그 해 5월에 장공항요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장공항요에서 출토된 대단히 높은 품질의 자기편들을 실견한 연구자들 가운데, 상해박물관의 왕칭정(汪慶正) 부관장을 비롯한 대다수가 장공항요가 곧 북송관요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 북경대학의 친마수(秦大樞) 교수를 비롯한 소수의 연구자들만이 그것이 북송관요가 아니라 금대나 원대에 여요를 방제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냈을 뿐이다. 저도 두 차례에 걸쳐 장공항요 출토 자기편들을 조사하고 아울러 장공항요의 성격에 대하여 발굴자인 하남성문물고고연구소의 쑤신민(孫新民) 소장과 궈무선(郭木森) 연구원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장공항요에 대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장공항요가 북송관요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공항요 출토품은 기종과 기형 및 소성공예 등의 측면에서 청량사여요와는 크게 다릅니다. 청량사여요에서 출토된 많은 기종이 장공항요에서는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연판문항로, 삼족반, 육각투합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기종들이 교단하관요에서는 출토되었습니다. 기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추병(紙錫瓶)으로 부르는 반구병의 경우, 청량사여요지에서 출토된 것들은 모두 구부가 반구형이며, 저부가 평저입니다. 반면에 장공항요 출토품은 모두 구부가 평구형이며 저부 또한 권족입니다. 완이나 세(洗)의 저부의 경우도 청량사여요 출토품은 대부분이 외반된 권족인 반면, 장공항요 출토품은 직권족(直圈足)이 주를 이룹니다. 태토의 경우도 청량사여요 출토품은 대부분이 이른바 “향회태(香灰胎)”로 부르는, 회백색인 반면, 장공항요의 경우는 백태(白胎)가 많습니다. 유색의 경우도 청량사여요 출토품은 천청색이 주를 이루는 반면, 장공항요 출토품에는 이른바 “담분청색”을 띠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송관요는 당시의 최고 품질을 자랑하던 청량사여요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장공항요가 북송관요라면, 이러한 현상, 즉 장공항요 출토품과 청량사여요 출토품의 기종, 기형, 소성공예 상의 커다란 차이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요컨대 장공항요는 청량사여요와는 다른 자기제작전통을 이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장공항요 출토품은 남송관요 출토품과도 비교해 보아도 청량사여요와 비교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공항요가 북송관요였다면, 북송관요의 자기 전통을 이은 남송관요의 양상은 당연히 장공항요 출토품의 양상과 유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교해 보면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도 장공항요를 북송관요로 이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청량사여요를 기준으로 보면, 장공항요는 적어도 교단하관요의 전기(前期) 제품보다 시기적으로 약간 늦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대략 금대 중기 이후에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공항요 출토품의 품질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장공항요의 품질이 여요나 남송관요의 그것보다도 높다고 여길 정도입니다. 이러한 장공항요가 품질이나 제작기법

등으로 미루어, 제가 보기에는 이 요가 단지 汝窯를 倣製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장공항요는 관요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현재 저는 장공항요가 북송관요가 아니라, 역사 기록 속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금대관요(金代官窯)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 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 답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수내사에서 했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선생님 말씀대로 병렬적, 이원적 운영을 했을텐데 그렇다면 선생님은 그 시점을 어느 정도 시기로 생각하시는지를 답변에서 빠뜨리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탄재필형』에 '교단하요의 자기가 수내사요의 자기에 비해서 질이 좀 좋지 않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설치가 13세기 초에 『탄재필형』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설치가 보기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접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한 것인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호동 관요가 수내사 최초의 관요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내사관요이고 노호동요는 교단하요하고 다른 기종도 있지만 겹치는 기종도 많다고 하셨는데 기종 분류에서 교단하요는 특정 기종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희관** 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에서 특정한 기종을 제작하였을 가능성은 제가 언뜻 떠올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을 계속 견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편, 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가 병렬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시기는 곧 결국 교단하관요의 설립시기와 맞물려있는 문제입니다. 교단하관요가 설립되면서 수내사관요와 교단하관요가 병렬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사실 교단하관요의 설립시기에 대한 결정적인 문헌자료나 실물자료는 없고, 다만, 교단하관요지에서 출토된 발(鉢)의 저부에 "기해(己亥)"라고 쓰인 명문이 있습니다. 이 발은 교단하관요의 전기 제품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기해년은 1179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교단하관요는 1179년 이전에 설립되었고, 병렬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시점도 1179년 이전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시기는 좀 더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재필형』에 보이는, 교단하관요의 품질이 수내사관요의 품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절강성문물고고연구소의

선위에명(沈岳明) 연구원도 이 점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노호동요의 출토품을 관찰하면, 자편퇴적갱(瓷片堆積坑) H20과 H22에서 출토된 것들만 전형적인 남송관요의 양상과 유사하게 정세하게 제작되고 아울러 유색도 분청색을 띠고 있을 뿐 나머지 자편퇴적갱에서 출토된 것들은 품질이 비교적 떨어지고 유색도 분청색이 아닌 청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주문물고고소의 장위란(張玉蘭)같은 연구자는 노호동요 출토품이 교단하관요 출토품보다도 품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그녀가 노호동요가 수내사관요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교단하관요의 품질이 수내사관요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 것이 『탄재필형』의 저자인 섭치(葉訖)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거한 것인지, 아니면 남송 시기의 일반적인 인식이 그러하였는지도 잘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의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지만 대략적인 다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의 저의 인식입니다. 그 하나는 그러한 판단이 섭치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판단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섭치가 지목한, 교단하관요보다 품질이 좋다고 한 수내사관요가 노호동수내사관요가 아니고 청평산수내사관요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청평산수내사관요지가 발견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추후에 좀 더 논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정**

질문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수내사관요의 첫 가마터를 찾으면 많은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장남원 선생님은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장남원**

앞의 질의자께서 발표내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와 관련하여 관심의 범위를 넓혀보면 남송관요에 대한 연구는 결국 송대 관요 전반과 고려와의 연관성 등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앞의 질문자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록상 북송관요로서 알려진 가마로는 북송대 청량사 여요를 떠올리지만 선생님께서는 여요(汝窯) 외에 별도의 북송관요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오신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여요는 하남성 임여현(臨汝縣)의 방대한 민窯들 가운데 일부에서 관요풍 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수도였던 개봉(開封) 인근에 관요기를 굽는 가마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남송관요가 처음 설립되면서 모델로 삼은 것은 북송대 “관요”였을텐데 그 때의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느 가마였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송이 1126년에 정강의 변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항주에 바로 도읍을 했던 것은 아니며 양극(陽州)에 잠시 머물렀다가 임안을 거쳐 항주에 정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1130년대 이후가 되어야 항주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가마를 운영하게 되는 상황이 가능하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말씀대로 그 때쯤 항주의 청평산 가마가 설치되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밀(周密, 1232-1298)의 〈무림구사(武林舊事)〉를 보면 발표자가 주장한 바 이미 청평산 요지가 건립되고 또 노호동으로 이전했다고 여겨지는 1150-70년대에도 여전히 송황실의 汝窯에 대한 애호가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항주에 관요로서 교단하관요나 노호동 일대에 가마가 운영되고 있던 시점에 황실에서는 여전히 여요를 애호한다든가 여요를 바쳤다든가 하여 “여요”의 명칭이 나옵니다. 이때 말하는 여요가 북송의 것인지 아니면 남송에서 그것을 본떠 만든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남송관요라고 우리가 말하는 초창기의 가마는 무엇을 모델로 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남송관요의 이른바 ‘신성예기(新成禮器)’ 모델은 여요였는지요? 하지만 가마구조나 기물의 조합에서 분명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께서는 앞서 교단하관요와 노호동요지 출토 기물들을 층위상 차이점과 유사점을 들어 북송여요와 비교하고 또 각 지역 유물들의 양식 및 형식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은 여요와 비슷하고 어떤 것은 아예 없다가 월주 양식이 나타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절강성 용천요(龍泉窯)에서만도 대요(大窯)나 계구요(溪口窯) 부근 10여 곳에서는 오대부터 남송에 이르는 관요타입의 고급 청자들이 번조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후태박유(薄胎厚釉)나 제기풍(祭器風)으로 제작한 것들이 발견되어 이것을 학자들은 “유관요(類官窯)”라고도 합니다. 또 자계의 고은정호나 두백호 인근 요장들 가운데도 유사한 질과 양식을 띠는 것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한 역시 남송대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남송관요는 북송대 관요의 기술적 조형적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그 요업의 중심이 남방으로 옮겨지면서 기존의 절강성 일대 요장들의 요업활동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들으면서 전적으로 남송관요가 그 연원을 북송에 두었을까? 절강 지역에서 북송때부터 북송의 공자(黃庭堅)를 만드는 요업의 뿌리가 있었다면 그 가운데 남송관요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남송관요 제품의 조형 및 기술적 체보 자체가 단일하지 않고 중층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요 기종을 여요와 저령두 유형, 노호동, 교단관요를 중심으로 존재 유무과 형식의 차이로 비교하면서 기종에 따라 각각 그 조형연원을 달리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로간에 시간적 차이외에도 요업계통 내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며, 또 실제로 위 가마들의 기종과 양식분석에서 그같은 변화 요인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 예로 협층완을 보여주셨는데, 협층완(夾層碗) 이라고도 하는 이 경우, 몸체가 두 겹으로 되어 온기(溫器)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자계시박물관에서 한 두 점 본 것 같습니다. 이미 북송대 이래 자계 일대 월주요장에서 생산되는 전통 기형입니다. 그밖에도 월주요의 전통과 북방요지의 특징들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송과 기형간의 유형을 분류하고 조형의 연원을 따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관요기다, 남송대 제품이다, 북송에서 내려와서 새로 시작했다 등등 지역적 중심의 변화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절강지역에 오랫동안 잠재되어있는 요업 전통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단지 시간적인 흐름으로 북송의 여요와 남송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절강지역과의 연관성도 그 변화요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특성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호동요지의 등요에 관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요상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가파르고 수평이 아니며, 그 측면도 바로 산의 사면으로 급격하게 경사져 보입니다. 또 전후좌우를 보아도 번조와 그에 따른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노호동 요지를 보신 분들은 동감하시겠지만 나중에 원대에 가마를 새로 짓게 되면서 가마가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가마입지로는 부적절합니다. 요상(窯床)은 수평이 안 맞아 중심이 거의 옆으로 미끄러질 것처럼 기울어져있고 바로 옆은 경사도가 거의 50° 이상의 산비탈로 연결됩니다. 좁기도 하지만 앉아서 불을 뿜 수 있을지도 의문인 궁색한 상황입니다.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 중국 연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교단관요와의 관계에서, 선생님 주장대로 노호동이 청평산-교단에 이어

다음단계에 설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시시기와 하한은 서로 다를 수 있지 않겠는지요? 적어도 교단과 노호동에서는 모두 원대 층위까지 확인되었고 교단에서는 도침에 파스파 문자가 씌여진 예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원대까지 작업이 지속되었다는 말인데, 가마의 구조로 볼 때 어떤 작업기술적 변화과정을 거친다고 보는지요? 앞의 질문자는 긴 가마에서 짧은 가마로의 이행이라고 보았지만, 하한이 비슷하거나 다른 경우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 있지 않은지요? 우리나라의 강진에서 발견된 백 여개의 가마와 비교해 이러한 굉장히 적은 불과 몇 개의 가마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노호동 발굴을 기념한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는 이가치(李家治), 두정현 등이 함께 작성한 남송관요 관련 과학적 분석과 이를 토대로 가마터간의 상관관계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물론 논지는 오늘의 발표자와는 다른 것이지만 참고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즉, 교단관요, 노호동 요지의 남송대층, 노호동 요지 원대층, 만송령 일대 지표수집품 등 4개의 그룹 자편에 대한 비교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태토의 경우 노호동 남송층위 파편이 가장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치 자금토와 자토가 한 곳에서 채굴되어 배합된 것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교단관요 파편은 산만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다른 그룹들에 대한 분석 역시 폭넓은 속성을 보입니다. 즉 교단하관요 지역은 태토 부분에서 속성의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태토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교단하관요의 파편, 즉 남송대 초기 파편들이 가장 폭넓은 속성을 가지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약 역시 노호동 남송층위와 교단관요가 일부 겹치지만 역시 교단관요가 더 산만한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보고자들은 노호동요지를 수내사요라고 전제했으므로 이같은 균일한 태토와 유약의 집중도를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했던 것입니다.

즉, 선생님과 반대로 노호동이 앞에 설립된 수내사교 교단이 나중에 別立된 관요라고 보고 시간적으로 더 집중도 있게 잘 만들어진 질 좋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해석의 차이지만 과학적 분석치의 속성비교는 문헌상의 기록이나 육안감정을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발표자는 지금까지 제시된 이들 분석치에 대한 비교를 시도한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이해하는지? 조형적 비교를 주로 하셨는데 방법론상으로 이러한 과학적인 비교가 병행된다면 보다 설득력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파편들 가운데는 박태후유(薄胎厚釉), 흑태후유(黑胎厚釉),

후태박유(厚胎薄紬), 후태후유(厚胎厚紬) 등 태도와 유약간의 관계가 양식적인 부분과도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기형상 심혈을 기용인 것들이 나타나고 다차시유(多次加紬) 등 다양한 기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계(窯系)보다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고 그것을 역사 혹은 미술사적으로 결합시켜 해석해 주면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궁금한 것들이 있지만 시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진행자**

조금 더 했으면 집에 못 갈 뻔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세 번째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관**

첫 번째 질문은,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남송관요의 요업 전통을 여요 및 북송관요와 관련시켜 파악을 하는데, 절강지방의 요업전통이 남송관요에 미친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두 가지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 하나는 용천요의 이른바 유관요(類官窯)로 일컬어지는 흑태청자(黑胎靑瓷)의 위상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계시 고은정호반의 남송 초기요지에서 출토되는 이른바 저령두유형(低嶺頭類瓷)과 남송관요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남송관요뿐 아니라 송대관요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남송초기에 장작(莊棧)이 편찬한 『계특편(鷄肋編)』의 기록에는, 북송의 선화(宣和)연간(1119-1125)에 용천요가 “제양수색(製機須索)”의 요가 되면서 품질이 더욱 좋아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용천요가 이미 북송말기에 상당히 높은 품질의 청자를 생산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대목이 신빙성이 높다면, 이러한 용천요의 청자들이 남송관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발굴성과에 따르면, 북송말기의 용천요 청자의 품질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흑태청자와 같은 높은 품질의 용천요 청자는 모두 남송중기 이후에 제작된 것들입니다. 『계특편』의 이 대목은 사료적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대목에서 비색자의 산지를 월주요가 아닌, 용천요라고 한 것을 보아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기록보다는 남송중기에 편찬된 『백보총진집(百寶總珍集)』에 나오는 기록이 더 정확한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수내사관요가 설립된 이후에 이 요의 기물을 방제한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모두 용천요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용천요의

흑태청자와 같은 높은 품질의 제품들은 남송관요 제품을 방제한 것이 되며, 이것이 현재까지의 고고발굴성과와도 부합합니다. 요컨대, 용천요가 남송관요에 영향을 미쳤다고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남송관요에서 용천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저령두유형(低嶺頭類型)의 문제인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천청색의 비교적 두꺼운 유약이 입혀진 이른바 “관요형산품(官窯型產品)”이 남송관요의 기술적 원류와 관련하여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령두유형의 관요형산품과 남송관요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관요형산품이 청량사여요와 북송관요의 양상과 유사하며, 남송관요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것으로서, 이것이 남송관요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입니다. 선위예밍(沈岳明), 루밍화(陸明華), 조우샤오화(周少華) 등이 이 견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연구자입니다. 또 하나는 저령두유형의 관요형산품이 시기적으로 남송관요에 뒤지는 것으로서 전자가 후자를 倣製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북경대학의 취엔쿠이산(權奎山) 교수가 이러한 견해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과연 관요형산품의 연대가 남송관요에 앞서는가 뒤지는가 하는 점으로 귀결되는데, 아직 저령두유형을 제대로 검토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확실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올 겨울 자체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저령두유형 관요형산품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조사 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견해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첫 번째 견해의 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견해의 주요한 근거는 『송회요집고(宋會要輯稿)』와 『중흥에서(中興禮書)』에 함께 실려 있는, 소흥(紹興) 원년(1131)과 4년(1134)에 명당대례(明堂大禮)에 사용할 도기제기(陶器祭器)를 소흥부 여요현에 명령하여 제작하게 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이 제기가 곧 관요형산품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작하게 한 제기는 보(簋), 궤(簋), 존(尊), 회(爵) 등이었으며, 주로 『삼례도(三禮圖)』에 의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요형산품에는 이러한 『삼례도』에 보이는 제기형 기물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원인이 당시에 제작하게 한 제기가 자기가 아니고 도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령두유형의 요지에서 그러한 기물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곧 구체적인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송회요집고』와 『중흥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관요형산품의 연대를 남송관요에 앞서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남송관요의 요업 전통과 관련하여 여요와 북송관요와의

관련성을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남송관요와 북송관요를 구별하여 부르지만 남송시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북송과 남송은 다른 왕조가 아니고 송이라는 동일한 왕조였으며, 남송시기에 건립한 관요도 북송시기의 관요와 다른 존재로 인식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수내사관요의 건립은 북송시기의 관요를 재건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남송의 고종은 북송의 전통의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인 휘종대의 전통을 특히 중시하였습니다. 그가 휘종대에 성립된 이른바 “신성예기(新成禮器)”를 복구하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인 것만을 보아도 그러한 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종대에 세운 것이 수내사관요입니다. 그러므로 수내사관요의 모범은 당연히 북송관요였을 것입니다. 최초의 수내사관요인 청평산수내사관요지가 발견되지 않아서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양상은 북송관요와 유사했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도 많은 연구자들이 남송관요가 절강지방의 요업전통, 특히 월주요의 전통을 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양자는 기형과 제작기술적인 측면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요와 북송관요, 즉 북방지역의 요업전통을 이은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태토의 주성분인  $\text{SiO}_2$ 와  $\text{Al}_2\text{O}_3$  성분의 함량을 보면 그것은 전통적인 월요의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여요와 같은 북방지역 요장의 그것과 흡사합니다. 그 밖에 초별구이법을 채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노호동요와 교단하관요의 태토 산지의 집중성과 분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노호동요의 태토는 그 원료를 어느 극히 한정된 곳에서 채취하였고, 교단하관요의 경우는 비교적 분산된 지역에서 원료를 채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자들은 이것을 두 요의 운영시기와 관련시켜 해석하였습니다. 즉 집중도가 높은 노호동요가 시기적으로 앞서고 분산된 교단하관요가 뒤지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중성과 분산성에 대한 실험 데이터는 정확한 것이겠지만, 그 데이터가 과연 두 요의 운영시기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노호동요의 태토원료 채취지는 바로 요지의 남쪽모서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토와 자금토가 혼합되어 있는 원료를 채취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집중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교단하관요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교단하관요지의 주위에는 자토는 생산되지만, 자금토(紫金土)의 산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교단하관요의 흑태청자의 태토에 포함된 자금토는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토 산지의 분산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태토를 어느 집중된 곳에서

채취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여러 곳에서 채취하게 되었다고 실험자들이 파악한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노호동요지의 Y1으로 분류된 용요(龍窯)가 과연 실제적으로 요로였을까 하는 점과 요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남송시기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현재의 Y1의 현상을 보면 봉통부와 소성실의 일부만 노출되어 있고 그 뒷부분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굴자는 이 요를 길이 약 15미터의 용요로 파악하였는데, 문제는 이 요의 뒷부분의 지형이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제가 보기에도 과연 이곳에 용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부분의 급한 경사도는 산사태 등으로 후에 생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로의 노출된 부분으로 미루어 이곳에 용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로의 규모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송시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남송관요지의 특수한 상황이었는지는 좀 더 많은 남송시대 요지 자료들의 집적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보충설명을 원하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분석적인 내용이 나와서 분석전공하신 강경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원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교단 하관요와 수대사관요의 분석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송대, 남송대 시기별 각각 가마들간의 차이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경인

제가 중국 도자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발표 중에 보여주신 원료의 사진을 보니까 호를 파고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자계통의 원료가 아닌 백자계통의 1차 점토로 보입니다. 청자계통은 보통 퇴적점토이기 때문에 호를 파고들어가지 않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호를 파고들어간 것은 북송시대보다 남송시대의 것이 훨씬 태토의 색이 밝아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중에 자토, 자금토라는 것이 있는데 자토개념은 알겠지만 자금토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진행의 개념입니까? 색상의 개념입니까?

**이희관** 색상의 개념입니다. 보라색으로, 철분이 10% 가까이 섞여 있습니다.

**강경인**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원료 개념은 1차점도입니다. 자토는 백색이 좋은 것이고, 자금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하동 백색 고령토가 있고 핑크색 고령토가 있는 경우와 비슷한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러한 것이 섞여 있어서 청자에 회색빛을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의 원료 분석결과는 제가 일부만 알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질** 갑자기 질문 드렸는데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10여분 남았는데 방청객에서 질문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후락** 북송시대의 여요는 여요 또는 여관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대 선덕시기에 기록된 『선덕정어보(宣德鼎齋譜)』에서는 송대의 여요와 관요를 별도로 구분하였고, 후대의 사람들이 이책을 중요한 근거로 하여 송대의 5대명요를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왜 관요라는 명칭을 별도로 다루었을까요? 이것은 북송과 남송시대에 관요의 성격이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송대에 와서 내요, 관요의 명칭이 별도로 등장한 것은 이 시대에 와서 비로소 완전한 황실전용의 관요가 독립운영이 시작되어 고유명사가 된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의 내용은 청대의 남포가 쓴 『경덕진도록』과 현재의 저술가인 주유평이 쓴 『원대청화자』에서 일부 언급한 것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남송관요의 병렬운영에 관한 일단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질문 드립니다.

**이희관**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선덕정어보(宣德鼎齋譜)』에는 명대의 내고(內庫)에 시요(柴窯), 여요(汝窯), 관요(官窯), 가요(哥窯), 균요(鈞窯), 정요(定窯) 등의 기물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을 두고 6대명요로 일컫기도 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관요”는 남송관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북송시기에도 관요가 있었으므로 혹 북송관요자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문헌에서 흔히 말하는 관요는 남송관요, 그 가운데에서도 남송수내사관요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주유평



선생의 저서에 황실전용의 관요를 설립한 것은 남송대에 접어든 이후의 일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느 문헌에 나와 있는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주유평 선생의 독자적인 해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의 문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사 있다고 하더라도 『탄재필행』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는 한, 북송시기에 이미 관요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 그것이 주유평 선생의 견해라면, 아마도 그가 북송 관요를 여요로 파악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여요는 황실 전용의 관요는 아니었으니까요.

#### 진행자

한 가지만 더 질문해주시죠.

#### 이종민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도 초반쯤 노호동요 발굴이 끝날 즈음에 현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퇴적갱의 깊이가 굉장히 얇았고 파편수가 상당히 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희관 선생님께서는 퇴적갱의 성격이 파편을 버리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파악하시는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께서 요지에 대해 공부하신 상황이라 관련 내용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남송대의 여러 관요들을 보면 초벌행위가 상당히 보편화된 경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선생님은 논문에서 고려청자의 초벌관련 과정을 다루신 적이 있지요. 오늘 발표에서는 남송에서도 비교적 앞선 시기를 다루고 계신데 남송에서도 시기가 좀 떨어지는 수내사 관요를 비롯해서 교단요에서 보편화된 초벌의 원류가 북송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북송에서부터 왔다면 중국은 어느 단계부터 초벌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지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이희관

노호동요지의 자편 퇴적갱은 송대 층위에서만 보이고, 원대층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편 퇴적갱의 개념은 본래 경덕진 명대 어요창에서의 잔차품(殘次品)의 처리방식에서 비롯된 개념인데, 어용품의 기준에서 탈락한 제품들이 민간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덩이를 파고 그것들을 깨뜨려 묻었습니다. 노호동요지의 자편 퇴적갱은, 이종민 선생님이 지적한 것처럼, 깊이가 매우 얇은 편입니다. 가장 깊은 H3의 경우가 0.45미터 정도이고 0.15미터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명대 어기창(御器廠)의 선덕(宣德)연간의 자편

퇴적갱의 경우도 깊이가 0.12~0.3미터 정도로 깊이가 얕습니다. 다만 노호동요지의 자편 퇴적갱과 경덕진 어기창의 그것의 중요한 차이는 후자가 모두 인공으로 구멍이 판 데 반해서 노호동요지의 경우는 일부는 인공으로 판 것이지만, 일부는 자연적으로 있던 움푹 파인 곳을 약간 손질하거나 그대로 퇴적갱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노호동요지의 자편퇴적갱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경덕진 어기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낙선품들이 일반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견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노호동요지의 특수한 지형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노호동요지는 봉황산과 구화산 사이의 좁은 계곡의 서쪽 끝부분에 있는데, 요장이 입지한 곳이 비교적 높고 아울러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에 요장이 있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Y1은 초별구이요와 작업장의 바로 옆에 있고 그 오른쪽은 경사가 급한 산자락이기 때문에 용요의 좌우편에 폐기물을 버릴 공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요장의 협소함 때문에 잔차품을 처리할 마땅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요장의 움푹 파인 곳 등에 약간의 손질을 가하여 구멍이를 만들고 그것들을 묻은 것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견해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 후자의 경우는 약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노호동요지의 동쪽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요장의 서쪽과 남쪽과 북쪽은 모두 봉황산과 구화산으로 막혀 있지만, 동쪽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사용하는 데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편 퇴적갱에서 출토된 유물의 대부분이 자편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요장의 경우 폐기물의 대부분은 갑발 등을 비롯한 요도구들이고, 자편은 매우 적습니다. 이 점을 중시하면 노호동요의 퇴적갱은 자편을 처리하기 위한 곳이었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잔차품을 처리하는 방식과 요도구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뜻이지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는 노호동요의 자편 퇴적갱이 경덕진 어기창의 그것처럼 규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관요나 어요(御窯)의 자편 퇴적갱의 초기적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별구이가 중국의 북방지역의 요장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것은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북방지역의 요장에서 일찍부터 唐三彩와 같은 초별구이를 이용한 도기의 소성이 유행하였다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삼채의 초별구이법을 자기의 소성에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점이지요. 늦어도 오대시기에 접어들어 요주요에서는 자기의 소성에 초별구이법을 이용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강남지역에서는 초별구이법의 채용이

북방지역보다 늦습니다. 남송시기에 접어든 이후에 저령두유형의 요장과 남송관요에서 초별구이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저령두유형과 남송관요 가운데 어느 쪽이 시기적으로 앞서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견해가 갈려 있기 때문에 강남지역에서 가장 먼저 초별구이법을 채용한 요장이 저령두유형의 요장인지 남송관요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강남 지역의 초별구이법이 북방지역에서 채용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남송관요나 용천요에서 발견되는 초별구이요가 모두 북방식의 만두형 가마구조였던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

강지침자 박을환 숭실대학교 인문자료집

---

南宋前期의 官箴에 대한 새로운 理解

---



## 南宋後期の 官窯에 관한 몇 가지 問題

李喜寬 | 西江大 講師

1

前言

2

「咸淳臨安志」 青器窯條에 대한 解釋

3

“雄武營山”과 南宋官窯

4

“雄武營山上”官窯와 修內司官窯 및 郊壇下官窯

5

南宋後期の 修內司官窯

—그 成立時期와 成立原因—

6

餘言

1

前言

최근 10여년간 중국도자사연구에 있어서 南宋官窯 문제만큼 큰 주목을 받아온 분야도 드물 것이다. 2002년 11월 15일~17일 杭州에서 “2002中國杭州南宋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가 열리고,<sup>1)</sup> 남송관요와 老虎洞窯 관련 전문논문집인 『南宋官窯文集』<sup>2)</sup>과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sup>3)</sup>이 각각 2004년 7월과 11월에 간행되었으며, 그밖에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남송관요에 대한 연구의 열기는 1998년 5월~12월과 1999년 10월~2001년 3월의 두 차례에 걸친 老虎洞窯址에 대한 전면발굴에 힘입은 바 크다.<sup>4)</sup>

老虎洞窯를 중심으로 한 남송관요에 대한 연구는, 老虎洞窯의 성격, 老虎洞窯와 修內司官窯의 관계, 修內司官窯의 성립시기, 修內司官窯와 郊壇下官窯의 영향관계, 老虎洞窯 생산품의 용도 문제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sup>5)</sup>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老虎洞窯가 곧 修內司官窯라고 인식하고, 그 가운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 窯가 남송후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믿고 있으므로,<sup>6)</sup> 결국 이 시기에는 주로 남송전기의 관요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남송후기의 관요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또한 남송후기관요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송관요 연구자들은 별 다른 논의 없이 남송후기에는 오직 郊壇下官窯만이 운영되었다는 점을 거의 定說로서 받아들여 온 것이다.

1) 唐俊杰·范夢園, 「2002中國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紀要」,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大學出版社, 2004.

2) 杭州南宋官窯博物館 編,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3) 秦大樹·杜正賢 主編,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大學出版社, 2004.

4) 老虎洞窯址의 발굴성과는 杭州文物考古所 編(杜正賢 執筆), 「杭州老虎洞南宋官窯址」, 『文物』 2002年第10期, 文物出版社 및 杜正賢, 「杭州老虎洞窯址의 考古學研究」, 『故宮博物院院刊』 2002年第5期, 紫禁城出版社 참조.

5) 남송관요에 대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연구성과는 范夢園, 「南宋官窯研究綜述」,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大學出版社, 2004 참조.

6)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 대표적인 견해로, 王光堯, 「杭州老虎洞窯遺址對研究官·哥窯의 啓示」, 『故宮博物院院刊』 2002年第5期, 紫禁城出版社; 「中國古代官窯制度」, 紫禁城出版社, 2004, pp.92-94, 唐俊杰, 「南宋郊壇下官窯與老虎洞官窯의 比較研究」,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195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남송후기의 문헌기록에 의거하는 한, 남송후기관요의 실상은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들은 문헌기록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를 빠뜨린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근래 몇몇 연구자들이 그러한 획일적이고 단순한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남송후기관요를 새롭게 해석할 것을 주장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sup>7)</sup> 필자도 기본적으로 이들의 시각에 동의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필자는 본고에서 기존의 通說을 재검토하고, 아울러 근래 새롭게 제시된 견해가 간과한 남송후기관요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남송관요에 대하여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2

「咸淳臨安志」  
靑器窯條에  
대한  
解釋

남송관요의 연구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크게 중시되어 온 문헌기록 가운데 하나는 남송말기인 咸淳 4年(1268)에 편찬된 「咸淳臨安志」 卷10 靑器窯條에 보이는 다음 기록이다.

靑器窯 <在雄武營山/上園壇左右><sup>8)</sup>

(( )안은 細註, " / "은 행이 바뀌는 곳을 표시함, 이하 같음)

이 기록은 여러 版本의 「咸淳臨安志」 가운데 文淵閣四庫全書本(이하 四庫全書本으로 약칭)에서 인용한 것이다. 13字에 불과한 靑器窯의 위치를 알려주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남송후기 관요의 연구는 이 靑器窯條의 내용을 기본적인 토대로 하여 출발하였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靑器窯”가 남송시기에 건립된 官窯가 분명하고, 적어도 남송후기의 관요와 관련하여 이것보다 더 생생한 사실을 전하는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관점은 타당하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연구자들은 이 기록을 분석하면서 남송후기에는 한 곳의 관요만 있었을 뿐이라는 전제 위에서 있었다. 그리고 그 위치가 “雄武營山上園壇

7) 陸明華, 「南宋官窯有關問題研究」, 『上海博物館集刊』 第8期, 上海書畫出版社, 2000;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施達·張東, 「宋代汝·官窯若干問題的研究」, 『上海博物館集刊』 第8期, 上海書畫出版社, 2000, 武佩堅, 「對南宋官窯的懷舊與瞻望」,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大學出版社, 2004.

8) 宋濂說友撰, 「咸淳臨安志」 卷10 靑器窯條, 文淵閣四庫全書本,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490冊, 臺灣商務印書館, 1986, p. 109.



左右”라는 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1930년에 八卦田의 동남쪽에 인접한 烏龜山麓에서 이른바 郊壇下官窯 遺址를 찾는 데 성공한 후,<sup>9)</sup> 1956년 浙江省文管會에서 局部發掘을 통하여 龍窯 1基<sup>(Y1)</sup>와 瓷片堆積層을 확인하였으며,<sup>10)</sup> 이어 1985~86년에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등이 정식발굴하여 龍窯 1基<sup>(Y2)</sup>와 작업장 등을 찾아내고, 아울러 수많은 南宋官窯瓷片과 窯具를 수습하였다.<sup>11)</sup> 이로써 적어도 남송후기에는 남송관요 가운데 郊壇下官窯 한 곳만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오늘날의 烏龜山麓에 있었다는 점은 거의 定說로 굳어졌다.

그러나 50여 년 전에 米內山庸夫는 『咸淳臨安志』 青器窯條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였다.<sup>12)</sup> 즉 그는 문제의 “雄武營山上圓壇左右”가 본래 어느 한 곳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雄武營山上”과 “圓壇左右” 두 곳의 위치를 표시한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의 견해는 매우 흥미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 오랫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근래 몇몇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견해를 발표하면서 다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sup>13)</sup> 이 시점에서 남송후기에 郊壇下官窯 한 곳만 운영했다는 주장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남송후기에는 한 곳의 관요만 있었을까, 아니면 두 곳의 관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바로 『咸淳臨安志』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咸淳臨安志』 卷1~15의 「行在所錄」에는 남송의 수도인 臨安府에 있던 많은 官府와 宮闕·軍營 등의 建置沿革이나 構成 등과 더불어 位置가 기재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대부분의 위치가 예외 없이 本文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유독 卷10의 內諸司條의 경우만 細註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9) 米內山庸夫, 『南宋官窯の研究(中間報告) 10, 窯跡の發見』, 『日本美術工藝』 173, 日本美術工藝社, 1953, pp. 19-20 및 『南宋官窯址の發見』, 『世界陶磁全集』 10, 河出書房, 1956, p. 280.

10) 浙江省博物館, 『三十年來浙江文物考古工作』, 『文物考古工作三十年』, 文物出版社, 1979, p. 223.

11) 中國社會科學院·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市園林文物局 編, 『南宋官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12) 米內山庸夫, 『南宋官窯の研究(中間報告) 9, 南宋官窯の開設』, 『日本美術工藝』 172, 日本美術工藝社, 1953, pp. 19-20.

13) 陸明華, 『南宋官窯有關問題研究』,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p. 150-152, 施遠·張東, 『宋代汝·官窯若干問題的研究』, 『上海博物館集刊』 第8期, 上海書畫出版社, 2000, pp. 355-356, 武佩聖, 『對南宋官窯的懷舊與瞻望』,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大學出版社, 2004, 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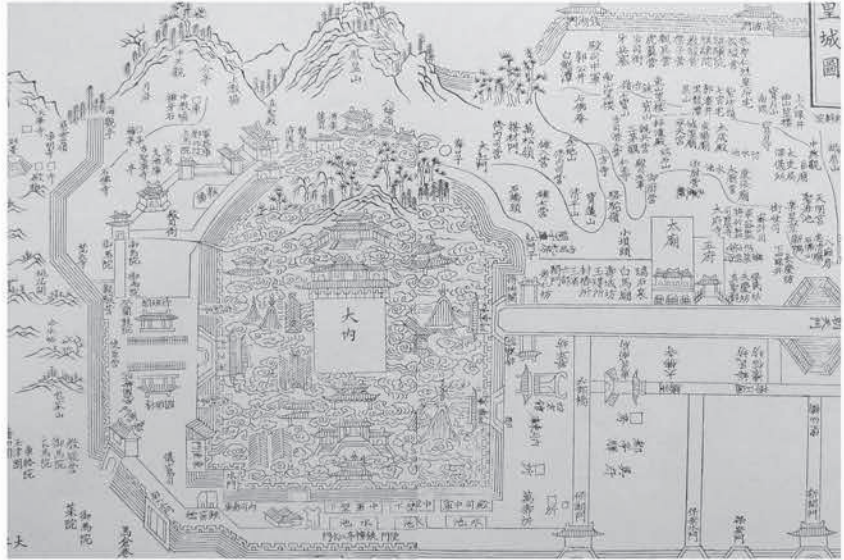


圖1 「咸淳臨安志」(振綺堂刊本) 卷1「皇城圖」(\*우측이 북측방향, 이하 동일)

갑자기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細註의 내용만 보아서는 內諸司에 속해 있는 官府나 軍營 등이 한 곳에 있었는지, 여러 곳에 있었는지 판별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는 점이다. 御馬院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御馬院 <在麗正門右/嘉會門外><sup>14</sup>

당시 御馬院은 “麗正門右嘉會門外”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靑器窯條에 대한 기존의 이해방식으로 보면, 御馬院이 한 곳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咸淳臨安志』에 실려 있는 「皇城圖」에 따르면, 御馬院은 “麗正門右”와 “嘉會門外”의 두 곳에 있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sup>15</sup>. 御馬院의 예는 靑器窯가 두 곳에 있었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다고 할 수 있다.

14 [宋]潛說友 撰, 『咸淳臨安志』 卷10 御馬院條, 文淵閣四庫全書本,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490冊, 臺灣商務印書館, 1986, p.109.

15 [宋]潛說友 撰, 『咸淳臨安志』 卷1 「皇城圖」,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3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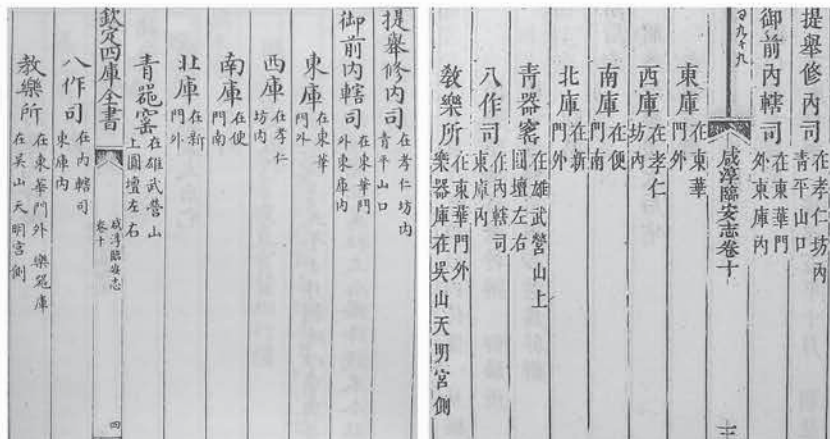


圖2 四庫全書本「咸淳臨安志」青器寮條

圖3 振綺堂刊本「咸淳臨安志」青器寮條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咸淳臨安志』 青器寮條의 細註表記가 版本에 따라 한결같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앞서 인용한 四庫全書本은 “在雄武營山上圓壇左右”의 “山”과 “上” 사이에서 行을 나누었지만<sup>16</sup>,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이하 振綺堂刊本으로 약칭)의 경우는 “上”과 “圓” 사이에서 行을 나누었다<sup>17</sup>. 그 원인은 위치와 관련된 두 版本의 細註表記方式이 서로 달랐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四庫全書本에서 細註의 표기와 관련하여 가장 중시한 것은 글자 수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다. 細註의 글자 수가 짝수일 경우에는 정확히 반으로 나누어서 두 行에 배열하고, 홀수일 경우에는 오른쪽 行에 한 글자를 더 배열하였는데, 闕字가 있는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전혀 예외가 없다. 振綺堂刊本도 기본적으로 이 기준을 따랐지만, 흥미롭게도 두 군데의 예외가 있다. 그 하나가 바로 青器寮條이고, 또 다른 하나가 같은 卷(卷10)에 수록된 教樂所條이다.<sup>18</sup>

16 [宋]潘說友 撰, 『咸淳臨安志』 卷10 青器寮條, 文淵閣四庫全書本,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490冊, 臺灣商務印書館, 1986, p. 109.

17 [宋]潘說友 撰, 『咸淳臨安志』 卷10 青器寮條,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 3441.

18 [宋]潘說友 撰, 『咸淳臨安志』 卷10 青器寮條 및 教樂所條,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 3441.

教樂所條의 경우, 細註가 “在東華門外樂器庫在吳山天明宮側”으로 되어 있는데, 四庫全書本은 “庫”와 “在” 사이에서 行을 나누어 오른쪽 行에 8字, 왼쪽 行에 7字로 균형을 맞추었다. 반면에 振綺堂刊本은 “外”와 “樂” 사이에서 行을 나누어, 결국 오른쪽 行은 5字, 왼쪽 行은 10字가 되어 글자수의 균형이 깨져버렸다. 그러나 細註의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振綺堂刊本의 경우처럼 行을 나누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四庫全書本이 細註를 표기할 때 앞서 언급한 방식을 엄격히 준수한 것은 비단 『咸淳臨安志』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다. 四庫全書에 포함된 그 밖의 책들에도 예외 없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細註를 표기한 것을 보면, 그것은 底本에 어떠한 방식으로 細註를 표기하였는가와 관계없이 四庫全書를 편찬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된 원칙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추론에 큰 문제가 없다면, 原本『咸淳臨安志』 靑器寮條의 細註는 四庫全書本보다는 振綺堂刊本의 경우처럼 표기되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한편, 우리는 앞서 振綺堂刊本에서 靑器寮條·教樂所條의 細註와 그 밖의 條의 細註의 표기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지적하였다. 양자 사이의 차이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靑器寮條와 御前內轄司條이다.<sup>19)</sup> 靑器寮條의 細註表記方式의 특징은 이미 설명하였다. 御前內轄司條의 細註는 “在東華門/外東庫內”로, “門”과 “外” 사이를 行으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이는 『咸淳臨安志』의 撰者가 “東華門外”와 “東庫內”를 별개의 위치 개념이 아니라 “東華門外”에 있는 “東庫內”라는 하나의 연결된 개념으로 파악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좋다. 만약 “東華門外”와 “東庫內”가 별개의 위치 개념이었다면, 細註는 의당 “門”과 “外” 사이에서 行을 나누지 않고, “外”와 “東” 사이에서 나누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在東華門/外東庫內”는 어느 한 곳을 가리키는 개념이라는 뜻이다. 당연히 御前內轄司도 “東華門外的 東庫內” 한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咸淳臨安志』 卷10에 御前內轄司의 東庫가 바로 “東華門外”에 있었다고 명시한 점이나, 같은 책의 『皇城圖』에 표기된 東華門과 御前內轄司의 東庫, 즉 內司東庫의 위치로 미루어 볼 때,<sup>20)</sup> 이와 같은 해석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줄 안다.

19) [宋]潛說友撰, 『咸淳臨安志』 卷10 靑器寮條 및 御前內轄司條,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3441.

20) [宋]潛說友撰, 『咸淳臨安志』 卷1 『皇城圖』,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335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御前內轄司條의 경우와 달리, 글자 수의 균형을 맞추는 細註表記의 일반적인 방식을 지키지 않고, “上”과 “圓” 사이에서 行을 나눔으로써 굳이 “雄武營山上”과 “圓壇左右”를 구분해 놓은 靑器窯條의 경우는, 그 원인을 “雄武營山上”과 “圓壇左右”가 별개의 위치 개념이었던 데에서 찾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다시 말하면, 靑器窯가 서로 다른 두 곳, 즉 “雄武營山上”과 “圓壇左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振綺堂刊本 『咸淳臨安志』 卷10의 靑器窯條가 教樂所條와 細註表記方式이 동일한 반면, 그 밖의 條들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판단에 동의하리라 믿는다.

요컨대, 原本 『咸淳臨安志』의 細註表記方式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振綺堂刊本 『咸淳臨安志』 靑器窯條에 依據하면, 남송후기의 관요가 “雄武營山上”과 “圓壇左右”의 두 곳에 있었음은 의심할 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圓壇左右”의 남송관요가 이른바 郊壇下官窯라는 것은 이미 그 窯址의 발굴을 통하여 분명해졌다. 남아있는 문제는 과연 “雄武營山上”의 남송관요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검토할 과제로서, 이를 통하여 남송후기 관요의 면모가 더욱 생생하게 드러나고, 더불어 남송후기에 두 곳의 관요가 있었다는 점도 더욱 분명해지리라 믿는다.

## 3

### “雄武營山”과 南宋官窯

“雄武營山”은 『咸淳臨安志』를 제외한, 남송시기의 地理志를 포함한 어느 문헌기록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咸淳臨安志』에서도 단지 靑器窯條에서만 찾아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산은 당시 臨安府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음은 말할 나위도 없고, “雄武營山”이라는 이름도 특정한 山名이라기보다는 그저 雄武營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공산이 크다.<sup>21)</sup> 말하자면, 이 산은 사실상 독자적인 자신의 이름이 없는 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산의 이름이 후세에 전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咸淳臨安志』의 「京城圖」에는 都城의 동쪽에 있던 新開門과 保安門 사이의 위치에 “雄武營”이 표시되어 있다<sup>22)</sup>. 이곳은 오늘날의 望江門 부근, 즉 望江路의 남쪽, 江城路의 서쪽, 中河南路의 동쪽, 撫寧巷의 북쪽에 있는 金釵袋巷 一帶에 해당한다.

21) 施遠·張東, 「宋代汝·官窯若干問題的研究」, 『上海博物館集刊』 第8期, 上海書畫出版社, 2000, p.355.

그리고 같은 책의 「皇城圖」에는 萬松嶺에 “雄七營”과 “雄八營”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sup>22</sup>, 이 “雄七營”과 “雄八營”의 남쪽 인접지역에 南宋官窯址의 하나인 老虎洞窯址가 있다. 이러한 현재까지의 考古學 자료와 문헌기록을 근거로 볼 때, “雄武營山”과 “雄武營山” 남송관요는 오늘날의 金釵袋巷이나 萬松嶺의 두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23</sup> 문헌 기록의 측면에서 보면, 전자의 가능성이 높고, 고고학적 발굴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과연 “雄武營山上”의 남송관요는 두 곳 가운데 어느 쪽에 있었을까?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되는, 「咸淳臨安志」의 「京城圖」에 보이는 “雄武營”과 같은 책의 「皇城圖」에 보이는 “雄七營”과 “雄八營”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宋代에 “雄武”는 中央禁軍의 番號(部隊名稱) 가운데 하나로서, 雄武軍은 乾德 3년(964)에 창설되어, 侍衛親軍步軍司에 속해 있었다.<sup>23</sup> 북송대에는 雄武弩手·牀(床)子弩雄武·揀中雄武·飛山雄武·揀中歸明雄武 등이 있었으나,<sup>24</sup> 남송초기에는 이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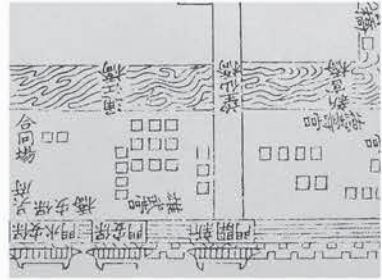


圖4 「咸淳臨安志」 「京城圖」(부분)



圖5 「咸淳臨安志」 「皇城圖」(부분)

22) “雄武營山”과 “雄武營山” 남송관요의 구체적인 위치로, 武佩聖은 望江路以南의 胡雲岩故居와 杭州第五中學 부근을 꼽았는데(武佩聖, 「對南宋官窯的懷舊與瞻望」,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大學出版社, 2004, pp.30-31), 이곳이 곧 金釵袋巷 일대에 해당한다. 반면, 米內山庸夫·陸明華·施遠·張東은 萬松嶺을 指目하였다(米內山庸夫, 『南宋官窯の研究(中間報告)』 9 南宋官窯の開設, 『日本美術工藝』 172, 日本美術工藝社, 1953, pp.19-20, 陸明華, 『南宋官窯有關問題研究』,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p.150-152, 施遠·張東, 『宋代汝·官窯若干問題的研究』, 『上海博物館集刊』 第8期, 上海書畫出版社, 2000, pp.355-356).

23) [元]脫脫等撰, 『宋史』 卷187 兵志 兵1 禁軍 上 太祖 乾德 3년 9월 및 卷188 兵志 兵2 禁軍 下 熙寧以後之制 侍衛司, 中華書局標點本, 中華書局, 1977, p.4571 및 pp.4619-4620.

24) [元]脫脫等撰, 『宋史』 卷187 兵志 兵1 禁軍 上 建隆以來之制 侍衛司, 中華書局標點本, 中華書局, 1977, p.4595.

飛山雄武와 牀子弩雄武만이 확인된다.<sup>25</sup> 남송후기의 中央禁軍의 編制狀況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咸淳臨安志』에서도 步軍司 소속의 牀子弩寨(營)과 飛山寨(營)의 존재만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sup>26</sup> 남송시기에는 步軍司 所屬의 雄武軍 가운데 飛山雄武軍과 牀子弩雄武軍만이 남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飛山雄武軍과 牀子弩雄武軍의 軍營은 통상 雄武營으로 불리지 않고, 각각 飛山寨(營)와 牀子弩寨(營)로 칭하여졌다. 이는 이미 『咸淳臨安志』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한 바이다. 또한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이들 步軍司 所屬 雄武軍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咸淳臨安志』의 「京城圖」에 보이는 “雄武營”이나 같은 책의 「皇城圖」에 보이는 “雄七營”·“雄八營”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존재였다. “雄武營”과 “雄七營”·“雄八營”이 각각 오늘날의 金釵袋巷과 萬松嶺에 위치하였던 데 반해서,<sup>27</sup> 飛山營와 牀子弩營은 그들과는 거리가 먼 “錢塘門外王家橋”에 있었기 때문이다.<sup>28</sup> 요컨대 「京城圖」의 “雄武營”과 「皇城圖」의 “雄七營”·“雄八營”은 中央禁軍인 步軍司에 편제되어 있던 雄武軍의 軍營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였다.

그렇다면 『咸淳臨安志』의 「京城圖」에 보이는 “雄武營”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음 『宋會要輯稿』의 기록에서 이 의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提舉修內司는 雄武兵士 1000人을 거느리고, 皇城內宮의 垣宇繕修之事를 관장한다.<sup>29</sup>

위 기록은 提舉修內司의 職務를 알려주고 있는데, 『宋史』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록이 있지만, 거기에는 “領雄武兵士千人”에 대한 언급이 없다.<sup>30</sup> 提舉修內司가

25) [元]脫脫 等撰, 『宋史』 卷193 兵志 兵7 召募之制 孝宗 隆興 元年, 中華書局標點本, 中華書局, 1977, p. 4820.

26) [宋]潛說友撰, 『咸淳臨安志』 卷14 牀子弩·飛山條,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 3496.

27) [宋]潛說友撰, 『咸淳臨安志』 卷1 「皇城圖」 및 「京城圖」,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 3354.

28) [宋]潛說友撰, 『咸淳臨安志』 卷14 牀子弩·飛山條,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 3496.

29) 提舉修內司 領雄武兵士千人 供皇城內宮各垣宇繕修之事(湖徐松 輯, 『宋會要輯稿』 職官 30之1, 北平圖書館影印本, 中華書局, 1957).

30) [元]脫脫 等撰, 『宋史』 卷165 職官志 職官5 將作監條, 中華書局標點本, 中華書局, 1977, p. 3919.

거느린 “雄武兵士”는 기본적으로 步軍司의 雄武軍에서 充員된 자들이었을 것이다. 한편, 위 기록에는 提舉修內司가 거느린 雄武兵이 1000명으로 되어 있지만, 적어도 남송시기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雄武兵을 거느리고 있었다.

1A (紹興) 30년 正月 15일 詔하기를, “宣(修)의 誤記內司潛火人兵은 모두 1500人인데, 可히 500人을 감할 수 있으니, 部(步)의 誤記軍司에 내려 보내, 모자란 인원을 뽑는데 充填하라”고 하였다.<sup>31)</sup>

1B (隆興元年) 8월 13日, 宰執이 內外諸司官吏 가운데 減員할 人員數를 물리니, 황제가 말하기를, “內諸司의 兵卒이 자못 많다. 修內司가 더욱 심하여 가히 300人을 감할 만하다. 餘間에 闕額이 생기면, 한곳에 주둔시켰다가 뽑아서 채우도록 하라”고 하였다.<sup>32)</sup>

1C (淳熙 16년) 2월 10日, 樞密院에서 말하기를, “提舉修內司承受鄧境이 올린 바에 의하면, 本司額管의 潛火雄武兵은 700人인데, 그 가운데 내부의 事故가 9人이고, 밖으로 最近 重華宮指揮를 받아 修內司에서 차출한 雄武兵級이 226人입니다.....”라고 하였다.<sup>33)</sup>

위의 『宋會要輯稿』기록들은 紹興 30년(1160)~淳熙 16년(1189) 사이의 修內司 소속 병사들의 軍額의 변동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그 병사들을 (A)에서는 “潛火人兵”으로, (B)에서는 “兵卒”로, (C)에서는 “潛火雄武”로, 서로 다르게 일컬었지만, 세 기록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그들이 修內司의 統領 아래에 있던 전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적어도 남송시기의 提舉修內司는 본래의 雄武兵 1000명 이외에도 1500~700명의 潛火雄武兵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다.

31) (紹興)三十年正月十五日詔 宣(修)의 誤記內司潛火人兵共一千五百人 可減五百人 擬赴部(步)의 誤記軍司 充填雇募使喚(淳熙徐松 編, 『宋會要輯稿』職官 30-23, 北平圖書館影印本, 中華書局, 1957).

32) (隆興元年)八月十三日 宰執進呈內外諸司官吏減省員數 上曰 “內諸司兵卒頗多 修內司尤甚 可減三百人 餘間有闕額去處並住(擇) 宰臣陳康伯等稱贊而退 (樞)密院詢旨擇減罷人數 仍撥下一等軍分收管(淳熙徐松 編, 『宋會要輯稿』職官 30-23, 北平圖書館影印本, 中華書局, 1957).

33) (淳熙十六年)二月十日 樞密院言 提舉修內司承受鄧境中 本司額管潛火雄武七百人 內事故九人 外近承重華宮指揮於修內司差撥雄武兵級二百二十六人.....(淳熙徐松 編, 『宋會要輯稿』職官 30-25, 北平圖書館影印本, 中華書局, 1957).



한편, 乾道 5년(1169)에 편찬된 『乾道臨安志』에 따르면, 당시 修內司(提舉修內司)에 속해 있던 軍營은 “萬松嶺下”에 있던 修內司壯役等指揮營 한 곳 뿐이었다.<sup>34</sup> 修內司雄武兵은 당연히 이곳에 駐扎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軍營은 “壯役等指揮”라고 한 것으로 보아 “壯役”을 비롯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指揮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가운데 한 指揮가 德壽宮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점이다.

【A】(紹興 32년 8월) 22日, 入內內侍省東頭供奉官·睿思殿祇應·德壽宮提轄造作任訴가 入內內侍省侍殿頭王楫을 德壽宮監造官으로 差充하는 것을 奏하고, 다음 項目을 申請하였다. “..... 一, 修內司가 本宮에 分屬시킨 雄武壯役·工匠·搭材兵이 모두 387人인데, 아직 定額인 額數가 없고, 軍의 指揮令도 나뉘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500인을 定額으로 하여 雄武指揮를 裁우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황제가 그 말을 따랐다.<sup>35</sup>

【B】(乾道 7년) 6월 16日, 詔하기를, “雄武指揮軍兵이 德壽宮을 應奉하느라 여러 倍 수고로웠으므로, 賞을 내린다. 前에 步軍司가 申請한 上件의 사람들은 工役을 하였으므로, 禁軍은 副都頭已上에게 每兩資에 一資를 補轉케 하고, 그 따르는 人們도 德壽宮은 받드는 데 이바지하여 지금 마땅히 賞을 내리는 것이 가하므로, 副都頭已上에게 每資에 특별히 一資를 補轉토록 행하라.”고 하였다.<sup>36</sup>

34) (宋)周淙 撰, 『乾道臨安志』 卷1 軍營條, 清光緒七年「武林掌故叢編」第一集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 3220.

35) (紹興三十二年八月)二十二日 入內內侍省東頭供奉官睿思殿祇應德壽宮提轄造作任訴奏 入內內侍省侍殿頭王楫差充德壽宮監造官申請下項..... 一 修內司撥隸本宮雄武壯役·工匠·搭材共三百八十七人 卽未有立定額數 軍分指揮令 乞以五百人爲額 並撥充雄武指揮 其請給關所屬依雄武見請卽例批勘 從之(清徐松輯, 『宋會要輯補』 職官 54之21-22, 北平圖書館影印本, 中華書局, 1957).

36) (乾道七年)六月十六日詔 雄武指揮軍兵應奉德壽宮年勞推賞緣 昨步軍司申請上件人兵作工役 禁軍於副都頭已上每兩資作一資補轉 其逐人爲係德壽宮祇應 今該恩賞可 將副都頭已上之人每資特作一資轉行(清徐松輯, 『宋會要輯補』 職官 54之24, 北平圖書館影印本, 中華書局, 1957).

위 기록에 따르면, 德壽宮에는 壯役·工匠·搭材兵으로 구성된 修內司의 한 指揮가 隸屬되어 있었다. 그 指揮가 바로 “雄武指揮”였다(A).<sup>37)</sup> 이들의 軍營은 당연히 “修內司雄武指揮營”으로 불리었을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德壽宮을 “應奉”하는 것이었는데, 그 “應奉”의 주된 내용은 德壽宮의 繕修를 위한 工役이었다(B).

금에게 패퇴하여 江南의 여러 곳을 전전하다 臨安府에 定都한 남송정권의 초기에는 官府와 隸下의 機構들이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였다. 修內司를 비롯한 內諸司의 軍營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 곳의 軍營에 몇 개의 指揮가 함께 駐扎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말하자면 內諸司의 軍營들이 아직 未分化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남송정권이 안정되어 가면서 새로운 軍營들이 增置되고, 分化된 많은 指揮들이 독자적인 軍營을 확보하게 되었다. 남송초기에 편찬된 『乾道臨安志』에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새로운 軍營들이 남송말기에 편찬된 『咸淳臨安志』에 등장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물론 修內司壯役等指揮營도 그러한 길을 걸었음은 남송후기의 修內司營이 6곳으로 늘어난 사실이 말해준다.

남송후기의 雄武營의 대상으로서 步軍司 소속의 飛山營·牀子營과 修內司의 雄武指揮營 이외에는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前者가 “雄武營”과 별개의 존재였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咸淳臨安志』의 「京城圖」에 보이는 “雄武營”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修內司壯役等指揮營에서 分立한 “修內司雄武指揮營”이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京城圖」상의 “雄武營”은,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오늘날의 金釵袋巷 一帶에 있었는데, 이곳은 德壽宮과 매우 가까운 위치였다. 德壽宮의 “應奉”을 맡은 “雄武指揮”의 軍營, 즉 “雄武營”이 德壽宮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萬松嶺下”에 있던 修內司壯役等指揮營으로부터 分立하여 德壽宮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雄七營”과 “雄八營”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이들의 존재는 오직 『咸淳臨安志』의 「皇城圖」에서만 확인될 뿐이기 때문에 그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雄武營山”의 위치와 관련하여, 萬松嶺에 있던 “雄七營”과 “雄八營”을 최초로

37) 이 雄武指揮에 소속되어 있던 雄武兵들에 대한 所屬과 隸屬系統을 다소 복잡하다. 이들은 步軍司의 雄武軍에서 중원된 병사로서 提舉修內司의 統領下에 있었지만, 所屬은 여전히 步軍司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보아야만, 비르스 乾道7년(1171) 6월 16일 德壽宮을 “應奉”하는 데 공로가 있던 雄武指揮軍兵들에 대한 褒賞을 修內司가 아니라 步軍司가 申請한 사경을 이해할 수 있다(湖徐松編, 『宋會要輯稿』 職官 54之24, 北平圖書館影印本, 中華書局, 1957). 말하자면 修內司의 雄武兵은 步軍司 所屬의 병사로서 修內司에 配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한 연구자는 米內山庸夫였다. 즉 그는 이 두 軍營이 곧 雄武營이며, 그 주변에서 자신이 발견한 두 곳의 窯址가 바로 “雄武營山上”의 南宋官窯址라고 주장하였다.<sup>38)</sup> 그러나 그는 『咸淳臨安志』의 「京城圖」에 보이는 “雄武營”의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가 발견하였다는 窯址도 과연 남송시기의 官窯址였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견해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또 다른 일부 연구자들은 『咸淳臨安志』의 「京城圖」에 보이는 “雄武營”의 존재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雄武營의 대상으로서 그것을 들려놓고 굳이 “雄七營”과 “雄八營”을 주목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老虎洞窯에 대한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들은 老虎洞窯가 이른바 修內司官窯이고, 아울러 『咸淳臨安志』에 보이는 “雄武營山上”의 靑器窯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雄武營은 의당 萬松嶺 일대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됨으로, 『咸淳臨安志』의 「皇城圖」에서 雄武營과 명칭이 유사한 雄七營과 雄八營에 주목하여, 그것들이 곧 “雄武營山上”에 보이는 雄武營을 가리킨다고 주장한 것이다.<sup>39)</sup>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咸淳臨安志』의 「皇城圖」를 보면, 雄七營과 雄八營은 萬松嶺의 북쪽, 金地山과 淸平山の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sup>40)</sup> 그러므로 만약 雄七營과 雄八營이 문제의 雄武營이었다고 가정하면, “雄武營山”은 의당 萬松嶺과 金地山·淸平山の 중간 지점에 있었다고 보아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雄武營山上”의 靑器窯라고 주장한 老虎洞窯는 실제에 있어서는 萬松嶺을 기준으로 이곳과 정반대인 남쪽방향에 위치하였다. 老虎洞窯가 修內司官窯였다는 관점에서 보면, 老虎洞窯가 있던 곳은 당시 搭材門과 大紅門 사이에 위치한 修內司營의 營內였을 공산이 크다. 老虎洞窯는 雄七營 및 雄八營과는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老虎洞窯와 “雄武營山上”의 靑器窯(관요)도 별개의 존재였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前提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뜻하고, 아울러 雄七營과 雄八營을 雄武營과 관련지어 이해할 근거가 박약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雄七營과 雄八營의

38) 米內山庸夫, 「南宋官窯の研究(中間報告) 9, 南宋官窯の開設」, 『日本美術工藝』 172, 日本美術工藝社, 1953, p.19 및 「南宋官窯の研究(中間報告) 11, 南宋官窯の窯跡」, 『日本美術工藝』 174, 日本美術工藝社, 1953, pp.22-23.

39) 陸明華, 「南宋官窯有關問題研究」,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150-152 및 施達·張東, 「宋代汝·官窯若干問題的研究」, 『上海博物館集刊』 第8期, 上海書畫出版社, 2000, p.355-356.

40) [宋]潘說友 撰, 『咸淳臨安志』 卷1 「皇城圖」, 淸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3354.



圖6 杭州 望江門高架路 수습 유물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여전히 課題로 남아있지만, 적어도 老虎洞窯가 “雄武營山上”의 靑器窯(官窯)라는 전제 위에서 그 두 軍營이 곧 雄武營을 가리킨다는 그들의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雄武營山”과 “雄武營山上”의 관요는 “雄武營”이 있었던 金釵袋巷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이곳이 平地로 되어 있지만, 民國時期까지도 이곳에 丘陵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武佩聖이 지적하였다.<sup>41</sup> 清 同治 3년(1864)에 그린 「浙江省垣城廂總圖」(中國 國家圖書館 所藏)에도 이 구릉이 표시되어 있다.<sup>42</sup> 이 구릉은 海拔 67.3m로, 鳳凰山 동편의 饅頭山(海拔 79.2m)보다 약간 낮은 편이었다.<sup>43</sup> 이러한 작은 구릉이 자신의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다. 이곳에 駐扎하고 있던 雄武營의 이름을 빌어 “雄武營山”으로 칭하여지고, 아울러 「咸淳臨安志」 靑器窯條를 제외한 어느 곳에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41) 武佩聖, 「對南宋官窯的懷舊與瞻望」, 「南宋官窯與哥窯—杭州南宋官窯老虎洞窯址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浙江大學出版社, 2004, pp.31.

42) 曹婉如 等 編, 「中國古代地圖集」(清代), 文物出版社, 1997, 圖194?195.

43) 周子競(周仁), 「發掘杭州南宋官窯報告書」, 「國立中央研究院總報告」第4冊 民國20年度(1931), 中國科學圖書儀器公司, 出版年度 未詳)에 첨부되어 있는 「杭州南宋官窯遺址圖」 참조.

유감스러운 것은 이후에 이곳에서 남송관요의 遺址가 발견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民國時期 이후 杭州의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雄武營山”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 收藏家가 2003년 望江門高架路 건설 부지에서 약간의 瓷片과 窯具 등을 수습하였음을 보고하였다<sup>44</sup>. 유물들이 발견된 곳은 바로 “雄武營山上”南宋官窯址로 추정되는 金釵袋巷 부근이다. 瓷片들은 모두 官窯型으로 파악되며, 사용 후에 폐기된 것이 아닌 殘次品들이다. 어떤 瓷片들은 불에 그을린 채 가마벽체와 엉겨 붙어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窯址에서 예의 없이 발견되는 것들이다. 이것들이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이는 그 부근에 窯址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이 유물들이 “雄武營山上”남송관요가 남긴,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흔적이라고 생각한다. “雄武營山”에서 파낸 흙 등을 어디에 폐기하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더 많은 “雄武營山上”남송관요의 흔적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시간이 문제라 될지언정,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 4

“雄武營山上”官窯와  
修內司官窯  
및  
郊壇下官窯

남송관요의 실상에 대하여 가장 상세하고 명확한 사실을 전하고 있는 기록은 남송시기에 葉寔가 편찬한 『坦齋筆衡』과, 이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顧文薦에 의해 편찬된 『負暄雜錄』이다. 하지만 후자는 전자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sup>45</sup> 『坦齋筆衡』은 남송관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宋이 南遷한 후, 邵成章이 提舉後苑이 되어, 邵局으로 칭하였는데, 故京의 遺制를 답습하여, 修內司에 窯를 설치하고, 靑器를 제작하여, 內窯라고 名하였다. 잘 수비한 흙으로 成形하여 극히 精緻하고, 釉色이 瑩徹하여,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다. 후에 郊壇下에 별도로 新窯를 세웠는데, 舊窯에 비하여 크게 떨어진다. 그 밖에 烏泥窯·餘杭窯·續窯 같은 것들은 모두 官窯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혹 옛 越窯를 일컫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sup>46</sup>

44) 馬亦超, 『南宋杭州修內司官窯研究』, 中國美術學院出版社, 2006, p.15 및 p.303.

45) 成彩虹·劉冬梅, 『五大名窯史話』, 百花文藝出版社, 2007, pp.126—127.

위 기록에는 남송정부가 성립된 이후에 邵成章이 修內司에 “內窯”를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邵成章”이 “邵諤”의 錯誤라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sup>46)</sup> 그리고 뒤이어 郊壇下에 “新窯”를 “別立”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新窯를 설립한 주체가 內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邵諤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우리는 흔히 “內窯”를 修內司官窯, “新窯”를 郊壇下官窯로 일컫는다. 그리고 두 관요의 존재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거의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烏龜山에서 발굴된 관요가 郊壇下官窯라는 점에 의심을 품는 연구자는 아무도 없으며, 근래에 발굴된 老虎洞窯의 宋代層이 修內司官窯의 遺址라는 점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sup>47)</sup> 남송 시기에 두 곳의 관요, 즉 修內司官窯와 郊壇下官窯가 운영되었다는 점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단지 『坦齋筆衡』이 편찬된 당시까지의 사정만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坦齋筆衡』은 대략 寧宗 嘉定 5년(1212)을 전후한 시기에 편찬된 것으로 믿어짐으로,<sup>48)</sup> 이 책은 대체로 남송중엽까지의 남송관요에 대한 사실만을 알려주는 셈이다. 요컨대 修內司官窯와 郊壇下官窯의 두 곳의 관요가 운영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남송중엽까지이다.

남송후기의 관요의 실상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咸淳臨安志』 青器窯條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남송후기에는 郊壇下官窯와 金釵袋巷에 위치한 “雄武營山上”官窯가 운영되었다. 즉 郊壇下官窯와 修內司官窯를 운영하던 체제가 남송후기의 어느 때에 이르러 郊壇下官窯와 “雄武營山上”官窯를 운영하는 체제로 변화한 것이다. 이 변화의 핵심은 老虎洞에 있던 修內司官窯의 소멸과 “雄武營山上”官窯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점을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하여 두 관요, 즉 修內司官窯와 “雄武營山上”官窯의 운영체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修內司官窯는 말 그대로 이 窯가 修內司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얻은 이름이다. 『坦齋筆衡』은 이를 두고 “置窯於修內司”라고 하였다. 남송전기에 修內司는 皇城內에

46) 中興波江 有邵成章提舉後苑 號邵局 鑄牧京遺制 置窯於修內司 造青器 名內窯 澄泥爲範 極其精緻 袖色疊徹 爲世所珍 後郊壇下別立新窯 比舊窯大不侔矣 餘如烏泥窯·餘杭窯·續窯 皆非官窯比 若謂舊越窯 不復見矣(元陶宗儀撰, 『南村耕錄』, 卷29 窯器條, 元明史料筆記叢刊本, 中華書局, 1959, pp. 362-363).

47) 李民華, 『宋官窯論稿』, 『文物』1994年 第8期, 文物出版社, p. 49.

48) 秦大棟, 『杭州老虎洞窯址考古發現專家論證會紀要』, 『文物』2001年 第8期, 文物出版社, pp. 94-95.

49) 劉建華, 『關於修內司官窯問題的思考』,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p. 49-50.

있었다.<sup>50</sup> 그리고 隸下에 修內司壯役等指揮營이 있었는데, “萬松嶺下”에 駐扎하고 있었다.<sup>51</sup> 皇城內에 窯를 설치했을 리는 없다. 그러므로 “置窯于修內司”는 修內司壯役等指揮營(修內司營)의 營內에 窯를 설치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窯를 운영하는 데에는 陶工 이외에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雜役夫가 필요한 법이다. 陶工들이 瓷器를 成形하고 燒成한 반면, 瓷土를 운반하여 粉碎하고 淘洗하거나, 柴木을 마련하고 운반하거나, 그 밖의 瓷器 생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번잡한 일들은 雜役夫들의 몫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송전기에 修內司에는 잡역부로 동원할 수 있는 많은 병사들이 있었다. 修內司營內에 관요를 설치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중시하면, “雄武營山上”官窯도 雄武營의 營內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52</sup>

한편, 雄武營이 修內司雄武指揮의 軍營이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즉 이 軍營은 修內司에 下屬되어 있었다. 그러나 修內司에 下屬되어 있던 軍營의 상황을 가장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咸淳臨安志』卷14 內諸司并宮觀兵士條의 어디에도 雄武營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단순한 기록의 누락일까,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일까?

雄武營의 정식명칭은 “修內司雄武指揮營”이었다. 즉 “雄武營”은 略稱이었던 셈이다. 이와 같이 軍營名을 약칭한 것을 『咸淳臨安志』에서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컨대, 『咸淳臨安志』卷14에 보이는 “修內司綱兵營”과 “樞密院親兵營”을 같은 책 「京城圖」에서는 각각 “修內司營”과 “親兵營”으로 표기하였다.<sup>53</sup> 흥미로운 것은, 이미 鄭建華가 지적한 바와 같이, 雄武營이 있던 바로 그 위치에 修內司營이 있었다는 점이다.<sup>54</sup> 『咸淳臨安志』卷14에 따르면, 네 곳의 修內司營 가운데 한 곳이 “權貨務東”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雄武營이 있던 위치이다. 『咸淳臨安志』의 「皇城圖」와 「京城圖」에는 이 修內司營과 權貨務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京城圖」에 雄武營만 표시되어 있지만, 『西湖遊覽志』의 「宋朝京城圖」에는

50) [宋]周淙撰, 『乾道臨安志』卷1 內諸司條, 清光緒七年『武林掌故叢編』第一集本, 『宋元方志叢刊』第4冊, 中華書局, 1990, p.3218.

51) [宋]周淙撰, 『乾道臨安志』卷1 軍營條, 清光緒七年『武林掌故叢編』第一集本, 『宋元方志叢刊』第4冊, 中華書局, 1990, p.3220.

52) 李民華, 『宋官窯論稿』, 『文物』1994年 第8期, 文物出版社, p.52.

53) [宋]潘說友撰, 『咸淳臨安志』卷14 修內司綱兵營條 및 樞密院親兵營條, 卷1 「京城圖」, 清道光十年錢謙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第4冊, 中華書局, 1990, p.3493, p.3497, p.3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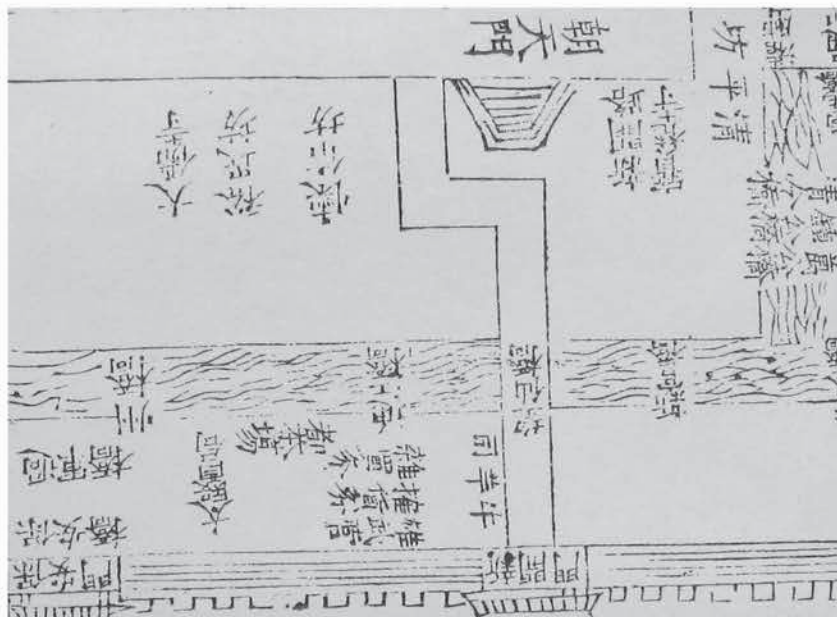


圖7 「西湖遊覽志」宋朝京城圖(부분)

정확히 修內司營이 있었던 權貨務의 동쪽 지점에 雄武營이 있었음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sup>54</sup>. 이는 “權貨務東”의 修內司營과 雄武營이 사실상 같은 營이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修內司雄武指揮營”을 경우에 따라 “雄武營”과 “修內司營”으로 달리 약칭하였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咸淳臨安志』卷14에서는 “修內司營”으로, 같은 책의 「京城圖」에서는 “雄武營”으로 칭한 셈이다.

이상의 논의에 큰 무리가 없다면, 결국 “雄武營山上”官窯도 修內司營內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修內司營(雄武營)의 병사들은 여전히 雜役을 제공했을 것이다. 老虎洞에 있던 修內司官窯의 시대가 막을 내림에 따라 그곳의 陶工들은 새로 설립된 “雄武營山上”官窯에서 官窯瓷器의 생산을 계속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雄武營山上”官窯는 老虎洞의 修內司官窯와 지리적인 위치는 달랐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修內司營內에 있었으며, 陶工과 雜役夫의 구성도 그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점에서 “雄武營山上”官窯도 修內司官窯로 부를 수

54 鄭建華, 「關於修內司官窯問題的思考」, 『南宋官窯文集』, 文物出版社, 2004, p.55.

55 [明]田汝成 撰, 『西湖遊覽志』附「宋朝京城圖」, 杭州市檔案館 編, 『杭州古舊地圖集』, 浙江古籍出版社, 2006, 圖4.



있다. 말하자면 “雄武營山上”官窯는 남송후기의 修內司官窯였던 셈이다. 老虎洞所在 修內司官窯의 소멸과 “雄武營山上”官窯의 설립도 별개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이 두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修內司官窯가 남송후기의 어느 때에 老虎洞에서 金銀袋巷으로 그 窯場을 移轉하였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면 남송후기의 修內司官窯(“雄武營山上”官窯)와 또 다른 하나의 남송관요인 郊壇下官窯는 어떻게 운영된 것일까? 이 점을 명확히 함으로서 우리는 남송후기 관요의 실상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咸淳臨安志』卷10 內諸司條에는 入內內侍省을 비롯한 많은 內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靑器窯는 東庫·西庫·南庫·北庫·八作司·教樂所와 함께 御前內轄司의 밑에 열거되어 있다. 이는 靑器窯, 즉 郊壇下官窯와 修內司官窯(“雄武營山上”官窯)가 御前內轄司의 隸下機構였음을 말해준다. 두 관요의 핵심구성원인 陶工들 역시 御前內轄司에 예속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修內司營內에 설치된 남송후기의 修內司官窯가 提舉修內司가 아닌 御前內轄司의 예하에 있었다는 것이 흥미롭다. 提舉修內司가 修內司官窯의 직속상급기구가 아닌 이상 修內司官窯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提舉修內司의 책임 밖의 일이었다. 그것은 御前內轄司의 몫이었다. 하지만 修內司官窯가 修內司營內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修內司의 병사들이 雜役을 제공하였으므로, 提舉修內司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修內司官窯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咸淳臨安志』卷10 內諸司條에 御前內轄司와 提舉修內司가 並列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양자가 상호간에 아무런 예속관계가 없는 동등한 관계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修內司官窯의 운영을 둘러싸고 두 官府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찰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은 內諸司의 최고관부인 入內內侍省 등에서 통제하고 조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송후기 修內司官窯의 운영체제가 이와 같이 다소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않았던 것은 이미 남송초기에 入內內侍省의 최고책임자인 鄧諤이 주도적으로 修內司官窯를 설립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sup>5)</sup>

郊壇下官窯는 설립된 이후 줄곧 “郊壇下” 한 곳에서 窯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남송후기에 그곳에는 修內司營이 없었으므로, 修內司 소속 병사들이 雜役을 제공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郊壇下官窯는 修內司官窯의 경우와는 다른 부류의 雜役을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인데, 이와 관련하여 修內司와 성격이 유사한 官府인 八作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八作司는 京城內외의 “繕修之事”를 맡은 官府로서,<sup>6)</sup> 많은 作坊을 두고, 아울러

수많은 工匠과 雜役을 담당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sup>56)</sup> 뿐만 아니라, 본래 窯業과 일정한 관련이 있었다. 그 作坊 가운데 瓦作이나 靑窯作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남송후기에도 이러한 作坊이 운영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八作司가 본래 그러한 일들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들은 八作司의 병사들이 郊壇下官窯의 雜役に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준다. 지리적인 면에서도 八作司와 郊壇下官窯 사이에서 일정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 ▶ A | 靑器窯 <雄武營山上·園壇左右에 있다><sup>57)</sup>
- ▶ B | 園壇은 嘉會門 밖 남쪽 四里에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sup>58)</sup>
- ▶ C | 南에는 玉津園이 있는데, 嘉會門 밖 남쪽 四里에 있다.<sup>59)</sup>
- ▶ D | 八作司營은 玉津園前·崇新門外에 있다.<sup>60)</sup>

56) 脩內司官窯(“內窯”)의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대략 高宗 紹興 14년(1144)~26년(1156)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필자도 대체로 여기에 동의하는데, 이 시기에 禮部은 入內內侍省의 최고장관인 入內內侍省都知로서, 提舉後苑職을 겸하고 있었다(卞濬松 編, 『宋會要輯稿』 禮12-2, 中華書局, 1957 및 元陶宗儀 撰, 『南村耕錄』 卷29 窯器條, 元明史料筆記叢刊本, 中華書局, 1959). 말하자면 그는 內侍 가운데 가장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脩內司官窯의 설립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그가 後苑—남송후기에는 御前內繕司—이 掌管하는 官窯(“內窯”)를 脩內司營에 설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脩內司營을 掌管한 提舉脩內司 역시 內侍가 맡고 있었는데(魏延明 編著, 『宋代官制辭典』, 中華書局, 1997, p. 369), 그도 入內內侍省都知의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脩內司官窯의 다소 복잡하고 체계적이지 않은 운영체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孕胎되었다고 생각한다.

57) 元脫脫 等 撰, 『宋史』 卷165 職官志 職官5 辨作監條, 中華書局標點本, 中華書局, 1977, p. 3919.

58) 卞濬松 編, 『宋會要輯稿』 職官 30-7, 中華書局, 1957.

59) 靑器窯(在雄武營山上/園壇左右)(卞濬松 撰, 『咸淳臨安志』 卷10 靑器窯條,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 3441).

60) 園壇 在嘉會門外以南四里 三歲一朝(卞濬松 撰, 『乾道臨安志』 卷1 郊社條, 清光緒七年「武林掌故叢編」第一集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 3215).

61) 南則有玉津園 在嘉會門外南四里(卞濬松 撰, 『夢粱錄』 卷19 園圃條, 文淵閣四庫全書本,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590冊, 臺灣商務印書館, 1986, p. 157).

62) 八作司營 在玉津園前·崇新門外(卞濬松 撰, 『咸淳臨安志』 卷14 八作司營條,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 3493).

“圓壇左右”에 있던 靑器窯가 郊壇下官窯를 가리키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A). 圓壇은 都城의 남쪽에 위치한 嘉會門의 남쪽 4리 지점에 있었으며(B), 거의 인접한 곳에 玉津園이 있었다(C). 그 玉津園의 앞(前)에 八作司 隸下的 八作司營이 있었는데(D), 방향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앞(前)에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지만, 玉津園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여도 좋다. 의당 八作司營은 圓壇 및 郊壇下官窯와도 인접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sup>63</sup>

게다가 남송후기에 八作司는 靑器窯와 함께 御前內轄司의 隸下機構였으며, 게다가 御前內轄司와 八作司는 함께 “東華門外東庫內”에 있었다.<sup>64</sup> 이러한 점들은 두 官府의 밀접한 관련성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御前內轄司가 郊壇下官窯의 운영을 위하여 八作司營의 병사들을 동원하였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御前內轄司의 直屬隸下機構가 아닌 修內司營의 병사를 동원한 修內司官窯의 경우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요컨대, 남송후기의 修內司官窯와 郊壇下官窯 및 그 핵심 구성원인 陶工들은 모두 御前內轄司에 隸屬되어 있었으며, 修內司官窯는 修內司營 병사들의 雜役을, 郊壇下官窯는 八作司營 병사들의 雜役을 이용하여 窯業을 운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 5

### 南宋後期の 修內司官窯

—그 成立時期와  
成立原因—

남송후기에 있었던 관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老虎洞 修內司官窯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롭게 “雄武營山上” 修內司官窯의 시대가 열렸다는 점일 것이다. 전자가 남송전기의 修內司官窯라면,<sup>65</sup> 후자는 남송후기의 修內司官窯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의

63) 옥 『咸淳臨安志』 「西湖圖」 상에서 龍母池 근방에 표시된 “八作司”가 문제의 八作司營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지만(宋淵說友 撰, 『咸淳臨安志』 卷1 「西湖圖」, 清道光十年錢澐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3355.), 이곳을 “玉津園前”으로 표시했을까 하는 점이 의문이다. “玉津園前”이라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어느 지점을 표시할 경우는 대부분 인근에 있는 유명한 山인 “龍山”을 기준으로 하였다. 玉津園 자체가 “龍山之北”에 있었다고 한 것이 좋은 예이다(宋淵說友 撰, 『乾道臨安志』 卷1 苑囿條). 하지만, 실사 “八作司”가 八作司營을 가리킨다고 하여도, 이곳이 郊壇下官窯와 그다지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보기는 힘들다(朱伯謙, 『續資治通鑑長編』 卷197, 中華書局, 1979, p.205).

64) 宋淵說友 撰, 『咸淳臨安志』 卷10 御前內轄司條, 清道光十年錢澐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3441.

하나는 과연 남송후기의 修內司官窠—“雄武營山上”의 修內司官窠—가 언제 성립 되었을까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단지 남송후기 修內司官窠의 성립시기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老虎洞 修內司官窠의 소멸시기문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우리는 앞에서 남송후기의 修內司官窠가 오늘날의 金釵袋巷에 있던 修內司營(雄武營)의 營內에 설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남송후기의 修內司官窠는 그곳에 修內司營이 駐扎하기 시작한 이후에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咸淳臨安志』의 기록에 의거하면, 이 修內司營은 修內司壯役等指揮營에서 分立한 이후 곧바로 金釵袋巷에 駐扎하지 않고 한동안 다른 곳에 駐扎하였다.

景隆觀은 新門 밖에 있는데, 이전의 通元菴이다. 嘉定 14년, 황제가 敎諭를 내려 觀을 건립하는 것을 허락하고, 舊修內司營地를 내렸다. 羽士 陳永年 이 힘써 건립 하였다.<sup>85)</sup>

즉 景隆觀(舊通元菴)은 寧宗의 허락을 받아 새롭게 觀을 건립하였는데, 그곳이 “舊修內司營地”로서, 新門(新開門) 밖에 있었다. 본래 이곳에 있던 修內司營은 萬松嶺 일대와 鐵冶嶺에 있던 다른 修內司營들과 달리 德壽宮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이 점으로 미루어 이 修內司營은 德壽宮의 “應奉”을 임무로 한 “修內司雄武指揮”가 修內司壯役等指揮營에서 分立하여 처음 駐扎한 軍營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乾道臨安志』가 편찬된 乾道 5년(1169)경에는 修內司에 隸屬된 軍營이 修內司壯役等指揮營 한 곳뿐이었으므로, “修內司雄武指揮”가 이곳에 자리 잡은 것은 당연히 그 이후가 될 것이다. 이 修內司營이 다시 金釵袋巷으로 駐扎地를 옮기고, 嘉定 14년(1221) 그 자리에 景隆觀이 건립된 것이다. 따라서 이 修內司營이 金釵袋巷으로 이전한 것은 嘉定 14년 以前이 된다.

85) 老虎洞 修內司官窠가 남송전기의 修內司官窠라고 하였지만, 이것이 老虎洞 修內司官窠가 남송전기의 유일한 修內司官窠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老虎洞 修內司官窠 이전에 또 하나의 修內司官窠가 淸平山附近에 있었으며, 이것이 남송 최초의 修內司官窠라고 믿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남송 修內司官窠는 淸平山附近 → 老虎洞 → 望江門內的 金釵袋巷으로 窠場을 옮기며 운영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곧 別篇을 마련하여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86) 景隆觀 在新門外 舊爲通元菴 嘉定十四年 旨許建觀以舊修內司營地界之 羽士陳永年出力勸進(〔宋〕潘說友撰, 『咸淳臨安志』 卷75 景隆觀條, 淸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 4031).

“舊修內司營地”가 위치한 곳은 비록 都城 밖이었지만, 상당히 변화한 곳이었다. 주위에는 많은 坊과 거리, 그리고 寺刹·宮觀·軍營·瓦子 등이 밀집하여 있었다.<sup>67</sup>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修內司營이 駐扎地를 옮긴 이후, 그 舊地가 그다지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修內司營이 이전한 것과 그 舊地에 景隆觀을 건립한 것 사이의 시간적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新開門 밖에 있던 修內司營이 金釵袋巷으로 이전한 것은 대체로 1210년대경으로 파악된다.

“舊修內司營地”와 金釵袋巷의 新修內司營地는 新開門을 사이에 두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舊修內司營地”에 자리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新駐扎地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점들과 아울러 새로 이전한 修內司營內에 남송후기의 새로운 修內司官窯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修內司營의 再移轉과 새로운 修內司官窯의 설치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즉 金釵袋巷으로의 修內司營의 이전은 그곳에 새로운 官窯—修內司官窯—를 설치할 것을 염두에 둔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金釵袋巷의 修內司官窯도 修內司營이 그곳에 이전한 이후 곧이어 설치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요컨대 남송후기의 새로운 修內司官窯도 121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히 老虎洞의 修內司官窯가 소멸한 것도 이 시기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남송후기에 접어들어 金釵袋巷에 새로운 修內司官窯를 설립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 문제는 老虎洞 修內司官窯의 소멸과의 관련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 양자는 서로 表裏關係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老虎洞 修內司官窯는 鳳凰山과 九華山 사이의 좁고 비교적 가파른 계곡 서쪽 끝 부분의 좁은 盆地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해발 90m 가량으로窯를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곳이다.<sup>68</sup> 게다가窯場이 들어서기에는 대단히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서·남·북쪽이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자락으로 막혀 있고, 동쪽은 급한 계곡이 이어져 있어서窯場을 넓히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곳은 지속적으로窯業을 운영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修內司官窯址를 찾으려는 많은 연구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修內司官窯址로

67) [宋]清說友撰, 『咸淳臨安志』卷1「浙江圖」, 清道光十年錢塘汪氏振綺堂刊本, 『宋元方志叢刊』第4冊, 中華書局, 1990, p.3355 참조.

68) 杜正賢·周少華, 『南宋官窯窯址鑑定與鑑賞』, 江西美術出版社, 2003, p.47.

이곳을 주목하지 않은 것은 주로 이러한 원인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취약한 지리적 조건도 金銀袋巷의 넓은 지역으로 修內司官窯를 이전하게 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老虎洞 修內司官窯는 남송 皇城의 북쪽 城壁과 100m도 떨어져 있지 않다.<sup>69)</sup> 이러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老虎洞 修內司官窯로 인한 火災의 위험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窯業이 기본적으로 불(火)과 관련된 것이고, 그 窯가 皇帝의 거주지인 皇城과 至近距離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그러한 지적은 타당하다.

남송시기의 都城인 臨安府는 火災가 많이 났던 것으로 유명하다.<sup>70)</sup> 남송후기의 새로운 修內司官窯가 설립된 1210년대를 전후한 시기, 대략 嘉定年間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특히 많이 발생하였다. 『宋史』五行志에 기록된 화재만 하여도 7차례에 이른다.<sup>71)</sup> 皇城의 동북쪽에 인접해있는 萬松嶺은 특히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남송시기에 都城에서도 인구밀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河川이 없고, 산으로 뒤덮여 있어서, 특히 봄과 가을에 樹木이 말라 있을 때에는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좀처럼 진압하기가 쉽지 않았다. 嘉定元年(1208) 3월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4일 동안이나 불길을 잡지 못하였다.<sup>72)</sup> 이 지역에서도 皇城과 극히 인접한 곳에 老虎洞 修內司官窯가 있었다.

한편, 老虎洞 修內司官窯는 龍窯를 택하였는데, 杭州를 포함한 越州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燃料로 쓰는 柴木이 건조해지면서 화력이 좋아지는 가을 이후에 가마에 불을 지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唐代 시인 陸龜蒙이 그의 詩「秘色越器」에서 “9월에 가을바람이 불고 이슬이 내리면 越窯에 불을 지핀다(九秋風露越窯開)”는 유명한 句節을 남긴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sup>73)</sup> 문제는 이 시기가 화재로부터 가장 취약한 때라는 점이다. 嘉定年間에 臨安府에서 난 7건의 화재 가운데 6건이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 요컨대 老虎洞 修內司官窯는 地理的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燒爐, 즉 窯爐에 불을 지피는 계절적 측면에서도 화재의 커다란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69) 杜正賢·周少華, 『南宋官窯考證定與鑑賞』, 江西美術出版社, 2003, pp. 47-48.

70) 鄧雲飛·孫良玉, 『宋代的城市消防制度』, 『湖南工程學院學報』, 第15卷 第3期, 2005, p. 80.

71) 宋脫脫 等撰, 『宋史』卷63 五行志 五行2上 火上, 中華書局標點本, 中華書局, 1977, pp. 1382-1384.

72) 宋脫脫 等撰, 『宋史』卷63 五行志 五行2上 火上 嘉定元年 3월 戊寅, 中華書局標點本, 中華書局, 1977, p. 1382.

73) 唐陸龜蒙撰, 『甫里集』卷12 「秘色越器」, 『欽定四庫全書書要』第367冊, 世界書局, 1986, p. 79.

老虎洞 修內司官窯에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고 그것이 皇城을 위협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지만 이 관요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만으로도 커다란 잠재적 화재위험요소로 인식되었을 공산이 크다.

萬松嶺 지역과 달리, 남송후기의 修內司官窯가 있던 金釵袋巷 일대는 상대적으로 화재의 발생빈도가 낮고 아울러 화재로 인한 피해도 적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sup>74</sup> 그것은 이 지역의 人文地理的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지역에는 산이 거의 없으며, 남북으로 市河와 鹽橋運河가, 동서로 崩山河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들은 淸湖河와 더불어 “城內四河”로 불리던 都城 내의 主流河川들이었다.<sup>75</sup> 그리고 이 지역은 萬松嶺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송후기의 새로운 修內司官窯는 바로 이 지역의 新開門과 保安門의 중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었다.

새로운 修內司官窯는 老虎洞 修內司官窯에 비해 皇城으로부터 훨씬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남쪽과 서쪽에 각각 市河와 鹽橋運河가 흐르고, 동쪽은 都城의 성벽으로 가로 막혀 있었다. 그러므로 설사 이 修內司官窯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皇城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다만 북쪽에 인접하여 있던 德壽宮에 위협이 미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새로운 修內司官窯와 德壽宮도 望仙橋에서 新開門으로 이어지는 넓은 도로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德壽宮은 위험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적어도 남송후기 修內司營이 있었던 네 곳, 즉 萬松嶺·孝仁坊內石頭橋·鐵冶嶺·樞貨務東 가운데 새로운 修內司官窯가 자리 잡은 樞貨務東(金釵袋巷 일대)이 화재 위험성의 측면에서 가장 안전했다는 점은 인정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 점이 老虎洞 修內司官窯를 버리고 金釵袋巷의 修內司營에 새로운 修內司官窯를 설립하게 된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74) 이 주위에서 난 화재는 紹興 2년(1132)의 佛法寺 화재와 隆興 2년(1164) 및 開禧 2년(1206) 2월의 壽慈宮(壽德壽宮) 화재 정도인데, 별다른 피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 일려 진화된 것으로 보인다(宋脫脫等撰, 『宋史』 卷63 五行志 五行2上 火上 高宗 紹興 2년 4월, 寧宗 開禧 2년 2월 癸丑, [清徐松 輯, 『宋會要輯稿』 瑞異 2-236, 北平圖書館影印本, 中華書局, 1957).

75) (宋)施潤 撰, 『淨明靈安志』 卷10 城內四河條, 清光緒九年『武林掌故叢編』第四集本, 『宋元方志叢刊』 第4冊, 中華書局, 1990, pp.3325-3326.

6  
餘言

남송시기에는 修內司官窯와 郊壇下官窯가 시기를 달리 하여 설립되어 각각 남송이 멸망할 때까지 운영되었으며, 남송후기 1210년대 무렵에 老虎洞의 修內司官窯가 望江門 부근의 金釵袋巷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이 본고의 줄거리이다. 郊壇下官窯가 설치되어 소멸할 때까지 烏龜山麓에서 窯業을 계속하였다는 것은 문헌기록이나 고고학적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하지만 老虎洞의 修內司官窯가 남송후기에 金釵袋巷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은 주로 문헌 기록에 의거하여 추론한 사실이다.

필자는 金釵袋巷에 있던 남송후기 修內司官窯의 고고학적 흔적을 찾기 위하여 몇 차례에 걸쳐 望江門 부근의 金釵袋巷과 撫寧巷 주위를 조사하였지만, 그 곳에는 이미 金獅苑을 비롯한 많은 아파트와 民家·學校 및 政府機關 등이 들어서 있어 그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오래 거주한 노인들에게 窯址의 존재를 探問하였지만, 그들은 그곳에 窯址는 물론 조그만 산—“雄武營山”—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송후기 修內司官窯의 흔적을 찾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근래 杭州에서는 여러 곳에서 많은 官窯瓷器片들이 출토되었다. 中河路高架橋(南星橋段)과 杭州卷煙廠 및 梅花碑가 그 대표적인 곳들이다.<sup>76</sup> 특히 中河路高架橋(南星橋段)에서는 官窯瓷器의 殘次品과 더불어 窯具가 발견되었다.<sup>77</sup> 그러나 이곳은 南宋의 皇宮에 속하는 곳이었으므로, 거기에 窯가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면 이곳의 유물들은 어느 窯址에서 옮겨진 것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물들이 남송후기의 修內司官窯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杭州의 여러 곳에서 출토된 官窯瓷器片들 및 窯具들과 老虎洞 修內司官窯 및 郊壇下官窯 출토품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진행될 경우, 남송후기 修內司官窯의 존재가 문헌기록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확인되는 것도 그다지 먼 훗날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76: 劉毅, 「“鳳凰山窯”의 發現及相關問題研究」, 『南方文物』, 江蘇省文物考古研究所·江蘇省博物館, 1999년 第2期, p. 69, 吳戰墨, 『圖說中國陶瓷史』, 浙江教育出版社, 2001, p. 112, 張玉蘭, 「關於老虎洞窯的幾個問題」, 『東方博物』 第14輯, 浙江大學出版社, 2005, p. 99.

77: 張玉蘭, 「關於老虎洞窯的幾個問題」, 『東方博物』 第14輯, 浙江大學出版社, 2005, p. 99.



---

강진청자박물관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 南宋前期의 官窯에 대한 새로운 理解

---

인 쇄 일

2009년 12월 24일

발 행 일

2009년 12월 28일

기획편집

강진청자박물관

발 행

강진청자박물관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27

Tel 061. 430. 3721 / 3724

복디자인

그라픽네트 \_ 송인혜 윤이나

인 쇄

삼원정판사

© 강진청자박물관 2009